

## 문재인 대통령 “한-호주 광물 협력, 글로벌 공급망 안정·양국 경제 도약”

### 호주 기업인 초청 ‘한-호주 핵심광물 공급망 간담회’ 참석

호주를 국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오후 시드니 한 호텔에서 열린 ‘한-호주 핵심광물 공급망 간담회’에 참석, 호주 기업인들을 직접 만나 양국 간 핵심광물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전날인 13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호주 산업과학에너지자원부는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양해각서(MOU)’를 양국 정상이 임명한 가운데 체결한데 이어 이날은 호주 기업인과의 자리를 마련했다.



간담회에는 사이몬 크린 한-호주경제협력위원회(AKBC) 회장, 이안 갠델 ASM 의장, 스티븐 그로콧 QPM 대표이사, 조 카디라벨 코발트블루 대표이사, 톰 시모어 PwC 호주 대표이사 등 호주의 핵심광물 관련 기업인들이 참석했다.

ASM(Australian Strategic Materials)은 희토류, QPM(Queensland Pacific Metals)은 니켈·코발트, 코발트블루는 코발트를 각각 생산하는 호주 기업이다. PwC 호주는 핵심 광물 등 에너지·자원, 인프라 등에 대해 컨설팅을 수행하는 다국적 컨설팅 회사다.

QPM과 코발트블루는 국내 기업과 지분 인수 계약을 체결했으며, ASM은 국내 희소금속 친환경 기술 보유기업을 인수해 한국 내 자회사 설립한 바 있다.

한-호주 경제 협력 위원회(Australia-Korea Business Council)는 1978년 설립된 대표적인 한-호 양국 기업인 간 협력 협의

체로, 무역·투자 촉진 목적의 다양한 경제 교류 행사를 개최해 오고 있다. 최근에는 ‘한-호주 핵심광물 협력 가능 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핵심광물 분야 투자 협력에도 주도적인 활동을 해오고 있다.

핵심광물은 니켈, 리튬, 희토류 같이 경제적·산업적 가치가 크고 수요가 높으나 공급·환경 리스크가 큰 광물을 일반적으로 의미하며, 전기차·이차전지·신에너지 등 미래 전략 산업의 필수 소재로 사용되고 있다. 대부분의 핵심광물은 국가별로 매장량 편차가 크고 가격 변동 및 수급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공급선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 모두 발언을 통해 “코로나를 계기로 안정적인 공급망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세계 각국이 탄소중립 추진을 가속화하면서 새로운 광물 수요가 급격히 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니켈, 코발트, 리튬 등 풍부한 핵심광물을 보유한 호주와 이차전지, 전기차 등 관련 산업에서 핵심광물 수요가 많은 우리나라 간에 협력을 확대해 글로벌 공급망 안정과 탄소중립을 앞당기는 한편 양국 경제 회복과 성장에도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양국 기업 간에 공급계약, 투자 등 다양한 협력이 진행되는 점을 평가하고, “이러한 기업인들의 노력을 뒷받침하도록 정부 간 협력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호주 기업인들은 양국 기업 간에 광물자원 분야에서 오랜 기간 상당한 신뢰를 쌓아왔다는 점과 양국 간 물류 체계도 원활한 점을 강조하면서 향후 한국 기업들과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 기대한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최근 요소수 사례를 통해 안정적인 공급망의 중요성이 부각됐듯이 앞으로 탄소중립을 위한

산업적 대응에 없어서는 안 되는 요소로서 ‘산업의 비타민’으로 불리는 핵심광물의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선제적인 대응 차원에서 이날 간담회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호주는 우리나라의 광물자원 공급 1위 국가로서 이번 간담회 개최와 양해각서 체결 등 핵심광물 관련 양국 간 협력은 지난 수십 년간 안정적으로 지속돼 온 철광석, 유연탄과 같은 기존의 전통적인 자원·에너지 협력을 미래 지향적인 핵심광물 중심으로 고도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호주 산업과학에너지자원부는 ‘한-호주 핵심광물 협력 대화’ 등의 채널을 통해 양국 간 핵심광물 분야의 전략적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최광수기자

## 지하철 미세먼지저감기술개발 프랑스연구팀 등...서울글로벌챌린지 수상팀 선정

서울시는 지하철 공기질 개선을 위한 혁신기술 개발을 위해 전 세계 10여 개국의 혁신기업, 연구기관 등이 참여해 95개의 혁신기술 및 71개의 연구주제가 각축을 벌인 결과, 프랑스의 탈라노 테크놀로지(Tallano Technologie)팀이 서울특별시시장상인 챌린지 플러스상(상금 5천만원) 수상팀으로 결정되었다고 밝혔다.

‘서울 지하철 미세먼지 저감 및 공기질 개선’을 위한 국제 경쟁형 R&D 인「서울글로벌챌린지 2021」이 12월 16일(목) 14시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화상회의 스튜디오에서 시상식이 진행됐다. ▲기술경연(5개팀), ▲학술경연(14개팀) 등 총 19개팀이 1년여의 긴 여정 끝에 수상팀으로 선정되었다.

시상식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참석자 안전을 고려해 행사장에 열광하기, 손세정제, 마스크를 비치하고 수상자와 관계자만 참석한 가운데 간소하게 진행된다.

‘지하철 공기질을 개선할 수 있는 혁신기술’을 연구주제로 시제품 개발을 지원하는 ‘기술경연’과 기초 연구를 지원하는 ‘학술경연’으로 진행되었다.

서울시가 주최하고 서울산업진흥원과 서울교통공사가 주관하는 ‘서울글로벌챌린지 2021’은 ‘세계적인 도시 서울이 당면한 과제의 해결책을 전 세계의 혁신가에게서 찾는’다는 취지로 시작된 국제경연이자, 아이디어 교류와 혁신기술 개발·실증 등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폭넓은 아이디어 교류를 가능하게 만든 ‘글로벌 오픈 플랫폼’이다.

글로벌 팬데믹 상황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온라인 사업설명회를 통해 전 세계 10여 개국의 혁신기업, 연구기관 등이 참여해 95개의 혁신기술과 71개의 연구주제가 각축을 벌였다.

▲‘기술 경연’ 부문에서는 한국을 포함해 미국, 캐나다, 프랑스 등 전 세계 95팀이 참여해 우수한 기술을 가려내기 위한 심사가 지난 10개월간 엄밀하고 공정하게 진행되었다.

본선에 오른 9개팀을 대상으로 지하철 현장 내 미사용 환승통로, 본선 환기구 및 전문연구기관 실험실 등에서 시제품을 직접 설치해 효과성을 평가하는 ‘성능평가’와 경제성, 혁신성, 실행성을 평가하는 ‘종합평가’를 거쳐 최종 수상팀을 선정했다.

‘마모입자 발생저감’ 분야의 최우수상인 서울특별시시장상을 수상한 프랑스 ‘Tallano Technologie’팀은 브레이크 제동과정에서 발생하는 마모입자를 바로 흡입하는 기구로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는 장치를 개발했다.

Tallano Technologie(탈라노 테크놀로지)의 Valentin Farigoule(발렌틴 페리굴)은 “브레이크 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발생은 세계적으로 건강 문제를 야기한다”며, “이번 서울 글로벌 챌린지의 참여를 통해 세계에 있는 모든 지하 교통수단에 해결책을 제시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제거성능 개선’ 분야에서는 무필터 방식의 대용량 공기청정기 기술을 개발한 ‘한국기계연구원’과 나노엑스박막 필터를 이용한 미세먼지 포집기술을 개발한 ‘중양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수상했다.

‘측정기술 개선’ 분야에서는 자동정확화 및 보정기술을 적용한 미세먼지 측정기를 개발한 ‘(주)센트리’와 터널용 고농도 미세먼지 실시간 측정을 위한 광산란방식의 측정기술을 개발한 ‘케이엔제이엔지니어링(주)’이 각각 서울특별시시장상인 챌린지상을 거머쥐었다.

글로벌챌린지 2021 기술경연에서는 당초 분야별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었으나, 기술별로 혁신성의 차이가 크지 않고, 완성된 시제품이 현장에 바로 적용하기에는 한계점이 있어 각 분야별 대상과 ‘역사 공기질 통합관리’ 분야는 수상자를 선정하지 않았다.

한편 ▲‘학술 경연’에는 캐나다, 대만, 홍콩 등 전 세계에서 71팀이 참여해 같은 해 3월부터 9월까지 연구와 논문 작성을 진행했다. 제출된 연구성과 논문 자료들을 대상으로 최종 서면 및 발표평가를 통해 14팀의 최종 수상자를 선정했다.

한국대기환경학회와 주관한 ‘외부대기와 지하철 공기질의 상호관계’ 부문에서는 제1저자 기준 ‘이예완’ 팀이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한국실내환경학회와 주관한 ‘지하철 실내 미세먼지 저감’ 부문에서는 미국의 ‘Jongki Lee’ 팀이 수상했다.

한국입자 에어로졸학회와 주관한 ‘지하철 내 바이러스 저감’ 부문에서는 ‘이건희’ 팀이 각각 대상을 수여하였다. 이외에도 부문별 최우수상 1팀(총 3개팀), 우수상 1팀(총 3개팀), 장려상 1-2팀(총 5개팀)이 수상의 영광을 누렸다.

황보연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이번 서울글로벌챌린지 2021은 뛰어난 기술력을 가진 국내·외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로 기대 이상의 혁신 기술들을 확인할 수 있는 열린 경연의 장이었다”며 “혁신가들의 우수한 기술과 연구를 바탕으로, 전 세계 시민들의 삶과 질을 향상시키는 과정을 통해 세계 속에 서울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 경기도, 산재예방 힘쓴 노동안전보건 모범기업 25곳 발굴...노동환경개선비 등 지원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올해 산업재해 예방 관련 규정 준수에 적극적으로 힘쓴 도내 우수기업 25개사를 ‘2021년도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으로 인증했다고 16일 밝혔다.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제’는 경기도가 노동안전보건 관리 우수 기업체를 발굴, 인증 및 지원금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도내 산업계 전반에 산재 예방 문화를 확산하고자 추진하는 제도다.

대상은 도내 소재 노동자 40인 미

만 중소기업 중 건설업, 제조업, 운수·창고업, 통신업 분야의 사업체다.

도는 지난 4~5월 인증을 희망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공모를 시행한 후,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열어 노동안전보건 평가를 통해 총 25개 우수기업을 최종 인증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들 업체는 산업재해 발생 현황, 안전관리계획 수립 정도, 위험성 평가 실시 정도, 법정 안전보건 교육 참여도, 안전보건 예산 수립·집행

정도, 휴게시설 운영 여부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에 인증을 받은 우수기업들은 노동환경개선자금을 업체 1곳당 최대 500만 원 내에서 지원받는다. 이는 노동자를 위한 휴게공간, 화장실, 식당 등 시설 개선, 안전 장비 구매, 건강 검진비 지원 등에 사용이 가능하다.

아울러 인증서 및 현판 수여, 찾아가는 산업재해 예방프로그램 및 갑정노동자 심리 치유 프로그램 지원 등의 혜택도 받게 된다.

조혜영기자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동2가 725번지 일대에 들어서는 대구 ‘호반써밋 하이브파크’가 17일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입정에 돌입할 예정이다.

호반건설이 시공하는 대구 ‘호반써밋 하이브파크’는 민간입대아파트, 오피스텔, 상업시설로 조성되는 주거복합단지다. 타입별로는 민간입대아파트 ▲84㎡A 84가구, ▲84㎡B 82가구, ▲84㎡C 84가구, ▲84㎡D 69가구, ▲84㎡E 71가구, ▲84㎡F 56가구이며 오피스텔은 ▲84㎡OA 46실 단일 평형으로 구성된다.

민간입대아파트의 청약접수는 20일부터 21일까지 이들 간 진행되고, 당첨자 발표는 22일, 계약은 26일부터 28일까지 진행 예정이다. 오피스텔은 27일 청약 접수에 이어 28일 당첨자 발표가 진행되고 계약은 30일에 이뤄진다.

■ 대구 북구 생활 인프라 풍부한 침산생활권에 위치해 높은 주거만족도 기대

‘호반써밋 하이브파크’는 대구 지역민들 사이에서도 잘 알려진 대구 북구 침산생활권 일대에 들어설 예정이다. 구 롯데마트 칠성점 부지에 위치해 우수

한 생활여건을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

단지 바로 앞 이마트 칠성점이 있고 북구청, 삼성창조캠퍼스, 롯데백화점, 메가박스 등 인근에 여러 생활편의시설이 위치해 있다. 오페라하우스가 단지 바로 맞닿아 있고 콘서트하우스, 대구북합스포츠타운 등 문화·레저시설도 인근에 위치해 있다. 신천대로, 북대구IC, 대구권 광역철도(예정)가 가까워 대구 내 주요 지역은 물론 시외까지 편리하고 빠른 이동도 가능하다.

교육환경도 우수하다. ‘호반써밋 하이브파크’는 칠성초를 도보로 통학할 수 있고 이 외에도 침산중, 대구일중, 칠성고 등이 단지 가까이 있다. 북구 명문 학원가가 단지 인근 침산네거리 상권에 위치해 있고, 대구광역시립북부도서관도 이용이 용이하다.

■ 호반건설이 시공하는 브랜드 주거단지...오피스텔은 전매제한도 없어 ‘호반써밋 하이브파크’는 호반건설이 시공하는 브랜드 주거단지다. 남향위주의 배치에 전 가구가 선호도 높은 전용 84㎡ 평형으로 공급되며, 4Bay(일부 타입 제외) 구조가 적용돼 개방감과 주거 쾌적성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여기에 발코니 확장 및 풀오피스

선을 기본제공할 계획으로 실거주자들은 수준 높은 편의를 누릴 수 있다. 입주민을 위한 커뮤니티시설로는 피트니스, 실내골프연습장, 작은도서관 등이 마련된다. 근린생활시설은 1층 대로변 스트리트형 상가로 조성된다.

민간입대아파트는 최소 10년간 저렴한 가격에 장기 거주할 수 있는 데다 취득세, 보유세 등 세금 부담이 없다. 민간입대아파트뿐 아니라 일반분양을 통해 공급되는 주거형 오피스텔과 근린생활시설 역시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것이 장점이다.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100실 미만 오피스텔의 경우 전매제한도 없다.분양 관계자는 “호반써밋 하이브파크는 침산생활권의 탁월한 입지여건과 높은 상품성을 갖춰 입주 시 높은 주거만족도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잠기일반민간입대아파트와 100실 미만의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로 구성돼 여러 규제에서도 부담이 비교적 적기 때문에 많은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호반써밋 하이브파크의 견본주택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283 일대에 위치해 있고, 홈페이지를 통한 사전 예약 후 방문이 가능하다.

박류석/대기자

## 대구 ‘호반써밋하이브파크’ 17일 견본주택 오픈!



# 호반써밋하이브파크

## 대구시의회, 내년 지방선거 깨끗하게 치러낼 것

대구광역시의회는 16일 오후 13시30분 시의회 3층 회의실에서 내년 선거를 앞두고 대구시의원과 의회사무처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의원대상 선거법 교육을 제한함에 따라 대구시의회에서 내년 지방선거에 앞서 관련 법규를 명확하게 숙지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며 성사되었다.

이날 교육은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 조경기 홍보과장이 강사로 나서 기부행위 제한 등 평시 의정활동 수행 관련 법령 및 사례, 지방선거 관련 법령 제한사항을 안내하고, 참석된 의원들이 평소 궁금해 하던 구체적 사례에 대해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장상수 의장은 “정례회의 바쁜 일정 속에서도 활발하게 의정활동에 임해주고 이번 공직선거법 교육에도 열의를 갖고 참석

해 준 동료의원들에게 감사하다”라고 밝히고, “그 동안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시민들로부터 공감 받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내년 선거에서도 공직선거법을 엄격히 지켜 깨끗한 정치문화를 선도하는 한편 공명선거문화 정착에도 우리 대구시의회가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박종재/기자

## 전라남도의회, 종합청렴도 3년 연속 2등급 최우수기관 선정 '쾌거'

전라남도의회가 전국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결과 작년에 이어 올해도 종합청렴도 2등급을 달성해 3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특히, 올해는 의회운영 영역에서 1등급을 달성하는 쾌거를 이뤄 전라남도의회 개원 이래 큰 성과로 평가 받았다.

16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82개 지방의회(광역 17, 기초의회 65)에 대한 2021년도 청렴도 측정 결과에서 전남도의회가 7.17점으로 2등급을 달성했다. 이는 2020년 대비 동일한 등급이며, 전체 광역의회 평균 점수인 6.79점보다 0.38점 높은 수치이다.

의회 예산 집행 및 편성의 적절성, 부패예방 노력 등을 측정하는 지표인 의회 운영 영역에서 최고 등급을 달성함으로써 올 한해 ‘꿈과 행보를 주는 역동적인 전라남도의회’ 슬로건에 맞게 공직자의 청렴 정신을 이어갔다라는 평이다.

이번 국민권익위 청렴도 조사는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약 3개월간 지방의회와 자치단체 직원, 지역 주민, 직무관계자, 경제사회단체와 전문가 등 4만 1,260명을 대상으로 전화 및 온라인 설문조사로 이뤄졌다.

전남도의회는 공직자 청렴도 향상을 위해 지난 5월 도의원과 사무처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하는 등 도민에게 신뢰받는 의회 구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김한중 의장은 “3년 연속 종합청렴도 2등급 달성은 매우 괄목할 만한 성과로 전남도의회 공직자 모두가 청렴한 전남을 만들기 위해 힘쓴 결과”라며, “앞으로도 전남도의회 청렴도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도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영만/기자

## 충남도의회 '지방의회 청렴도 평가' 2년 연속 최우수 쾌거

충남도의회(의장 김명선)가 올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다시 2등급을 받으며, 2년 연속 최상위권에 랭크됐다. 권익위는 지난 9~11월 전국 광역(17개)·기초(65개) 의회 등을 대상으로 한 '2021년도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그 결과 전국 광역의회 중 충남을 포함한 7개 의회가 가장 높은 2등급을 받았다.

충남도의회 종합청렴도 점수는 10점 만점에 7.25점을 기록했다. 지

남해보다 0.31점 하락했지만 전국 광역의회 평균(6.79점), 전체의회 평균(6.74점)보다 월등히 높은 점수를 받았다.

세부항목 역시 모두 높은 등급을 기록했다. 의정활동의 부패인식 및 부패경험 등을 측정한 '의정활동' 부분은 2등급으로 7.16점을 받았으며, 예산 집행·편성 적절성과 부패 예방 노력 등을 평가한 '의회운영' 영역에서는 지난해보다 0.11점 상승한 7.43점을 받아 1등급을 달성했다.

김명선 의장은 “다시 한 번 지방의회 청렴도 평가에서도 최우수등급을 받아 명실상부 전국에서 가장 청렴한 의회로 평가받아 매우 기쁘다. 신뢰받는 의회 실현을 위해 모두 함께 열심히 노력한 성과로 이런 결과를 이끌어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공무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자치분권 2.0 시대에 맞는 ‘일 잘하고 청렴한 의회’가 되도록 더 낮은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정근/기자

### 박완수 의원, “경남 경제 성장 전략 모색을 위한 토론회 개최”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이 오는 17일 오후 3시부터, 경남 창원에 위치한 한국재료 연구원 대강당에서 '2022 경남, 팬데믹을 딛고 미래로'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박완수 의원이 주최하고 경남신문, 한국재료연구원, 창원상공회의소, 창원대학교, 한국은행 경남본부, 경남테크노파크가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시대의 경남 경제산업 전반을 전망하고 각 분야별 성장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이다.

토론회를 주최한 박완수 의원은 “최근 들어 경남의 수출 등 일부 경제 지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지표상의 성장이 소상공인, 서민들의 삶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볼 수 없다”라면서 “정부의 급격한 탈원전 정책, 코로나19의 여파에 더해 이미 십수 년 전부터 진행되어온 경남 경제 기반의 침체를 극복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번 토론회에 지역의 경제를 이끄는 주체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만큼 경남 발전을 위한 좋은 해법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한국재료연구원 이정환 원장이 좌장을 맡고, 박재안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제 발표를 맡는다. 또한 경남연구원 김진근 연구원, 한국은행 경남본부 진귀한 본부장, 경남테크노파크 노충식 원장, 창원상공회의소 이년호 부회장, 창원대학교 인재개발원 박영호 원장이 토론자로 나선 예정이다. 최만식/기자

## 김태년 국회의원, 안전한 수정구 만들기에 주도적 역할

김태년 국회의원은 신흥지구대(수정구 시민로150) 증축을 위한 예산이 12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신흥지구대는 총 예산 4억 4100만원을 투입하여 지상 2층의 규모로 새롭게 증축 될 예정이며, 2022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하게 된다.

이로써 기존에 부족했던 민원인 대기실 등 주민 편의 공간 확보를 통해 지역 주민의 불편함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16년 4월 단대파출소, 18년 9월 성남위례파출소, 19년 9월 고등파출소, 총 3곳의 파출소 개소를 이끌어왔고, 이번 신흥지구대 증축 예산 확보를 통해 김태년 국회의원의 수정구 치안서비스 확충을 위한 노력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

또한 태평119안전센터 개정(19년 1월)에 이어 고등119안전센터가 12월 16일 목요일부터 운영을 시작한다.

이번에 신설되는 고등119안전센터는 총 예산 65억원을 투입하여 지하 1층~지상 2층의 규모로 운영되며, 그동안 공공주택지구 및 제2관교테크노벨리 조성에 따른 인

근 지역 주민들의 급증한 소방안전 수요를 해결함과 동시에 향후 각종 화재나 사고로부터 더욱 안전하게 시민을 보호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태년 의원은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는 안전한 치안 대책

과 소방시설 확충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이번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안전한 수정구를 만들기 위해 더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원, '경기도지사직 인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지사직 인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6일 경기도의회 제 356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2022년 1월 13일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수위원회에 대한 설치 근거가 마련되어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지사 당선인의 지위와 권한, 인수위원회 설치 및 존속기한, 인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담고 있

다. 염종현의원은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었지만 경기도는 지난 민선 7기를 준비하면서 '경기도지사직 인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인수위원회를 설치·운영한 바 있다”면서 “내년 민선 8기 도지사 당선인을 돕는 인수위원회를 통해 원활하고 안정적인 도정운영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는 도정 현안 및 조직·기능·예산 현황 파악, 새로운 도정의 정책 기조를 설정하는 준비, 도지사 취임행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조혜영/기자

http://www.dailyculture.kr/ 문화매일 facebook.com/wawa105sujin

우편번호 : 08333 서울 구로구 개봉로 12길 9-19 105동 201호  
우편번호: 14222 광명시 시청로7 흥신에이스텔 701호

발행, 편집인: 최수진 / 회장 문기주/부회장 박우석 / 사장 임석경 / 편집국장: 최재은  
청소년 보호 책임자 발행인: 최수진

대표전화: 1899-9659 e-mail: ekwk44@naver.com sujn004344@daum.net

2009년 4월 12일 창간	정 치 부: 내선 (112)	문 화 부: 내선 (116)
2009년 3월 12일 등록번호: 서울.가50146	사 회 부: 내선 (113)	부 동 산 부: 내선 (117)
본지는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한다	경 계 부: 내선 (114)	오피니언부: 내선 (118)
	스 포 츠 부: 내선 (115)	지 방 부: 내선 (119)

대표전화: 1899-9659  
편 집 국: (02)2612-2959  
팩 스: (02)2060-4147 구독신청, 배달안내: 1899-9659 구독료: 월 15,000 1부 800원

꿈이 있는  
친환경섬 건설

우리 울릉도

코로나 극복,  
울릉도·독도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거리유지

# 가을여행

천혜의 자연과 민족의 혼이 살아 숨쉬는 곳!  
울릉도·독도로 오세요.

울릉군  
ULLEUNG-GUN

## 서초구 서리풀악기거리, '클래식 음악 디자인 거리'로 변모!

대한민국 최고의 음악문화도시를 지향하는 서초구의 서리풀 악기거리(서초음악문화지구)가 한층 더 짙어진 클래식 음악 거리로 변모하고 있다.

서울 서초구는 예술의전당 일대 '서리풀 악기거리'의 클래식 음악 명소화를 위해, 음악 테마를 활용한 다양한 경관 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대상지는 서초3동 1415번지 일대로 약 41만㎡ 구간이다.

서리풀 악기거리는 160여개소의 공연장, 악기공방, 음악연습실 등이 밀집되어있는 음악 명소로, 클래식 음악문화의 특수성을 인정받아 2018년 전국 최초로 음악문화지구로 지정되었다.

먼저 구는 음악문화지구의 특색을 잘 보여주기 위해 '음악 그림자 조형(로고젝트)'을 설치 중에 있다. '음악 그림자 조형'은 악기거리의 BI·읍표·악기 실루엣 등이 담긴 4개의 이미지에 희망을 주는 응원 메시지를 담아 야간에 15초마다 순차적으로 송출한다. 특히 초등학교 주변에 설치된 '음악 그림자 조형'은 썬타드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구는 지난 15일 예술의전당 앞 교차로 1개소를 시작으로, 신중어린공원, 신중초등학교 앞 등 연말까지 14개소에 설치할 계획이다.

또, 지난 7일, 거리 일대에는 전신주·통신주·가로등주 등 412개소에 음악테마 및 악기거리 로고가 새겨진 광고물 부착 방지시트를 부착 완료했다. 구관계자는 "시트 부착으로 불법광고물을 원천봉쇄해 거리미관을 개선할 뿐 아니라 정전기 방지 기능과 함께, 문화지구 홍보하는 1석 3조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는 올해 낡고 오래된 상점 50개소의 간판을 악기거리 특성에 맞는 디자인의 에너지절약형 LED 간판으로 교체했으며, 벽화, 조형물 등을 조성하는 스트리트 아트 디자인을 추진하는 등 서리풀 악기거리를 찾는 방문객들이 마치 오스트리아 빈의 거리를 걷는 듯한 느낌이 들도록 했다.

이외에도 구는 2019년에는 악기거리를 상징하는 디자인을 새긴 맨홀, 유명 음악가를 소개하는 디자인 펜스, 클래식 음악을 연상할 수 있는 신중초등학교 디자인 교문, 어지럽게 늘어선 선을 깔끔하게 정리한 악보모양 통신선 등을 설치했다.

향후 구는 경관개선이라는 하드웨어 측면 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측면도 강화할 예정이다. 악기거리 내 어린이음악공원을 조성해 이 곳에서 청년예술인들이 진행하는 '꽃자리콘서트' 등 다양한 음악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인근 소공연장에서 진행되는 '클래식 다방(공연장 활성화 사업)'도 병행해 악기거리를 '음악이 흐르는 클래식 특화거리'로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서리풀악기거리는 올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한 '제1회 지역문화대상'에서 주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문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선보이며 관련 제도를 정비해온 점을 인정받아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전정옥 서초구청장 권한대행은 "거리 곳곳마다 음악과 예술이 흐르는 '서리풀 악기거리'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시민과 방문객들의 발길을 끌 수 있는 전국적인 명소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동희/기자

##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기관로고 선정 “시민 보호·서울의 안전 파수꾼 의지 담아”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15일 공식 상징물(로고)을 공개했다. 위원회는 '시민을 보호하고 서울의 안전을 지키는 파수꾼'이라는 의미를 담은 상징물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친근하게 정책홍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위원회 로고는 '시민을 보호하고 서울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위원회의 역할을 방패모양 심벌로 표현했다. 세 가지 색상은 행복한 시민을 상징하는 주황색, 안전을 상징하는 서울시의 녹색, 신뢰를 상징하는 서울경찰의 파란색을 사용하여

시민의 안전을 위해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이 두 손 모아 협력하는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의 이미지를 전달한다.

위원회는 로고 선정을 위해 유관기관과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득표안을 기관로고로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로고는 위원회의 공식 상징물로서 정책홍보를 위한 홍보물, 공문서, 광고물 및 온라인 홍보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의견수렴은 한 달 동안 5개소, 3,000여명을 대상으로 투표를 통해 진행됐다. 참여기관은 7인의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를 비롯하여 사무국, 시민정책자문단, 서울시, 서울경찰청 등이다.

김학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장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선정한 기관로고를 자치경찰 홍보물, 공문서, 광고물 등 서울형 치안정책 홍보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라며, '자치경찰제'의 핵심가치와 의미에 대한 서울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인지도를 제고한다면 시민을 편안하게 서울을 안전하게 지키는 정책목표 또한 달성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최광수/기자

## 서울 중구, 민원인 감동시킨 대민행정 우수사례 선정

중구가 '2021 민원행정 우수사례 수기 공모'를 통해 올 한 해 주민 눈높이에서 민원인을 감동시킨 사례 6건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지난 10월부터 구청 전 부서와 동주민센터를 대상으로 실시한 것으로 최우수상 1건, 우수상 2건, 장려상 3건이 선정됐다.

최우수상은 70여 년 간 집단공유지로 묶여 집단민원의 대상이었던 쌍림동 182 일대의 소유권 정리를 위해 적극행정을 펼친 중구청 토지관리과의 '70년의 염원이 이루어지기를..'이다.

쌍림동 182 일대는 일본인이 남기고 간 귀속토지로, 해방 후 연고자 등에게 등기부전지 형식으로 불합된 후 1954년 87필지에 분할되었다. 구분소유가 아닌 공유형태로 등기되어 현재까지 80여명이 공동소유자로 등록되어 있었다.

이로 인해 토지소유권을 이전할 때마다 87필지에 대한 부동산거래 신고와 등기부정리가 필요했다. 세월이 갈수록 고령의 소유자들이 사망하면서 공유자 동의가 필요한 개발은 사실상 불가능하여 지역은 점점 더 낙후되고 있어 해결방안을 찾는 것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이에 토지관리과에서는 5만 여 건의 폐쇄등기부와 전산화된 등기부

변동사항, 각종 부동산 관련 공부와 접유현황을 조사하고 소송사례를 검토 끝에 제소전화해와 공동소송의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나갔다.

구는 주민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해외거주자까지 설득해 지난 6월 구분소유가 확인되는 72필지의 소유자 100%의 제소전화해(참여자 간 소송 전 화해) 이끌어 냈다. 또한 나머지 공유자 12명의 지분을 이전하기 위해 참여자 72명이 공동으로 제기한 소송이 변론기일이 지정되어 판결을 앞두고 있다.

소송을 수행한 변호사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화해성립하고 공동으로 소송을 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중구청의 지원이 없었으면 시작조차 못했을 것이고 청장님의 의지를 담은 보도자료와 탄원서 제출이 있어 화해성립과 빠른 소송 진행이 가능했다"고 전했다.

한편, 우수상으로는 다산동 주민의 목소리를 담아 만든 생활밀착형 서비스 '찾아가는 썩쓰리 홈케어'가 선정됐다. 노후된 주택가로 빼곡한 다산동 주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서비스는 해충방역, 간단한 집수리, 안부확인 등이었다. 구는 '썩쓰리 홈케어 특공대'를 통해 매일 주거취약계층 30여 가구를 방문해 안부를 확인하고 냉·난방기기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화재경보기와 소화기는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지 등을 점검한다. 집수리가 필요한 곳이 있는지 있는지도 꼼꼼히 확인한다.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한 재료와 장비를 가지고 다시 방문해 살충·방역, 집수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썩쓰리 홈케어 서비스를 경험한 다산동에 거주하는 한 노부부는 "이렇게 찾아와 안부도 살펴주고 살뜰히 챙겨주시 마음이 따뜻해진다"며 감동의 마음을 전했다.

이밖에 공동 우수상으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을 선물하다(광희동주민센터)가 선정됐고, ▲급급차는 사랑을 신고(황학동) ▲톡톡! 어르신, 문 좀 열어주세요!!(필동주민센터) ▲넋이 있던 2백만원, 찾아드릴게요(신당5동주민센터)가 장려상을 수상했다.

한편, 중구는 '2021년 서울시 민원행정 서비스평가' 범청 등 읍면소 민원 처리 분야에서 25개 자치구 중 3위를 차지했다.

서양호 중구청장은 "앞으로도 민원제도 개선과 적극 행정을 통해 주민이 체감하고 감동할 수 있는 생활구정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강성원/기자

## 서울특별시 영등포아트홀, '안은미컴퍼니의 4괘' 온·오프라인 공연 개최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이 공연장 상주단체 안은미컴퍼니의 '4괘' 공연을 18일부터 19일, 24일부터 25일까지 총 4일간 영등포아트홀에서 선보이고 공연 이후 유튜브에서 영상을 감상할 수 있는 온라인 레퍼토리 주간을 개최한다.

한국을 대표하는 현대 무용 단체로, 2021년에도 벨기에, 프랑스, 독일, 스위스 등 3개월에 걸친 유럽투어를 마치고 돌아온 안은미컴퍼니가 150여 편의 레퍼토리 중 베스트 4개 작품을 선보인다. '드래곤즈', '렛 미 체인지 유어 네임', '거시기 모놀로그', '조상님께 바치는 댄스' 총 4개의 작품이다. 또한 '드래곤즈', '렛 미 체인지 유어 네임', '거시기 모놀로그' 3개의 작품은 영등포문화재단 유튜브에서 공연 이후 10일간 만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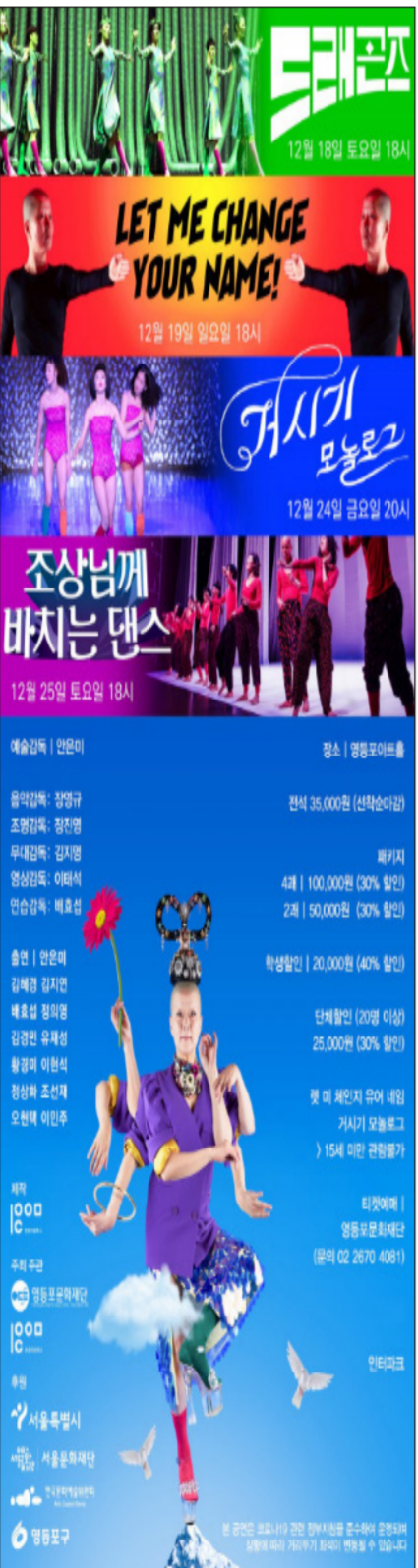
2019년 공연장상주단체로 연을 맺은 영등포문화재단과 안은미컴퍼니는 그 해 '거시기 모놀로그', 2020 '드래곤즈'를 연이어 영등포아트홀에서 초연으로 선보였다. 세계를 활동하는 현대무용가의 예술 창작 지원을 수행함과 동시에 전문 공연장으로서 영등포아트홀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가고 있다.

안은미컴퍼니만이 선보일 수 있는 독특함을 그대로 만날 수 있는 이번 공연은 각 공연일 다음 날 바로 온라인에서도 접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 선보이는 작품은 총 3개로, 영등포아트홀에서 초연과 재연을 진행하는 2020년 디지털 화제작 '드래곤즈'와 15년 체제 사랑받고 있는 대표작 '렛 미 체인지 유어 네임 Let Me Change Your Name', 그리고 안은미컴퍼니와 영등포문화재단의 첫 작품인 '거시기 모놀로그'이다. 3개의 작품 모두 약 3주간 약 120시간가량 촬영을 진행하고 무대의 현장감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편집으로 공연의 감동을 최대화해 전달한다.

영등포문화재단 강원재 대표이사는 "영등포아트홀에서 그간의 안은미컴퍼니의 레퍼토리를 집대성한 축제 4괘를 펼쳐낸다"며 "올 연말 공연을 통해 코로나로 얼어붙은

상황에서도 멈출 수 없는 문화예술의 몸짓과 장면을 온·오프라인으로 많은 관객들에게 전해 초대와 희망의 2022년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현일/기자



## 성동구, 2021년 지역복지사업 평가 7개 부문 휩쓸어

스마트 포용도시 서울 성동구가 '2021년 지역복지사업 평가'에서 7관왕을 달성하며 5년 연속 수상이라는 영광을 안았다.

지난 1년간 추진된 지역복지사업의 모범 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하고자 마련된 지역복지사업평가는 전국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총 17개의 복지 분야를 평가하여 세부 평가지표별 점수 및 정량 평가와 함께 현지실사를 병행해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쳐 수상단체를 선정한다.

구가 수상한 분야는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사회보장급여 점검 관리, 사회서비스원 운영지원, 사회보장급여 사후 관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사회적경제 활성화, 보육정책분야의 총 7개 부문으로 대상 2, 최우수상 2, 우수상 3개를 동시에 수상했다.

성동구의 수상은 지난 6년간 민선 6기부터 7기에 이르기까지 '친절'을 기본으로 진정성 있는 소통을 통해 차별화된 성동구만의 생활밀착 행정이 만들어낸 결과라는 평가다.

대상을 받은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분야에서는 '성동미래일자리 주식회사 운영', '임산부 가사 돌봄 서비스', '성동 푸르미 재활용 정거장 운영' 등 106개 사업에서 8,439명의 고용 창출을 인정받았다. '사회보장급여 점검 관리' 분야에서도 복지 부정수급 전담반 운영과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규칙('21.6) 제정 등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을 통해 복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려는 노력 또한 탁월했다는 평가다.

사회서비스원 민간지원사업 참여 정도, 협력체계 구축, 특화 사업 추

진 등을 토대로 심사하는 '사회서비스원 운영지원' 분야에서도 서울시 최초로 성동구에 설치된 사회서비스원 성동종합자센터의 대대적 인력 지원 사업 등 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높은 점수를 받았고, 처리기한 준수 등 서비스 대상 관리를 충실히 수행한 '사회보장급여 사후관리' 분야와 함께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2017년부터 5년 연속 수상이라는 기록을 달성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부문에서는 복지상담전문관 배치 및 One-Stop 종합상담 강화 등 복지전달체계 개선의 꾸준한 노력과 '든든한 끼 누리소', 심리방역을 위한 희망백신 사업 등 위드 코로나에 따른 보건복지 수요에 대한 위기상황 대응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사회적경제 활성화' 분야와 함께 우수상을 수상했다.

지난해에 이어 연속으로 수상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부문은 청년취창업 지원을 위한 언더스탠드 예비비와 다문화 가정 등 아동 맞춤

형 사회서비스 온라인 학습 '글로벌' 운영 등 사회적 경제 조직 참여를 통한 지역 내 문제 해결이 우수하다는 평을 받았다.

아울러 '보육정책' 분야에서는 교재·교구 및 방역소독기를 어린이집에 지원하고, 찾아가는 장난감 대여, 보육교직원과 아동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마스크 제공 등 꼼꼼한 코로나19 방역대응으로 우수상을 수상했다. 구는 장기화된 어린이집 휴원으로 지친 아동, 부모, 어린이집을 위해 유기농 급간식꾸러미, 특별활동비, 사회보험료, 투명마스크, 부모교육 등을 지원하여 차별화된 다양한 보육정책을 펼치기도 하였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지역복지사업 평가에서 7관왕을 하며 5년 연속 수상이라는 결실로 성동구 지역복지의 우수성을 다시 한 번 알리게 됐다"며, "이에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도 주민의 복지 수요에 맞춤형 다양한 사업추진으로 포용복지 성동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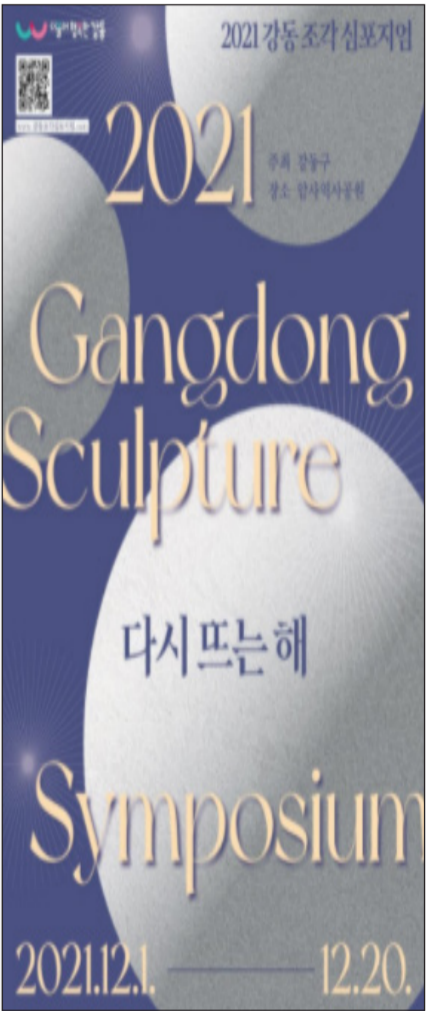
강성원/기자



round-up  
종합

문화매일 3  
2021년 12월 17일 금요일

## 다시 뜨는 해, '2021 강동 조각 심포지엄' 행사 개최



강동구는 오는 20일까지 오전 10시~오후 6시, 강동구 암사역사공원 광장 앞에서 '2021 강동 조각 심포지엄'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에서 가장 먼저 해가 뜨는 강동구의 이미지와 코로나 이후 되찾을 일상에 대한 기대와 희망 찬 미래를 기원하는 의미의 '다시 뜨는 해'를 주제로 개최된다.

'강동 조각 심포지엄'은 완성된 조각품을 전시하였던 기존의 전시 행사와 달리 작가가 현장에서 직접 작품을 제작하는 모습을 관객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작가들의 창작 욕구를 북돋우고 관람객에게 깊이 있는 예술적 볼거리를 제공하는 새로운 형태의 조각 전시행사이다.

이번 '2021 강동 조각 심포지엄'에는 ▲태권V 작가'로 유명한 김택이 작가 ▲'도시와 인간에 대한 팝아티스트적 스토리텔러' 대병규 작가 ▲'순환과 새로운 시작'에 대한 참신한 예술적 감성을 보여주는 남지형 작가가 참여한다.

주민참여 프로그램으로는 매주 화, 목, 토요일 오후 2시~4시에 강동 주민이 진행하는 주민 도슨트 프로그램과 화·일요일 오전 10시~오후 6시까지의 조각 네온사인 만들기 체험, 지점토 조각 작품 만들기 체험 행사가 있다.

또한 오는 17일 오후 2시~4시, 암사동 선사유적박물관에서 조형 예술 분야 전문가와 주민이 직접 만날 수 있는 '문화포럼'이 진행될 예정이다. 본 프로그램은 말게만 느껴졌던 조각 장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현대미술의 다양성과 조형 예술 트렌드', '일상에서 조각을 즐기는 방법' 두 가지 주제 강연으로 주민들을 찾아간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지친 심신에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이번 '조각 심포지엄'과 같은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개최하여 주민들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여가문화의 품격을 높이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황규식/기자

# C

## capital area

### 수도권 I

4 문화매일  
2021년 12월 17일 금요일

삼성전자,  
안성시동부무한돌봄네트워크팀에  
겨울이불70채 전달

지난 14일, 삼성전자는 안성시동부무한돌봄네트워크팀에 겨울이불을 전달했다.

삼성전자는 지구를 건강하게 지키기 위해 자원순환을 실천하겠다는 서약을 하였고, 사업장에서 깨끗하게 분리배출 한 페트병으로 만든 재활용 섬유로 친환경 이불을 알레르망(Allerman)과 함께 만들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지구를 위해, 이웃을 위해, 더 나은 내일을 위해”라는 슬로건으로 지역사회에 이웃들과 따뜻한 이불, 따뜻한 마음으로 따뜻한 겨울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성시동부무한돌봄네트워크팀이해진 센터장은 “모두가 힘든 코로나 상황 가운데 어려운 우리의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따뜻한 겨울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2022년에는 더 많은 분들에게 나눔의 손길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지역사회 복지기관 10개소에 알레르망(Allerman) 겨울이불(23만원 상당)을 배분하여 각 기관의 소외된 이웃에게 전달되었다. 안성시동부무한돌봄네트워크팀은 사회복지법인 평안필알복지재단(대표 한덕진)이 안성시로부터 수탁 받은 동부권역 8개지역(안성1동·안성2동·서운면·보개면·금광면·삼죽면·죽산면·일죽면)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가정을 발굴하여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조혜영기자

## 안성시, 시민과 함께 지속가능한 미래 위한 첫걸음

### 안성시-안성지속협, '2030 안성시 지속가능발전목표 선포식' 개최

안성시는 지난 14일 안성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함께 안성시립 중앙도서관에서 「2030 안성시 지속가능발전목표 선포식」을 개최했다.

지속가능발전목표란 기후변화, 빈곤, 기아 등 다양한 분야의 범지구적 문제를 세계가 함께 의논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2015년 UN이 채택한 의제이다.

이날 선포식은 ESG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안성시 '좋은 일자리 기업' 시상식, '2030 안성시 지속가능발전목표 및 이행계획' 보고, 비전 선포식과 안성시를 구성하는 다양한 시민층이 함께 참여한 협동화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안성시 지속협은 '지속가능한 시민행복도시 안성'이라는 비전을 수립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시민이 만드는 열린도시(사회) ▲오감이 즐거운 풍요로운 도시(경제)



▲자연이 어우러진 생명도시(환경) 3대 전략과 그에 따른 10대 목표, 80개 이행지표를 제시했다.

특히 이 지표들은 2019년부터 3년간 행정과 시민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며 분과회의, TF회의, 시범 모니터링, 시민 설문조사, 워크숍,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전문가 자문회의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수립됐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

이날 선포식에는 행정대표로 김보라 안성시장, 의회대표로 신원주 안성시의회의장이, 학계대표로 이원희 한경대학교 총장, 기업대

표로 한영세 안성상공회의소 회장이, 시민대표로 이상영 안성시 지속협 상임회장이 참여해 미래세대 대표와 함께 지속가능발전목표를 함께 이행하기 위한 실천서약서를 작성했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수립과 실현은 우리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며 “시민과 함께 소통하며 고민한 안성시민의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실천하기 위해 시민과 기업 모두와 함께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조혜영기자

## 평택시, GTX 평택연장 “청신호”... 광역철도 지정기준 충족

평택시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광역철도 지정기준 개선(안)에 따라 GTX 평택연장을 위한 광역철도 지정기준 대상에 포함되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지난 14일 발표한 국토교통부 광역철도 지정기준 개선(안)에 따르면 권역별 중심지 '40km 이내'였던 기준을 '50km 이내' 또는 '중심지로부터 통행시간 60분 이내'로 개선됐다.

평택지역은 거리기준 50km 이내는 초과하나, 강남역·삼성역 등 중심지로부터 평택지역까지 통행시간 60분 이내 조건을 충족하여 GTX 지정기준에 부합하게 됐다.

이에 따라, 당초 평택지역은 권역별 중심지 '40km 이내'였던 광역철도 지정 거리기준을 초과해 GTX 연장이 어렵다는 일각에서의 우려가 있었으나, 광역철도 지정기

준 대상에 완전히 충족됨에 따라 GTX 연장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심지 기준 거리기준이 50km로 확대됨에 따라 고덕국제신도시 일부, 서정리역 일원 등 북부 권역 주요 거점까지 확대되어 장래 광역철도망 확장의 기초가 마련됐다.

정장선 시장은 “국토교통부의 광역철도 지정기준 개선안 발표로 GTX노선이 평택까지 연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면서 “향후 GTX-C노선 평택연장을 위해 국토교통부 및 민간사업시행자와 적극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관계 지자체 의견을 수렴 및 검토한 후 내년 상반기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양시현기자

## 광명시, '안양천 수질개선' 경기도 4개시와 힘 모아

광명시,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 과천시 2단계 수질오염총량제 추진

광명시가 안양천 수질개선을 위해 16일 안양시청에서 안양·군포·의왕·과천시와 '안양천 수질관리 정책 상호협력'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승원 광명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한대희 군포시장, 김상돈 의왕시장, 김종천 과천시시장,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협약식에 참석한 5개 시는 같은 수질오염총량관리지역에 속한 자치단체로 안양시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해 하수를 처리하고 있다.

수질오염총량제는 하천의 목표 수질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하천으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총량을 관리하는 제도로, 5개 시는 2013년부터 2020년까지 1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에 따라 BOD 6.2mg/L, T-P 0.558mg/L를 목표로 수질관리에 노력해왔다.

2021년부터 2030년까지 2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목표수질 BOD 6.2mg/L, T-P 0.32mg/L)이 적용됨에 따라 광명시를 비롯한 5개 시는 이날 협약을 맺고 ▲안양천 수질관리 정책 공동수립 ▲성공적인 수질오염총량제 추진 ▲안양천 상류지역 공동 수질관리 등을 통해 안양천 수질개선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협약식에 참석한 박승원 광명시장은 “안양천 수질개선 등에 대한 노력은 어느 한 자치단체의 노력만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안양천 유역 전체의 자치단체가 함께 노력해야 할 사항으로 이번 2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 협약을 통하여 안양천이 다양한 생물과 시민들이 공존하는 대표적인 생태하천이자 휴식공간으로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용민기자



## 염태영 수원시장, “노사민정협의회가 노동자의 아픔을 보듬고, 사회적 갈등 봉합하는 소임을 해 달라”

염태영 수원시장은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가 노동자의 아픔을 보듬고, 사회적 갈등을 봉합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로서 소임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염태영 시장은 15일 경기종합노동복지회관에서 열린 '2021년 노사민정 사업성과보고회'에서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는 2010년 활동을 시작한 후 우리 지역 경제·노동현안에 머리를 맞대고 '함께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데 앞장서 왔다”며 “늘 그래오셨듯이 노사민정협의회가 우리 시 노동정책에 따스함을 담은 역할에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성과보고회는 노사민정 성과보고 영상 상영, 유공자 표창, 염태영 시장 인사말 등으로 진행됐다.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올해 필수노동자의 안전과 사회적 보호를 위한 연구조사를 했고, 내년도 노동기본계획에 반영하기로 했다. 필수노동자는 국민의 생명·안전과



사회기반 유지를 위해 핵심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로 간호사, 요양보호사, 육아도우미, 장애인·노인돌봄종사자, 버스 기사, 배달기사,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환경미화종사자 등이다.

노사민정협의회는 취약계층의 노동환경 개선과 권익 보호를 위해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 ▲경비·청소노동자 근무공간 보수 ▲외국인

노동자 맞춤형 생활법률 교육 ▲청년 고용 우수기업 인증 ▲원도급·협력사 상생협약 등 사업도 전개했다.

이날 노사민정 협력·노사상생 발전 유공자 15명이 수원시장, 경기도의회, 수원시의회의장 표창을 받았다. 상생 노사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한 송은자 수원시의회의원은 감사패를 받았다.

조혜영기자

# 2021 겨울방학

## 행복이 넘치는 특별기획전

**전시 프로그램** 북어생태전시/물속친구들의 생존전략/세계의 복(福)

**체험 프로그램** 방울방울놀이터/모래놀이터/풍선컬링/복불복게임

**2021.12.25 토 ~ 2022.2.2 수**

오전 10시 ~ 오후 5시30분 매주 월요일, 설 당일 휴관  
1월31일 정상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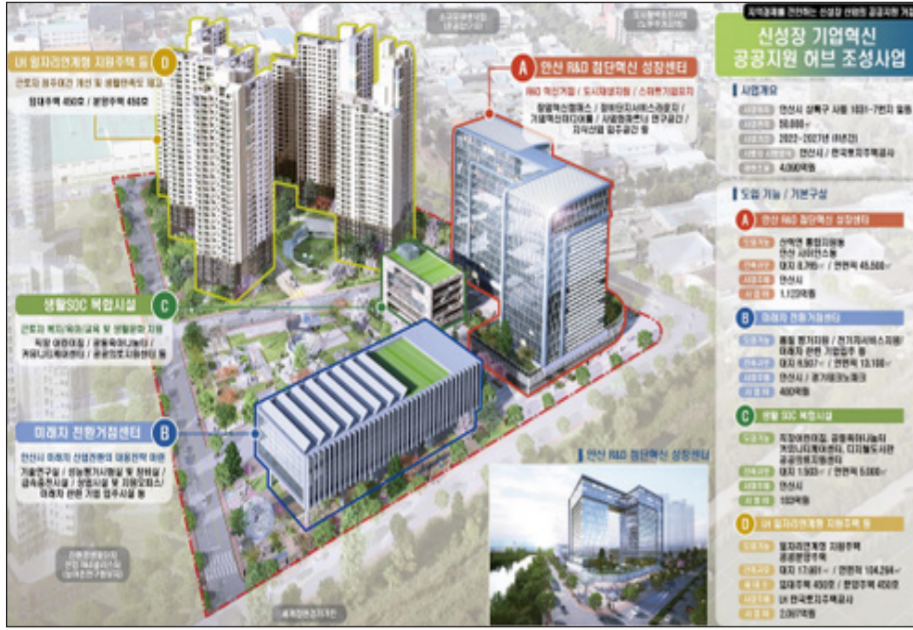
### 남원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전시관

※ 행사 참여시 코로나19 방역 수칙 준수

주최·주관 남원시 | 후원 산림청 | 문의 : 063-620-5752~4

# 경기도, 안산사동 등 도내 5곳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확정...총 57곳 사업 추진, 전국 최다

정부, 16일 제29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2021년 중앙공모 3차 물량 전국 32곳 중 경기도 5곳 추가 선정, 국비 630억 원 확보



안산시 사동, 안양시 안양3동, 여주시 중앙동, 성남시 수진1동, 포천시 관인면 등 경기도내 5곳이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로 확정됐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날 제29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위원장 김부겸 국무총리)를 열고 경기도 5곳을 포함한 중앙 3차 공모사

업 32곳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가 대상지로 최종 확정했다. 도내 선정지 5곳은 유형별로 ▲혁신지구 2곳 안산시 사동(6만㎡), 안양시 안양3동(2만1,417㎡) ▲총괄사업관리자 1곳 여주시 중앙동(20만4,944㎡) ▲인정사업 2곳 성남시 수진1동(5,000㎡), 포천시 관인면

(3,596㎡) 등이다. 이번 선정된 5곳의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안산시 사동은 도시재생혁신지구 사업으로 사동 준공업단지와 연계해 자동차 산업 구조고도화를 이루는 게 핵심이다. 연구·개발(R&D) 첨단 혁신 성장센터, 미래차 전환 거점센터, 생활 사회기반(SOC) 복합시설과 연계한 일자리 지원주택(900호) 공급 등을 통해 지역 일대를 혁신거점으로 조성한다. 노후·불량 건축물이 많은 안양시 안양3동은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으로 410호(공공분양 316호, 공공임대 94호) 규모의 공동주택과 교육 기능 강화를 위해 인근 학교와 연계한 도서관, 체육시설 등 공공지원시설을 조성할 예정이다. 여주시 중앙동은 상생플랫폼 및 커뮤니티센터와 행복주택(120호)을 조성하고, 여행객 거점 공간인 '여(주)행(복) 스테이션', 쉼 있는 동행길 등 가로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성남시 수진1동은 수진1 재개발 정비구역 내 복합용지를 활용한 주

거재생특화형 뉴딜사업으로 공동이용시설·공영주차장·공공임대상가·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120호) 등이 포함된 복합시설을, 포천시 관인면은 구(舊) 면민회관을 리모델링한 다목적기능 생활사회기반시설(SOC) 조성하고 주민공동체 육성 등을 통한 지역 활력 되찾기 사업 방안을 각각 제시했다. 선정된 5곳은 향후 3~7년간 총 630억원의 국비를 연차별로 지원받는다. 이번 중앙 3차 공모 결과를 포함해 경기도는 올해 총 9곳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지로 선정됐다. 도는 앞서 지난 4월 위험건축물 특별재생 공모에서 1곳, 9월 광역공모 3곳 등 4곳이 신규사업대상지로 선정된 바 있다. 이들 9곳에는 최대 7년간 총 896억 원의 국비가 지원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도는 2017년 8곳, 2018년 9곳, 2019년 17곳, 2020년 14곳, 2021년 9곳 등 전국 최다인 총 57곳에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도내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 57곳 중에서 2017년 선정된 고양 원당은 올해 처음으로 준공했다.

내년에는 안양(명학), 시흥(대야), 안산(대부) 등 19곳이, 2023년에는 16곳, 2024년 이후에는 21곳이 연차별로 준공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선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장별 모니터링과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주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신규사업지 발굴과 더불어 정부 주택공급 확대 정책에 발맞춰 주택공급을 포함한 뉴딜사업지 발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시재생뉴딜 중앙공모사업은 혁신지구, 총괄사업관리자, 인정사업 등 3가지 유형이다. 도시재생 혁신지구는 산업·상업·주거 등을, 주거재생혁신지구는 주거·복지·생활편의 등이 집적된 지역거점 지구 단위개발 사업이다. 총괄사업관리자는 공기업에 대해 또는 위탁해 시행하는 거점개발 사업이며, 인정사업은 쇠퇴지역 또는 기초생활인프라 최저기준 미달지역에서 시행하는 점 단위의 사업이다.



문화매일 5  
2021년 12월 17일 금요일

## 강화군, 지방소멸 위기 극복 '인구활력정책 수립'

강화군이 저출산·고령화와 인구 유출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인구활력정책 수립에 나섰다. 지난 11월 말 기준 강화군 인구는 69,502명으로 이중 65세 이상은 23,698명으로 전체 인구의 33%를 차지하는 초고령 사회이며, 사망 82명에 비해 출생은 27명에 불과해 지역의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하다. 이에 군은 '인구활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에 나서 정부정책 분석 및 정책방향 도출, 저출산·고령화 대응 정책방향 설정, 단기·중장기 인구활력사업 발굴 등을 발굴해 총력을 방침이다.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수립되는 기본계획에는 결혼부터 첫째, 둘째로 이어지는 연속적인 지원 정책, 일자리 창출, 청년인구 유입, 생활인구 확대 방안, 유동인구 증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인접 자치단체와 공생할 수 있는 연계 사업 등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분야별 인구증가 대책이 수립된다. 또한, 전문가가 참여하는 과업수행 보고회를 수시로 개최해 용역 전반에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만들 계획이다. 특히, 군은 지난 10월 중앙정부가 강화군을 포함한 전국 89개 기초자치단체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한 이후 후속 조치로 내놓은 인구감소 대응사업에 연구 결과를 긴밀하게 연계해 지역소멸대응기금과 국고보조금을 최대한 확보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인구감소 위기를 기회로 활용해 실질적인 인구증가 대책을 마련해 지역에 일자리가 넘쳐나고, 인구 활력이 넘쳐나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혜영/기자

김종남/기자

## 인천시 제물포, 새로운 100년의 미래가 열립니다.

인천광역시 제물포역 일원을 포함해 인천시 4\*개 사업이 '2021년 3차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은 동네를 완전히 철거하는 재건축·재개발의 도시 정비사업과 달리 기존 모습을 유지하며 노후 주거지와 쇠퇴한 원도심을 지역 주도로 활성화해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이다. 이번 하반기 국토교통부 공모를 신청하고 현장실사, 발표평가, 실무심사,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되는 것으로 이번 선정으로 인천시는 국비 181.4억을 확보하게 됐다. '중심지가치형 도시재생사업'으로 선정된 제물포역 일원은 국비 180억 원을 포함, 총사업비 704억 원을 5년(2022~2026)간 투입해 제물포역 북광장에 지하3층 지상10층 규모의 영스퀘어를 건설해 지하주차장 223면을 설치하고 1층 광장기능을 회복하며, 소프트웨어진흥단지, 공유주방, 옥상 정원 등을 설치하는 것을 핵심사업으로 한다. 또한, 경로당 및 주민공원 리모델링, 골목경관개선, 아동놀이터 등 주민이용시설 확보, 스마트기술을 접목한 인프라 도입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시설을

개선, 공급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대상지 내 다양한 공간이 조성, 연결되어 지나치기만 했던 인근 학생들이 머물러 활동하고, 인천대 이전과 함께 떠났던 청년층의 방문이 늘어나 지역에 활기를 되찾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SW를 활용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기업을 지원해 공동체를 회복하고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며, 스마트기술 도입으로 주민생활과 마을활동이 더욱 편리하고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인천시는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따라 2019년부터 이번 공모를 준비해왔으나 2020년 광장 내 행복주택 건설 반대 민원, 2021년 사업구역 동측 철반 가랑의 면적이 3080 도산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로 지정되면서 사업이 좌초될 위기가 있었다. 그러나 인천시, 인천도시공사, 인천테크노파크, 스마트시티(주), 교육청 등 관련기관의 협업과, 주민들의 강한 의지로 사업을 지속 추진한 결과 사업이 선정되는 쾌거를 얻었다. '도시재생예비사업'으로는 동구 송림동 일원의 매화마을과 송림마을, 연수구 옥련동 송도역전시장 일원 3개소가 선정됐다. 총사업비는 3억(국비 1.4억, 지방비 1.6억)이며 2022년 사업

을 위해 투입된다. 동구 송림동 매화 마을은 마을의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역특화재생사업으로, 송림마을은 저층주거지 특색 재생 기반을 마련한다. 연수구 송도역전시장 일원은 송도역전시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시장·마을·주민과의 나눔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도시재생예비사업을 완료한 사업구역은 추후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최도시 시 도시재생녹지국장은 "준비와 평가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았지만 제물포의 강점으로 평가받은 공간과 인구의 다양성을 살려 지역에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현재 인천시 전역에는 24개의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이 추진 중이며 사업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컨설팅을 통해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해 계획했던 성과를 일정 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종남/기자



## 최대호 안양시장, '수질관리 한마음 한뜻 매우 잘된 일'



안양시 등 안양천 유역 5개 지자체가 하천 수질관리에 힘을 모은다. 안양시는 16일 시청사 상황실에서 최대호 안양시장·박승원 광명시장·한대희 군포시장·김상돈 의왕시장·공정식 과천시부시장·안양천 수질관리정책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은 2단계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에 맞춰 마련됐다. 시는 1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2013~20년) 당시 전국 최초로 자치단체 간 MOU를 체결(2014. 4. 17)해 수질보전정책의 수범사례가 된 바 있다. 수질오염총량제는 4대강(한강, 낙동강, 영산강, 섬진강) 유역 일대에 걸쳐 시행되고 있다. 수계의 단위유역별로 목표수질을 설정, 목표수질을 달성 및 유지할 수 있도록 오염물질의 배출총량을 정해 관리하는 제도다.

안양천 5개 시는 협약체결에 따라 2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공동 추진하는 가운데 2030년까지 안양천 수질개선과 오염부하량 관리를 위해 공동 노력하게 된다. 특히 이번 협약은 수질오염총량제 시행 관련 자치단체간 맺는 2회 연속 협약이자 전국 첫 MOU다. 향후 지자체간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의 좋은 사례가 될 전망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안양천 수질을 더 향상시키기 위해 5개 지방정부가 뜻을 합친 것은 매우 잘된 일이라고 하면서, 우리시는 강우 시 고농도의 비점오염물질이 하천으로 유입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022년 연구용역을 실시할 계획으로 인근 자치단체에서도 많은 관심과 협조가 있길 바란다"고 했다.

최정부/기자

경기도의회  
Gyeonggi-do Assembly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

# #새로운\_자치분권의\_시작

# #광고\_경기도의회\_신청사

광주시, 2022년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추진

광주시는 광주시민 730명을 대상으로 오는 1월 6일부터 21일까지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은 1월에 영농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새로운 농정시책과 품목별 현장 애로사항 해결 중심 교육으로 2022년에는 수요 조사를 통해 선정된 토마토, 고추, 소형농기계, 외국인 근로자 고용제도 등 14과정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은 코로나19 확산방지와 방역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오는 23일까지 사전 접수를 받고 있으며 교육은 집합교육과 비대면 교육을 병행한다.

신청방법은 광주시청 홈페이지(민원신청→종합신청센터→농업기술센터교육)에서 오는 23일까지 온라인 신청 또는 유선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교육 일정과 내용, 변동사항 등은 광주시청 홈페이지 '새소식'을 참고하면 된다.

신동현 시장은 "교육생 사전 접수를 통해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해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영농계획 수립과 영농현장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강호/기자



서철모 화성시장, 경기도 공공배달앱 우수지자체 선정

화성시는 16일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우수지자체로 선정돼 경기도 주식회사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이날 화성시청 접견실에서 열린 감사패 전달식에는 서철모 화성시장과 이석훈 경기도 주식회사 대표이사가 참석했다.

화성시는 2020년 12월 첫 공공배달앱 런칭을 시작으로 2021년 10월 배달특급을 서비스 중인 경기도내 30개 시·군 가운데 최초로 누적 매출액 150억원 돌파하는 등 배달특급의 활성화에 기여했다.

특히 전국 최초로 다화용기 배달·포장 시범사업 추진을 통해 다화용기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증대시키는 착한 소비문화를 이끌어 냈다.

이석훈 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는 "배달특급 활성화를 위해 힘써주시는 화성시에 감사드립니다"며 "배달특급을 사용하는 소비자와 가맹점주들의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해 서비스 개선과 소비자 혜택 강화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코로나19의 장



기화로 소상공인들이 많이 힘들고 지쳐있는 상황에서 배달특급은 지역화폐와 함께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며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한편 11월말 기준 화성시의 배달특급 가맹점 수는 3,860개소이고 누적 거래액은 167억원, 누적 주문 건수는 64만건을 돌파하며 경기도 공공배달앱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양시현/기자

안성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단체 지정

안성시는 지난 15일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안성지구협의회(회장 김철주)에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단체 지정서를 전달했다.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은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을 위한 계도·점검과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활동 등을 하는 단체로, 안성시는 2016년도까지 운영해왔으나 2017년부터 감시단 운영을 희망하는 단체가 없어 관련 부서 공무원들과 각 읍·면·동 청소년지도위원들이 감시단을 대신해 유해환경 지도 및 단속 활동을 수행해왔다.

그러나 한정된 직원으로 체계적

인 청소년 보호 활동을 추진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시는 감시단 운영을 다시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안성지구협의회는 매년 관내 우범지역과 학교 근처의 야간순찰, 청소년 선도 캠페인 등의 청소년 관련 사업 실적을 인정받아 감시단 운영단체로 지정됐다.

선정된 단체는 내년부터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으로서 청소년 선도·보호와 각종 유해환경 정화를 위한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조혜영/기자



'하남챗봇 구축 완료' 하남시, 스마트시티 리빙랩 및 실증사업 완료보고회 개최

하남시는 지난 15일 신옥호 부시장 등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상회의를 통해 '스마트시티 리빙랩 및 실증사업 완료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6월부터 21명의 스마트시티 리빙랩 시민참여단과 함께 하남의 도시문제를 발굴해 스마트기술로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해 왔다. 이어 8월 중간보고회에서 3개 과제 중 '하남 윈스톱 생활불편 민원시스템 구축'을 최종과제로 선정했다.

최종과제에 대해 시민참여단 전원이 실증사업 리빙랩을 통해 사업

화를 검토한 결과 민원의 접근성을 높인 '하남챗봇 구축'사업으로 이어졌다.

'하남챗봇'은 채팅과 로봇의 합성어로, 스마트폰 메신저인 카카오톡에서 바로 민원접수가 가능하고 ▲분야별 행정정보 열람 ▲체육시설 예약 ▲코로나19 안내 등 시민들이 자주 찾는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하남챗봇은 최종 테스트를 거쳐 내년 1월 오픈할 예정이며,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하남챗봇'을 내려받으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날 완료보고회에서는 스마트시

티 리빙랩 시민참여단이 도시문제 발굴부터 실증사업에 참여하는 과정을 프레젠테이션과 동영상으로 소개했다. 이어 하남챗봇을 시연하는 내용으로 진행했다.

신옥호 부시장은 "우리시에 존재하는 문제점은 실제 생활하고 계신 시민분들이 제일 잘 알고 있기에, 스마트시티 리빙랩처럼 시민들과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아가는 노력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하남챗봇'이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발전시켜 나가자"고 당부했다.

박강호/기자

오산시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구성해 첫회의

오산시는 15일 오산시 스마트도시 발전을 위해 구성된 '오산시 스마트도시 사업협의회' 및 위촉식을 개최하고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협의회는 위원장인 김능식 부시장을 포함한 당연직 위원 7명과 위촉위원 14명으로 구성했으며, 위촉위원은 시의회, 대학, 연구기관, 기업체,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에서 도시계획, 정보통신, 스마트 서비스 각 분야별 전문가들을 추천받아 위촉했다.

협의회는 '오산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운영 조례'에 근거해 구성된 법정기구로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한 스

업계획 및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 및 재정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준공검사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지문하는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스마트도시사업협의 운영계획 보고와 함께 오산시 스마트도시계획 수립용역에 대한 중간보고, 국토부 공모로 선정되어 추진 중인 스마트타운플랜지 사업 진행사항 보고, 오산 운암뜰 AI시티 도시개발사업 마스터플랜 보고와 추진 방향에 대한 논의

가 이뤄졌다.김능식 부시장은 "경기도 8개 지자체가 추진하는 미래형 스마트반도체 도시연합과 연계하여 다른 도시와의 호환성을 고려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오산시 특화 스마트도시 구축이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또한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의 급격한 발전에 따라 다양한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스마트도시사업이 중요한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어 우리 시도 다양한 국가공모사업 및 민간협력을 통해 스마트도시 인프라 구축에 노력하고 있다"며 "협의회를 통해 도시문제 해결과 지역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지속가능한 AI스마트도시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양시현/기자

이천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평가 '우수상' 수상

이천시가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은 시민의 편안한 일상을 위해 민관이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여 지역사회보호체계를 구축하고 시행하여 이룬 결실로 의미가 크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지역사회보장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매년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및 이행여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계획내용의 충실성, 시행과정의 적절성, 시행결과의 우수성, 지역주민 참여도 및 민관협력 등 5개 분야 14개 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천시는 경기도 1차 서류심사 및 현장평가 후 보건복지부 평가위원회 2차 심사과정을 거쳐 우수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이천시는 복지욕구에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하는 행복한 동행과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희망우체통 설치, 여성창업 초기물품지원 등 코

로나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수요자 중심의 사업 추진과 계획에 대한 이행점검, 결과확인 모니터링을 체계적으로 추진한 것이 높은 평가를 받은 요인으로 꼽혔다.

임태준 이천시장은 "지역사회보장 증진을 위해 민관이 협력하여 사업단위별로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며 모두의 노력으로 이룬 성과여서 수상의 의미가 크다"며, "탄탄한 지역사회보장계획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이천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성윤/기자



고양시  
사관과 평화의 시작 미래의 중심 고양  
정의로운  
코로나, 함께 이겨낼 수 있습니다!

## 12월 겨울철새 132만 마리 도래, 조류인플루엔자 대응 지속

환경부는 국립생물자원관과 12월 10일부터 3일간 전국 주요 철새도래지 112곳을 대상으로 겨울철새 서식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국적으로 겨울철새 168종 약 132만 마리가 도래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전체 겨울철새 개체수는 전월 대비 22.6% 증가했고, 지난해 12월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7.2% 증가(20.12월 123만 마리 → 21.12월 132만 마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류인플루엔자 전파 가능성이 높은 오리과 조류는 30종으로 전체의 77.7%인 약 102만 마리가 발견되었으며, 이는 전월 대비 33.8% 증가 및 전년 대비 9.8% 증가한 수치다.

환경부는 이번 겨울철새 서식현황 조사 결과를 관계기관에 공유하는 한편, 겨울철새의 본격적 유입에 앞서 전국 철새도래지에 대한 예찰, 시료채취 및 검사를 강화하는 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먼저, 조류인플루엔자 위기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 11월 3일부터 야생조류 대응상황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환경부 상시에찰 철새도래지 전체(87곳)에 대한 예찰활동을 강화(2주 1회→1주 1회)하고 있다.

또한, 국민들의 철새도래지 출입자제 협조를 이끌기 위해 12월 2일 '조류인플루엔자(AI) 국민대응수칙' 홍보물을 배포했고, 지자체와 협력하여 안내현수막 설치, 순찰원 배치 등 철새도래지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그 외에도, 철새도래지와 멀리 떨어진 가금농장에서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가금농장 인근 소하천에 대한 특별 예찰도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 환경부는 동물원 등 조류 전시·관람·보전시설의 방역상황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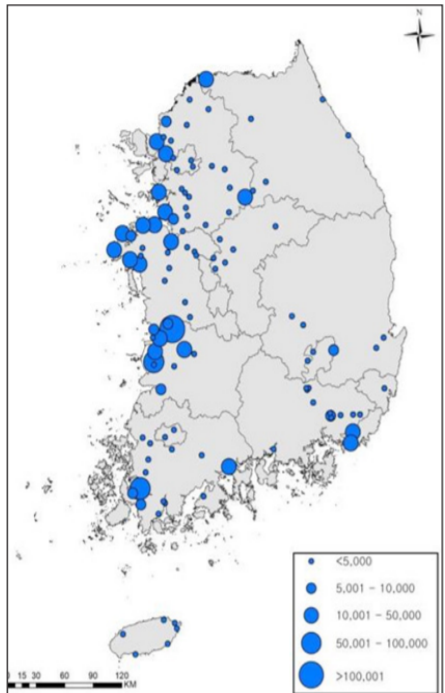
매월 점검하고, 관계기관의 조류인플루엔자 대응도 적극 지원하고 있다.

환경부 소속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및 각 시도의 동물위생시험소 등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폐사체 신고를 상시적으로 접수받고 진단하도록 하는 등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

아울러, 겨울철새의 서식 분포와 이동현황, 야생조류 인플루엔자 검사 결과 등 정보는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 등 방역 당국에 제공하여 농가 방역도 지원하고 있다.

홍정섭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지난해에 이어 이번 겨울도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전국에서 잇따라 검출되고 있는 만큼, 확산 예방을 위해 가급적 철새도래지 방문을 자제해 달라"라면서, "부득이하게 방문할 경우 소독 및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고, 폐사체 발견 시 즉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성지아기자



## 김기서 충남도의원, 레미콘·아스콘 제조사업장 전수조사 촉구

충남도내 레미콘과 아스콘 제조사업장 등 대기오염물 배출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충남도의회 김기서 의원(부여·1·더불어민주당)은 16일 제333회 정례회 4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대기오염 배출시설 조사·관리·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지난 10월 23일 환경부 및 산하기관 종합감사에서 '환경부와 지자체의 관리 감독 소홀로 유해물질 부실 측정으로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아스콘 제조사들이 환경개선 설비를 구축하지 않았고 그 이유로 현재는 1급 발암물질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국 아스콘 제조사는 500여 곳(800기), 레미콘 제조사는 900여 곳(1085기)이다. 충남의 아스콘 제조사는 52개소 가운데 1개소는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된 벤조(a)피렌 의무사업장이다. 하지만 이 사업장은 올해 8월 30일 지도점검 실시결과 벤조(a)피렌 등에 대한 자가 측정을 실시하지 않아 행정처분 및 수사 진행

이고, 나머지 51개소는 벤조(a)피렌 발생 오염물질로 허가를 받지 않았다.

김 의원은 "충청남도보건환경연구원은 벤조(a)피렌 검사장비 및 분석인력 부족으로 아스콘업체 오염도 검사 측정에 어려움이 있다"며 "장비와 인력을 보강해 조속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배출허용 기준 초과 사업장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 조치와 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정근기자

## 허태정 대전시장, 코로나19 취약시설 방역상황 집중 점검

### 15일 중구 소재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방역사항 및 방역택시 운행현황 점검

대전시가 코로나19 취약시설의 집단감염 사전 차단을 위해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에 대한 방역상황을 점검했다.

대전시는 허태정 대전시장(15일 오후 2시 중구 소재 웰시티 요양병원과 베스타 요양원을 찾아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 면담을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날 점검은 최근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대전시에서도 60대 이상 고령층의 백신 접종률과 감소로 집단감염 우려가 높아지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12일까지 발생한 확진자 1,664명 중 26%인 437명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입소자 중에서 발생했다.

이에 따라, 시는 요양병원과 요양원 등 취약시설 종사자와 입소자를 대상으로 진단검사 의무를 내년 1월 9일까지 3주간 기존 종사자 주 2회 PCR 의무 검사에 자가진단키트를 활용한 주 1회 검사를 추가로 의무화 했고, 입소자도 자가진단키트로 주 1회 검사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14일 발표했다.

이날 허태정 시장은 시설 관계자들



대상으로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요양시설의 적극적인 방역 동참을 당부했다.

허 시장은 감염확산 차단을 위한 자가진단키트를 올해 12월 중 우선 5만 개를 구매해 요양병원과 요양원 등 취약시설에 신속히 배부하고 내년 초에 10만 개를 추가 구매해 배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엔 시가 구매하는 자가진단키트는 식약처의 허가를 얻은 제품으로 각 시설의 방역상황 이행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서 허 시장은 대전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재택치료자 이송을 위한 '방역택시' 운행 상황을 점검했다. 확진자 급증과 이에 따른 병상 부족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재택치료가 시행되고 있으나, 기존 보건소와 소방서 응급차들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

었다.

이에 대전시는 택시 운송조합과 협의해 택시 내 격벽 등 방역시설이 설치된 재택치료자 이송 전담 방역택시를 운영하고 있다.

방역택시는 재택치료자 증상 발현 시 치료 병원에 이송을 전담하게 되며 1일 3대, 24시간 운영체계를 갖추고 있다.

대전시는 내년 3월말까지 운영할 예정인 가운데,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차량 대수와 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코로나19 상황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서는 방역수칙 준수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며, "시에서도 방역수칙 준수 지원과 신속한 3차 접종 등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원호기자

## 경상남도 소방본부, 화목보일러 사용이 잦은 요즘! 주 1회 안전점검은 필수!

경상남도 소방본부는 경남 곳곳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화목보일러 등 난방기기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도민의 안전주의를 당부했다.

기상청 일기예보에 따르면 경남은 지난 주말과 비교해 하루만에 수온수가 10도 이상 곤두박질쳤고 양산과 거창 등은 12일 밤부터 한파특보 등이 발령되는 등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고 있다. 추운 겨울 날씨의 도래에 따라 특히 증가하는 것은 화목보일러 화재이다. 화목보일러의 경우, 연료 투입구 외부로 불티가 비산되고 연통 내부에서는 온도가 600℃이상까지 상승하였으며, 화목보일러 연통의 경우 420℃, 분체 및 연통 표면에서는 300℃까지 온도가 올라가 연통이 접촉될 경우 착화될 위험이 높다.

도 소방본부의 화재통계에 따르면 올해 경남도에서 발생한 화목보일러 화재는 총 25건으로 피해액은 1억9천6백만 원에 달했다. 본격적

인 겨울이 시작되는 12월부터는 화재의 위험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화재 원인은 부주의(19건)으로 가연물 근접방치(6) 및 사용 밀설치 부주의(5), 불씨방치(8) 등이었으며 과열 및 연료누설(4) 등 기타 원인도 사고의 원인이었다.

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화목보일러 화재 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도민에게 당부하였다.

우선 보일러 가스가에 불에 타기 쉬운 장작이나 인화성 물질을 보관하지 말아야 하며 나무 연료를 넣은 후에 투입구를 꼭 닫아 불씨가 날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보일러실 인근에는 소화기를 비치하고 보일러 연통을 주기적으로 청소해 그을음을 제거하며 타기 쉬운 천장 등과 맞닿아 있는 연통은 난연성 단열재로 덮어야 하며 무엇보다 주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 사고를 미리 예방하여야 한다고 전했다.

윤광남/대기자

## 안산시 단원구,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이행실태 점검 실시

안산시 단원구는 2022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와 관련,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9개 시설물에 대해 이달 28일까지 이행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실시를 통해 부담금 경감을 받기 위해서는 '안산시 도시교통정비 촉진 조례'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 받고자 하는 시설물의 소유자(다수인에게 분양된 경우에는 대표자)가 ▲차량 5부제 ▲주차장 유료화 ▲시차 출근제 ▲통근버스운영 ▲이무휴업 또는 자율휴무 등을 포함한 다양한 프로그램 중에 이행 가능한 내역을 확인한 후 매년 7월 1일까지 해당 구청(도로교통과)에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이행계획

서를 제출한 시설물의 소유자(대표자)는 매 분기마다 이행실태보고서를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해야 하며, 구청에서 실시하는 현장 점검을 통해 감축 프로그램 이행여부가 확인되는 경우에만 경감을 받을 수 있다.

김기서 단원구청장은 "부담하게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 받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실태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최정부기자



## 인천 강화군, 군민 생활SOC사업 '관청근린공원' 조성 현장 점검

강화군이 군민들이 생활 속 근거리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관청근린조성공사'가 완료됨에 따른 개장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군은 '관청근린공원 조성사업'으로 관청리 51번지 일대 82,661㎡부지에 사업비 183억 원을 투입해 진입광장, 온가족건강길, 산성놀이터 등 조성을 완료하고 임시개장을 위한 마무리 정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천호 군수는 지난 13일 관련 국·과장과 함께 '관청근린공원 조성사업' 현장을 찾아 구석구석을 살피고 보며 공원 내 시설물, 수목식재 등 시공 상태를 확인했다. 군민들과 어린이들이 공원을 이용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편의시설을 임시개장 전에 보강할 것을 당부했다.

관청근린공원 진입광장에는 이팝나무 군락지, 초화원 등이 녹색 공간을 만들고, 온가족건강길에는 군민

들이 가볍게 나들이를 즐길 수 있는 파고라, 데크 등을 설치했다. 산성놀이터는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캐비닛웨이, 원통슬라이드, 네트놀이대 등의 어린이 전용 놀이 공간을 조성했다. 또한 풋살경기장을 조성하고 곳곳에 간이 야외운동기구와 간이 휴게시설을 만들어 가족과 함께 휴식을 취하면서 건강도 챙길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군에서 조성 중인 남산·관청·북산근린 공원은 1972년 공원으로 결정됐지만, 주요 관광지 정비 등의 사업우선순위와 재정여건 등의 이유로 조성이 지연돼 정작 군민을 위한 생활인프라가 낙후되어 왔다. 이에 군은 군민 생활에 가장 가까운 곳부터 혁신의 바람을 불어넣기 위한 생활SOC사업에 박차를 가해 곳곳에 공원, 생활체육시설, 문화복지시설, 주차장 등이 들어서고 있다.

남산근린공원은 신문리 505-3번지 일대 사업비 279억 원을 투입해 103,240㎡ 부지에 숲향기 생태원, 산바람 언덕 등이 조성되고 있으며, 북산역사공원은 관청리 산39-8번지 일대 10,090㎡ 부지에 사업비 29억 원을 투입해 문화유산은 주제로 하는 테마공원과 자연복원형 역사공원 조성이 한창이다.

이외 감룡공원은 갑곡리 441-1번지 일대 12,154㎡ 규모로 사업비 78억 원을 투입해 지난해에 개장하며 이어, 인접지 7,051㎡ 부지에는 사업비 58억여 원을 투입해 어린이를 위한 전용놀이 공간을 갖춘 감룡어린이공원이 조성 중에 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족한 군민 생활SOC 시설을 대폭 보강해, 정주여건 향상 등 군민의 행복지수를 한층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종남기자

## 고기연 산림항공본부장, 산불 진화용 드론 운용 현황 점검

산림청 산림항공본부는 13일 안동·익산 산림항공관리소를 방문하여 산불감시와 야간산불 대응을 위해 운용하고 있는 진화용 드론 운용현황을 점검하고 안전비행을 위해 현장 영상회의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점검은 고기연 산림항공본부장이 직접 진화용 드론 및 압축 에어로졸 보관장소를 점검하고 과거 산불이 발생했던 지역에서 압축 에어로졸 장착·분사 시연회를 열어 실전과 같은 산불 대응태세를 점검했다. 또한, 시연 현장에서 영상회의 토론회를 통해 6개 드론산불진화대

에도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발전방안을 모색했다.

드론산불진화대는 산림항공본부 및 산하 5개 산림항공관리소에서 봄·가을철 산불조심기간에 운영되고 있으며, 진화용 드론에 압축에어로졸을 장착하는 등 첨단 ICT(정보통신기술)를 접목하여 산불을 진화한다. 올해 초 두 차례에 걸친 시범운동을 통해 소각행위 공중감시·계도 및 산불현장 상황을 지휘본부로 실시간 전송하여 산불진화 계획 수립에 활용 등 드론산불진화대의 효과를 검증했다.

윤봉금기자

고기연 산림항공본부장은 "산불 발생 시 대형산불로 확대되지 않도록 초기에 총력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빠른 기동력이 장점인 진화용 드론을 산불 발생 초기에 적극적으로 투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등원기자



area

영남 I

8

문화매일

2021년 12월 17일 금요일

## 경주시, 발로 뛰는 행정으로 복지 사각지대 예방에 총력

### 올해 신규 기초생활 수급자 포함해 531세대, 690명에 수급 자격 부여

경주시가 발로 뛰는 행정으로 저소득층 생계 보장을 위한 견고한 사회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시는 올해 현재까지 신규 기초생활 수급자를 포함해 531세대, 690명에게 수급 자격을 부여하는 성과를 이뤘다.

먼저 기초생활 수급 자격이 되에도 불구하고 관련 절차를 모르는 등

의 이유로 수급을 받지 못하던 306세대, 402명을 발굴해 신규 기초생활 수급자로 선정했다.

담당 공무원들은 사각지대 내 저소득층을 발굴하기 위해 직접 방문 또는 우편 발송, 그리고 유선 등으로 수급자 신청을 안내했고, 직권으로 수급자를 선정하기도 했다.

또 기존 수급자 가운데 실제 형편이 나아진 것이 없지만 기초생활보장 선정 기준 초과,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 가족관계 변경 변화 등으로 인해 수급이 중단될 위기에 처한 225세대, 288명에 대해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적극 활용해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지방생활보장위원회는 법적으로 기초생활 수급자가 될 수 없지만 실

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수급자 선정 여부를 심의·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아울러 소득·재산 변동 등 사유로 급여가 감소되거나 중지될 예정인 수급자에 대해 사전 안내문을 우편 발송해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우편이 반송된 세대는 유선으로 다시 안내해 기초생활보장 수급 자격 상실을 방지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적극적인 권리 구제활동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세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등 복지 안전망 강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상길/기자

## 포항시, '탄탄한 경제방역으로 빠른 경제회복에 앞장'

포항시는 경기 회복 기대감에 따른 소비자 심리지수 상승과 더불어 지역 내 경기가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16일 전했다.

이는 코로나19의 악재 속에서도 포항 철강산단 생산 및 수출량이 꾸준한 상승세에 있으며, 서비스업 이용객·수산물 생산량 등이 전년 동월 대비 증가하면서 경북 동해안 지역의 실물경제 지표가 살아나고 기간 침체됐던 포항 내 수 경제에도 온기가 돌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포항시는 튼튼한 방역체계를 바탕으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자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위기 대응을 위한 경제대책과 서민경제의 버팀목이 될 청년·공공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한 바 있다. 지난 10월에는 코로나19의 4차 대유행과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인해 피해가 큰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과 더불어 경영위기에 놓인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핀셋지원'으로, 시 자체 예산을 확보해 3만 1천여 개 업체에 122억 원의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접형 경제지원을 하면서 경영안정에 도모했다.

상반기에는 코로나19 피해업종 긴급 피해구제 지원사업으로 지역 내 9,700여 개 업체에 102억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올 한해만 총 224억 원 상당의 포항형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소상공인들의 안정적 자립기반 마련에 총력을 기울였다.

아울러, 지역 경제 활력의 든든한 지원군이 포항사랑상품권은 올해 3,900억 원(6년 간 누적발행액 1조 2,900억 원) 규모를 발행해, 상품권 유통량 확대 및 구매수요 증대로 지역화폐 일상화를 도

모했다. 하반기에는 포항사랑 카드형·모바일형 상품권을 출시했으며, 내년에는 경북 최초 삼성페이 결제방식 도입 예정 등 시민편의 향상과 더불어 소상공인 매출 증진 및 지역 내 소비 촉진으로 특

특한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청년정책을 위해 40개 사업에 예산 205억 원을 편성해, 청년들의 지역 정착 유도 및 일자리 확대를 위한 청년 선호 정책 발굴 및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올 12월 개소한 경북 콘텐츠기업지원센터에서 청년 중심의 문화콘텐츠 산업을 육성하는 등 청년이 살기 좋은 포항 만들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민선 7기 종합계획 일자리 공시제 목표인 2만 590개보다 149%를 초과 달성한 3만 700여 개의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발굴함으로써 고용 위기 속에서도 양질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고 있다.

더불어 내년까지 총 사업비 239억 원을 투입, 도시가스 미공급 농촌지역에 도시가스 및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으로 연료비 부담을 완화하면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 향후 10년 이내 전 시민 99% 에너지 복지 혜택 제공을 목표로 에너지 복지 불균형 해소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2022년은 경제 위기 극복과 경제 반등을 위한 중요한 시기로 민생경제 회복의 마중물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며, “지속적인 방역 체계 속에서 시민들의 안전한 소비활동에 앞장서 시민경제 전반에 걸친 포항시 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

김노이/기자



경상북도  
GYEONGSANGBUK-DO

### 청도군 관광활성화를 위한 여행업계-지자체 트래블마트 참가

여행업계-지자체 트래블마트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후원하고 한국여행업협회가 주최로, 코로나 19 장기화로 단절된 지자체와 여행업계의 교류 물꼬를 트기 위해 기획되었다.

트래블마트는 52여 개 시군, 관광유관기관과 협력해 여행업계 관계자 약 110여명을 대상으로 관광자원을 홍보하는 행사다.

군은 이번 행사에서 지역의 대표 관광자원인 청도읍성 외 비대면 안심관광지로 선정된 운문호반에코트레일(공암봉벽) 등 청정 관광자원과 청도신화광풍류마을, 레일바이크, 한국코미디 타운, 프로방스 포도랜드, 군파크 루지 등 체험형 관광자원 홍보에 박차를 가했다.

또한, 여행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단체 관광객 인센티브 제도를 알려 다양한 관광상품을 만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장려했다.

청도군 관계자는 “지속해서 관광박람회, 트래블마트에 참가해 안전하고 청정한 청도 관광자원의 매력을 국내외 관광객에게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정성혁/기자

## 영양군, '정책디미방' 성과보고회 개최!!

### 직원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영양군의 미래먹거리를 찾다~

영양군은 12월 16일 대회의실에서 2021년 정책디미방 성과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정책디미방'은 올해 5월부터 직원들의 신청을 통해 18명의 직원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군정 전반에 걸친 다양한 분야의 새로운 사업 발굴을 위해 운영되고 있다.

출범 3년째를 맞아 2019년 4건, 2020년 13건의 시책을 발굴하여 지역 발전을 위한 군정에 기여 하고 있으며, 올해는 4개 팀으로 구성되어 7

개월간 걸쳐 연구하고 준비한 최종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행사장에는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오도창 군수와 부군수, 국실과 소장, 정책디미방 회원, 그리고 일부 직원만 참석하였고, 나머지 직원들은 인터넷 방송을 통해 보고회를 시청하며 우수팀을 선정하는 온라인 투표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보고회는 (영양홀리) #영양에 빠지다, (플랜B) 영양고추 농사 모바일게임 구축, (꾸준히 최상) 웰지 가족과 함께 보내고 싶은 수요일, (고독한 괴식가) 천하제일 괴식대회를 주제로 4개 팀의 열띤 발표가 진행되었으며, 심사위원 점수와 직원 투표 점수를 합산하여 최종 순위가 공개할 예정이다.

영양군은 심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군수, 부군수, 부서장으로 구성된 심사위원 점수와 직원 투표 점

수로 순위를 결정하며, 발표된 안건들의 실현가능성과 경제적 효과, 창의성 등을 평가에 반영하였다.

이번에 발표된 안건들은 내부 논의와 관련 부서의 면밀한 검토를 거쳐 실제 사업으로 구체화시킬 예정이며, 전 직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행정 게시판에도 발표 자료를 공유할 예정이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지난 7개월간 성과보고회 발표를 위해 노력한 직원들의 노력과 열정에 감사드리며, 많은 고민이 느껴진 아이디어들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부서장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하였고, “지역 소멸위기를 맞아 정책디미방이 정책 발굴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세기/기자

## 구미시 경상북도 평생교육 추진시책 평가 대상 수상

구미시는 12월 15일 11시 더케이호텔 경주에서 진행된 '2021년 경북 평생학습 페스타'에서 '2021년 경상북도 평생교육 추진시책 평가' 평생학습도시 부문 대상을 수상하였다.

이번 추진시책 평가는 도내 23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역 평생교육 진흥에 기여하고 창의적인 평생교육을 실천해 나가고 있는 우수 시군을 발굴하고 평생학습 문화 확산을 위해 추진사업을 평가하는 것으로 올해는 평생학습 체계, 도민대학 운영, 평생학습 참여도, 우수시책 사례 등 4개 분야에 걸쳐 실제

를 평가받았으며, 구미시는 각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국가평생교육정책 추진에 맞추어 장애인 평생학습과 평생교육 이용권에 대한 내용을 잘 빠르게 조례에 개정·반영하여 소외계층이 없는 학습도시 조성 기반을 마련하였고, 마을평생교육지도자들이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단디! 마을학교' 사례로 공동체 단위 평생학습 기반을 실현하였다.

또한 올해 첫 시작한 '도민행복대학 구미캠퍼스'의 성공적인 운영과 코로나 시대에 걸 맞는 취·창업 과정 운영을 통해 학습자 92%가

창업에 성공한 사례를 높이 인정받았다.

장세우 구미시장은 “올 한 해 조직개편과 더불어 국가·도의 평생교육 정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한 조례 개정, 주민 주도형 마을평생학습 추진 등 시민이 주인이 되는 평생학습도시를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하여 그 성과를 인정받았다. 내년에는 학습상점, 평생학습 스투디오 설치와 더불어 시민학교 운영 등 평생학습 발상지에 걸 맞는 사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봉금/기자

## 청도군, 2021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 국무총리표창 수상

청도군이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2021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에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은 자원봉사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공적이 있는 자원봉사기관 등을 발굴하여 12월 5일 자원봉사자의 날에 포상하는 상으로, 올해는 코로나19 대응 등 각종 재난·재해 수습에 공헌한 유공자를 중점 발굴했으며, 청도군은 코로나19의 신속한 대응이 전국적으로 모범이 되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군은 지난해 코로나19 첫 집단 감염 발생으로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자원봉사 활동이 제한적으로 운영된 상황에서도 일제방역 소독의 날 운영, 코로나19 안전교육 및 홍보, 구호 및 방역 물품 지원, 경북형 마스크 제작, 취약계층 물품 지원 등 지역사회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해왔다. 특히, 올해는 75세 이상 어르신 백신접

종을 위해 발빠르게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구성·운영했으며, 고령화율이 높은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자원봉사자가 백신접종 어르신들 1:1 전담해 간편하고 안전하게 접종을 마칠 수 있도록 할애했다.

군은 군민의 31%가 넘는 13,027명이 자원봉사자로 등록되어 활발한 자원봉사 활동을 펼친 점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예방 및 방역 활동 등이 높이 평가되어 국무총리 표창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되었고, 이로써 12년 연속 기관 표창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두었다.

황영호 청도군 부군수는 “이번 수상은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도 이웃과 지역을 위해 적극적으로 헌신해 온 자원봉사자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언제나 따뜻하고 희망이 넘치는 행복공동체 청도를 만드는데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정성혁/기자

다음에서 '온심마켓' 을 검색하세요!  
네이버에서 '영양고향장터' 를 검색하세요!

## 영양군 우수농산물 온라인 직거래

# 온심마켓

<https://yyg.go.kr/onsimmarket>

문의전화 054-682-6277

### 영양군로컬푸드 온심마켓



창원시, '보건복지부  
지역사회보장계획 평가' 대상  
선정



창원시는 14일 보건복지부 '2021년 복지행정상' 수상식에서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평가' 부문에서 '대상'으로 선정돼 4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이라는 영예를 안았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지역주민들의 복지욕구와 복지자원을 고려해 지자체 실정에 맞도록 수립하는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4년 단위 중장기 계획으로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이행 및 지역발전에 기여하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매년 우수기관을 발표하고 있다.

시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충실성, 시행과정의 적절성, 시행 결과의 우수성 및 민관협력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4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면서 창원시 복지정책의 우수성을 입증받았다.

특히, 고독사 없는 행복 창원만들기 프로젝트, 노인일자리 확대, 여성안정망 확충 등 지역사회가 추구해 온 사회보장의 목표와 방향을 제시해 지역복지가 발전 할 수 있는 동력을 마련한 것을 높이 평가받았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복지행정상 대상을 받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다. 창원시가 내년 1월 13일 시민의 삶을 바꾸는 창원특례시로 새롭게 출범하면, 광역시급에 걸맞은 자치 권한과 재량권을 부여받아 창원시민의 복지향상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며 "창원의 지역복지 발전에 더욱 매진할 것이며 여러분의 많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남궁영기기자

### 밀양시, 공직자 연찬회 개최

밀양시는 지난 15일부터 16일 양일간 삼봉동 소재 호텔아리나에서 '노무실무자 연찬회' 및 '오피스 우울증 극복을 위한 힐링 연찬회'를 실시했다.

15일은 노무실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경쟁력 있는 노사문화를 구축하고, 실무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노무실무자 연찬회'가 실시됐다. 기간제 및 공무원 근로자의 채용에서 퇴직까지의 노무관리, 관계 법령 및 사례별 행정해석, 질의응답으로 진행됐으며, 현장실무사례와 연계한 강의로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어 유익한 시간이었다는 평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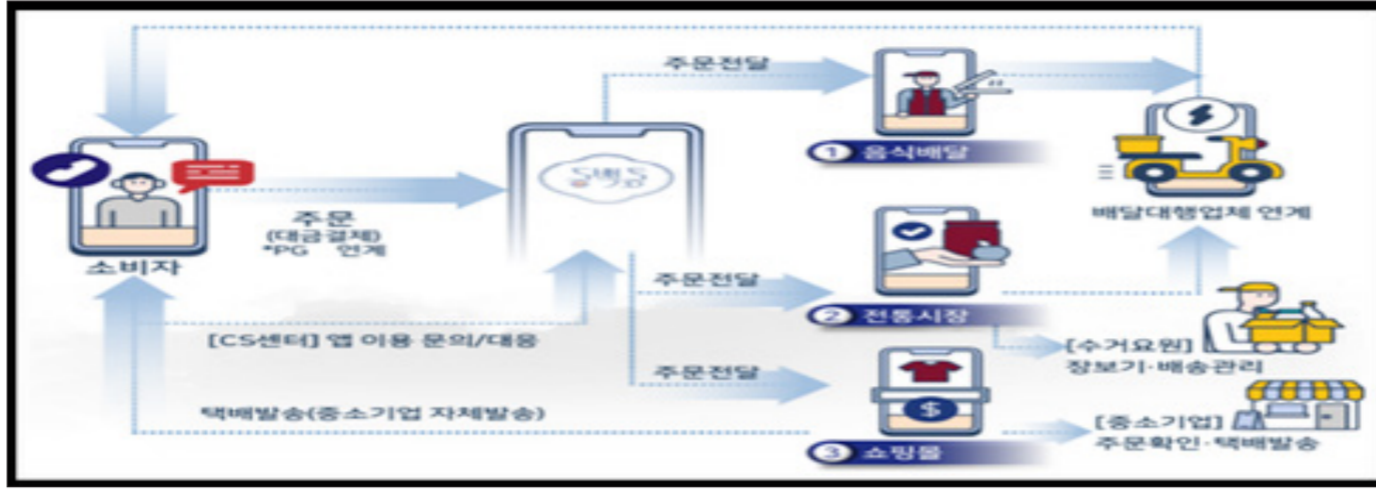
16일에는 격무로 심리적 피로감이 높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오피스 우울증 극복을 위한 힐링 연찬회'가 진행됐다. 이날 참가자들은 직무 스트레스 관리 특강을 통해 오피스우울증의 원인과 알맞은 관리법을 알아보고, 미술 심리치유 교육 및 아크릴 판에 추구하는 미래상을 새긴 무드 등 만들기 힐링과 동기부여의 시간을 보냈다.

교육에 참가한 한 공무원원은 "업무의 고충을 이해할 수 있는 동료 직원들과 함께 교육을 받으면서 큰 위로와 공감으로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라고 말했다. 박일호 시장은 "그동안 쌓인 업무 스트레스를 내려놓고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며, "업무 및 민원응대로 지친 심신을 회복하고 긍정 마인드를 함양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남궁영기기자

# 부산 공공배달앱 '동백통', 다음 달 정식서비스개시!

부산시, 동백통 정식서비스 개시를 위한 소상공인 가맹점 모집 추진



부산 공공배달앱 '동백통'이 드디어 다음달 정식서비스를 개시한다!

부산시는 독과점 체제를 형성한 민간배달앱 시장의 과도한 수수료와 광고비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확대를 위해 공공개발 앱 개발을 추진해왔다.

이에 가입비·광고비·중개수수료를 없앤 3무(無) 정책을 기본 운영방침으로 기획해 부산 공공배달앱 동백통을 개발했으며 지난 10월, 연제구 시범운영을 거쳐 현재 부산 전역

정식서비스 개시를 위한 막바지 준비작업 중이다.

부산시는 동백통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2023년까지 ▲전통시장(20개 시장, 500개 점포 이상) ▲음식점(5천 개 점포 이상) ▲중소기업(200개 업체 1천 개 제품 이상) 가맹점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 본격적인 가맹점 모집에 나서고 있다. 동백통에 입점하는 가맹점주들에게 '가맹수수료 ZERO, 중개수수료 ZERO, 홍보비용 ZERO'의 3무(無) 정책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동백통 가맹점은 상시 모집하고 있으며, 가맹점 신청은 동백통 누리집을 통해 입점 신청이 가능하다. 포털사이트에서 동백통을 검색하거나 동백통CS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특히, 부산지역화폐 '동백전'과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 동백통에서 동백전으로 결제하면 민간주문앱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캐시백을 적용받을 수 있다. 시는 동백통 서비스 개시에 맞춰 캐시백을 추가로 5% 제

### 합천군수 '대한민국 환경공헌대상' 수상



문준희 합천군수는 지난 15일 서울 매현윤봉길의사 기념관에서 열린 제4회 대한민국 환경공헌대상 시상식에서 군정활동부문우수 환경공헌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시상식은 (사)환경보전대응본부와 환경감시국민운동본부 주관으로 지구온난화방지과 환경보전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를 선정해 환경공헌대상을 수여하는 행사로 합천군수 등 5개 지자체장이 수상했다.

합천군수는 탄소중립 실현과 기후변화 위기 극복을 위한 생활 속 온실가스 감축 문화 확산에 노력한 공을 인정받아 대회장인 정윤찬 전 국무총리로부터 수상받았다.

장병철기자

### 김해시, 제1차 환경교육종합계획 수립 추진

김해시는 탄소중립 실현을 앞당기고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하여 체계적인 환경교육을 추진하고자 제1차 김해시 환경교육종합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시민의식 강화를 위해 연간 11만명 환경교육을 목표로 '환경교육 기반 조성', '사회환경교육 활성화',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3개 영역, 52개 세부사업을 마련하여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간 66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한다.

시는 기후위기, 미세플라스틱 등 환경문제가 날로 심각해져 시민의 건강과 일상생활이 위협받게 됨에 따라 실천적 환경교육을 통해 환경 재난에 적극 대응하고자 올해 7월 환경교육전담팀을 신설하고 '김해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러 환경교육이 생활 속으로 스며들어 시민 모두가 환경 감수성을 겸비한 환경시민이 될 수 있도록 '모두가 환경시민, 환경교육도시 김해'를 비전으로 환경교육종합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먼저, 변화하는 환경 패러다임에 발맞춰 지속가능한 환경교육 기반을 조성하고자 수요자 중심의 환경교육 정보 통합시스템 구축, 양질의 사회 환경 교육기관 확대, 환경교육의 중

최광용기자

### 진주시, 2021년 도시재생 '우수 지자체'상 수상

진주시는 16일 오후 3시 총복 청주 문화제조창에서 개최된 '2021 도시재생 한마당'에서 열린 제8차 도시재생 광역협치포럼에서 일자리 창출 부문 '우수 지자체상'을 수상했다.

이날 열린 도시재생 광역협치포럼에서는 '기존 균형발전 정책과 새로운 균형성장 정책이 융합된 도시재생 4.0 정책'이란 주제로 국내·외 새로운 도시재생 및 부동산 정책 현황과 연계 방안 논의, 지자체장 도시재생 정책간담회,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 중인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2021년 도시재생 우수지자체 시상식이 함께 진행됐다.

진주시는 2021년 한 해 동안 주민주도형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주민들의 수익상품 개발과 경제효과 육성을 목표로 주민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해 성북지구 문화마을관리협동조합 설립, 중앙지구 논개 밀크티 개발, 도시재생 청년 활동가 양성 교육, 도시재생 대학생

최광용기자

### 남해군 '가천마을'→'다랭이마을'로 명칭변경



남해군을 대표하는 관광지 중 하나인 '가천마을'이 '다랭이마을'이라는 명칭으로 변경된다.

중층이 쌓인 다랭이논과 주변 경관의 아름다움이 어우러져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고 있는 '가천마을'은 그동안 '가천마을', '가천 다랭이마을', '다랭이 마을' 등으로 혼용돼 불리어져 왔다.

주민들은 '명칭' 혼선을 줄이고 '다랭이 마을'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마을 이름 변경을 추진해 왔다.

남해군은 지난 9월 가천마을 주민들의 마을명칭 변경 청원에 이어 남면 이장단과 남면 주민자치회의 등의 의견을 확인하고 관련 조례를 정비해 논의에 제출했다.

강영훈기자

공해 동백전 이용자의 동백통 사용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에 내년 1월, 동백통에서 동백전으로 결제 시 기존 10% 캐시백에 추가 5%를 더해 총 15%의 캐시백\*을 제공받을 수 있다.

아울러, BNK부산은행에서도 동백통 이용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해 동백통에서 부산은행 카드로 결제하면 500원을 돌려주는 이벤트를 시행할 예정이다.

나윤빈 부산시 민생노동정책관은 "동백통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온라인 판로개척을 위해 출시된 만큼, 소상공인 여러분들께서는 동백통 가맹점 가입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부산시는 16일 오후 3시, 동백통 시범운영중인 연제구 연동골목시장에서 시, 연제구, 연동골목시장 상인회, 외식업체 연제구지회가 참여하는 동백통 홍보 캠페인을 전개한다. 이날 전통시장을 방문한 소비자에게는 동백통 홍보용 장바구니를 증정할 예정이다.

남궁영기기자



area

영남II

문화매일

2021년 12월 17일 금요일

9

### 의령군, '우리 동네 건강지도자 양성 교육' 수료식 진행

의령군은 지난 15일 의령군보건소 주관으로 '우리 동네 건강지도자 양성 교육' 수료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한 달동안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사업' 지역 용덕면민 20명이 참여하였으며, 건강관리 관련 이론과 건강 체조 실기 교육을 받고 지역 주민에게 전파할 수 있는 "동네 건강지도자"를 양성하는 과정이다.

이번 '우리 동네 건강지도자 양성 교육'을 통해 양성된 건강지도자는 마을 주민에게 건강관리 정보 전달과 근력운동 지도활동을 마을 사정에 맞게 일상적으로 실시하여, 근골격계 질환과 만성질환을 예방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건강지도자는 2022년부터 용덕면 마을별 운동 교실을 직접 운영 할 예정이며, 의령군보건소는 마을 운동 교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때까지 건강지도자의 마을 운동교실 운영을 지원한다.

한편 수료식에 참석한 경성국립대학교병원 농업안전보건센터 박기수 교수는 수료증을 수여하며 "건강지도자 양성 교육 과정에서 배운 이론과 체조를 마을로 돌아가 주민들과 함께 꾸준히 운동하시고 건강을 챙기길 바란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교육에서 배운 내용을 마을에 잘 전파하여 마을 공동체의 주민 건강 역량을 강화하고, 노인 근골격계 질환과 일상생활 활동 제한을 예방하여 건강한 마을 환경이 조성되는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강영훈기자

### 경남 고성군, 2021년 양성평등 기념행사 개최

고성군은 12월 15일, 고성군국민체육센터에서 고성군여성단체협의회 주관으로 양성평등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기념행사는 지난 9월 1일부터 9월 7일까지였던 양성평등주간에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등으로 연기가 돼 12월 15일에 열리게 됐다.

이날 행사는 '양성평등 사회구현에 기여한 유공자 25명 표창대 전달식 △고성군여성단체협의회회장의 기념사 △박두현 고성군수의 격려사 △박용삼 고성군시장의 축사 △축하영상 상영 △축하 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박두현 고성군수는 "우리 사회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의식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고, 여성의 사회참여도 매우 활발해지고 있다"며 "양성평등 기념행사를 통해 양성평등의 의미에 대해 인식하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역 여성의 역량 강화 및 지역사회 참여 확대에 중점을 두고 양성평등 시책을 계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성평등주간'은 남성과 여성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일과 가정 양립 실천을 통한 실질적인 남녀평등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제정됐다.

최광용기자



area

호남 I

10 문화매일 2021년 12월 17일 금요일

# 해남군 내년 예산 8,399억 원 편성, 4년 연속 1조원 시대 순항

## 2017년 비해 3,400여억원 예산 증가, 집행율도 상승 역점사업 추진 속도

해남군이 민선7기 들어 3년 연속 지방재정규모 1조원을 돌파하며 사업 적기 추진 및 투자 확대에 따른 역점사업의 성과가 두드러지고 있다.

해남군의 2021년 예산총액은 1조 1,491억원으로, 전국 동종규모 군 단위 자치단체 중 가장 큰 재정규모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민선7기 출범 당시인 2017년 8,135억원에 비해 3,356억원이 증가한 규모로, 2019년(1조 842억원)부터 명실상부 지방재정 1조원 시대를 활짝 열고 있다.

확장된 재정규모에도 불구하고, 집행률 또한 지속적으로 높아져 2017년 66.7%의 집행률이 2020년 82.1%까지 증가하였으며, 역점사업들의 속도감 있는 추진으로 로컬푸드 직매장, 해남시네마, 청소년누림 문화센터, 청년두드림센터, 보훈회관 등 주요거점 시설들을 신축하였고, 삼산, 황산·산이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공급 등을 완료하여 군민 생활복지와 기초생활인프라 확충, 지역발전 기반 조성에 성과를 보이고 있다.

해남군의 2022년 본예산은 전년

(2021년 본예산 7,869억원)대비 530억원이 늘어난 8,399억원 규모로, 최초로 8,000억원을 돌파하였다. 군은 대부분의 지역현안 사업을 포함한 3,245억원을 2022년 정부예산에 반영하여 올해 최종예산은 역대 최고치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국도비 보조금은 2017년 2,123억원에서 2021년 3,828억원으로 1,705억원이 증가하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연초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국회 예산 확정 시까지 예산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 맞춤형 수요 발굴과 세종사무소 설치 등 발로 뛰는 세일즈 행정을 펼친 노력이 이뤄낸 결과로 풀이되고 있다.

해남군은 내년도에도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확장적 재정 운용 기조를 유지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선제적 투자를 확대하고, 군정 역점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계속사업에 적극 재원을 배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분야별로는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2,733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32.54%를 차지해 미래농업 선도지역으로서 해남의 위상을 제고할 계획이며, 사회복지분야 1,740억원(20.7%), 환경분야 811억원(9.7%), 문화·관광분야 514억원(6.1%) 순으로 예산을 배부했다.

농림어업 발전을 위해 어촌뉴딜 300사업 5개소 163억원, 농어민 공익수당 99억원, 채소류 출하조절선

터 35억원, 농작물 재해보험료 30억원, 농촌생활환경 정비 29억원, 친환경부표보급 25억원, 지역특화조립사업 21억원 등을 편성했다.

기초생활 인프라 확충을 위해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84억원, 노후 정수장 정비 65억원, 구교지구 근린생활형 체육관 건립 51억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3개지구 61억원, 현산천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16억원 등이 투입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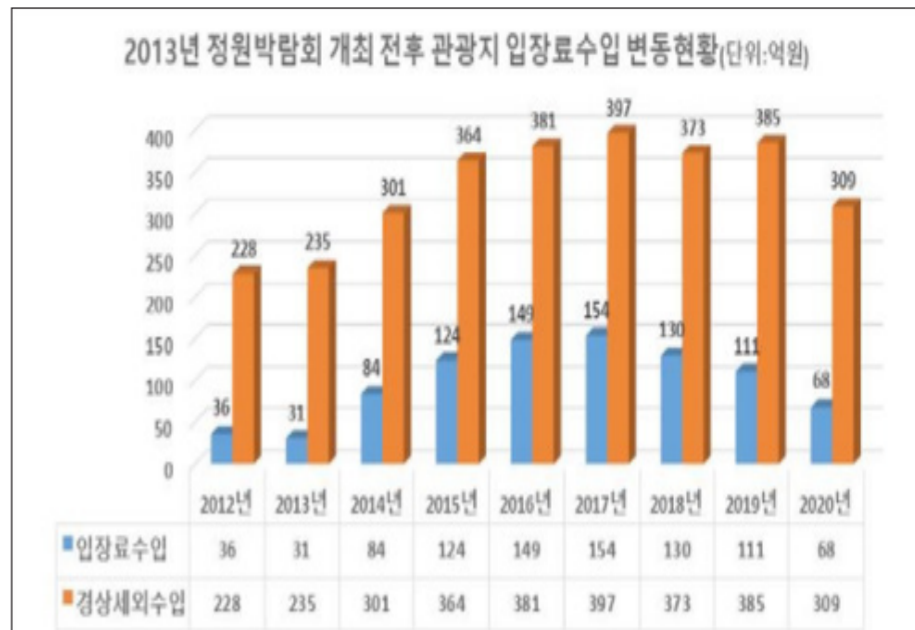
코로나19 재확산 극복하고,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남사랑상품권 발행지원 58억원, 해남형 공공근로사업 24억원, 소상공인 점포경영개선 4억원,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3억원, 예방접종 시행 11억원 등을 배분했다.

지속가능한 미래환경 조성을 위해 스마트 그린도시(자원순환마을 조성) 69억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39억원, 전기자동차 보급 24억원, 매연저감장치 부착 3억원, 탄소중립 전략수립 1억원 등을 편성하였다.

병현관 군수는“적극적인 국비 확보 등을 통해 예산 1조원 시대를 활기차게 이어나가겠다”며 “신속한 재정집행을 통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지역경기 침체 상황 극복과 순환 지역경제 구축에 기여하고, 앞으로도 군민에게 필요한 사업 발굴 및 국비 확보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양영욱/기자

# 순천시, 정원이‘곳간’이 되다. 국가정원1호-순천만국가정원



순천만국가정원은 2013년 국제정원박람회 개최 이후 현재까지 관광객 증가, 일자리 창출, 살기 좋은 정주여건 개선이라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며 순천의 인구증가를 견인하고 있다. 정원산업이라는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또한 시의 재정을 풍족하게 하는 ‘곳간’으로서 역할도 톡톡히 하고 있다.

순천만국가정원의 가치는 매년 상승한다.

순천만국가정원의 면적은 77만6천㎡로 자산 가치는 2021년도 공시가격 기준 1,444억원(토지 1,124억원, 건축물 320억원)에 이른다. 공시가격은 공시지가 및 재산세 시가표준액 수치로 수목이나 정원의 가치를 반영하지 않는 단순 부동산 가격이다. 공시가격이 실제 부동산 거래 가격과 많은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실제 국가정원이 가지는 유·무형의 자산 가치는 3,000억 원 ~ 5,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수목과 정원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풍성해지고 그 가치는 빛난다.

## 여수시, 청정전남 으뜸마을 '우수상' 쾌거 ... 우수마을 3곳 선정

여수시가 전라남도가 주관한 '2021년 청정전남 으뜸마을' 사업에서 우수상을 받아 상사업비 3천만 원을 확보했다고 15일 밝혔다.

'청정전남 으뜸마을'은 전라남도가 도내 22개 시·군 1,000개 마을을 대상으로 깨끗하고 아름다운 전남 만들기를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 참여도, 우수마을 선정 건수, 추진단 운영 실적, 환경정화운동 등 8개 항목을 평가해 우수마을 50개를 선정했다.

여수시는 청정전남 으뜸마을 참도, 우수마을 선정 건수, 이미지 평가, 환경정화운동 건수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으며 우수상을 차지했다.

특히 우수마을 선정 및 이미지 평가에서 여수시 읍촌 반월마을은 방치된 폐선을 꽃밭으로 조성하여 사업비 절감은 물론 방치물을 재활용 관광자원화하여 1석 2조의 효과를 거두었다.



여천동 내용마을은 주민들의 삶, 소망, 기원 등이 담긴 내용을 벽화로 표현해 타 시·군과 차별화된 마을의 고유한 특색과 화합을 이루어 냈으며, 여서동은 주민들이 힘을 모아 도로변 난간을 활용한 화사한 화분으로 아름다운 꽃길을 조성해 눈길을 끌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민들의 마을 환경을 개선하고자하는 적극적인 의지와 읍·면·동 직원들의 협조로 청정전남 으뜸마을 사업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며, “2022년에도 청정전남 으뜸마을 사업에서 더욱 좋은 결과를 얻도록 시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일/기자

# 전남도-전문가, 새 정부 대비 정책 방향 머리 맞대

전라남도는 '환태평양시대, 신해양·친환경 수도 전남' 비전 실현 등 주요 정책과 현안을 새 정부 국정과제로 반영하기 위해 15일 도청 왕인실에서 하반기 정책자문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12개 분과별 전문가 299명으로 구성된 정책자문위는 도정 주요 정책을 살피고 대안을 제시하는 전남도의 싱크탱크 역할을 한다.

이날 회의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박기영 정책자문위원장을 비롯한 자문위원, 실국장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규위원 위촉장 수여와 함께 차기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할 ' 으뜸전남 미래전략'을 제시하는 자리가 됐다.

참석자들은 새 정부 출범에 대비,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새로운 정책을 제안하는 등 미래 전남 발전상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전남도는 지난 11월 미래비전으로 선포한 '환태평양시대, 신해양·친환경 수도 전남'의 구체적 실현 방안인 ' 으뜸전남 미래전략' 8대 추진전략과 69개 과제를 설명하고 이를 더욱 보완하기 위한 자문과 토의를 진행했다.

이어 정책자문위에서 마련한 미래전남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이 발표됐다. 주요 제안은 ▲전남도 블루카본 프로젝트 추진 체계 구축 ▲폐원전 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체계 강화 ▲전남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 설치 ▲시설아동 퇴소 후 현황조사 및 자립지원 ▲투자기업 사후관리 강화로 기업하기 좋은 으뜸전남 조성 등이다. 참석자들은 전문가 입장에서 바라본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공유하며 깊이 있게 토론했다.

전남도는 이번 회의에서 나온 정책 제안과 의견을 보완·발전시켜 향

후 국정과제와 국비 예산 확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지난 2004년 구성된 전라남도 정책자문위원회는 도정 전 분야에 대한 전문적이고 폭넓은 자문으로 도정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최근 4년간 240여 건의 정책을 제안, 이 가운데 186건이 도정에 반영됐다.

김영만/기자

권 숙박시설이 활성화되었다. 순천이 수용하지 못한 관람객은 인근 여수로 이동하여 여수시의 펜션과 숙박시설 또한 호황을 누리고 있다. 국가정원과 연결된 동천을 따라 새로운 주택지가 속속 개발되고 있고, 국가정원 인근에는 순천만잡월드와 순천만가든마켓이 개장되어 새로운 볼거리와 먹거리를 창출하고 있다.

순천만국가정원 인근 연향뜰에는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NHN 공공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e스포츠 상설경기장 등 4차산업혁명 체험클러스터 단지, 숙박시설 등 새로운 지역 거점 랜드마크가 계획되거나 진행되고 있다.

연간 순천시 담배소비세와 맞먹는 새로운 재정수입을 창출한다.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6개월 동안 관람객 440만명, 입장료 수입 401억 원을 포함하여 총 516억 원의 수익을 올렸다. 운영비를 제외한 잉여 수익금 205억 원을 순천시 일반회계 세입으로 편입시킨 성공적 흑자 박람회였다.

순천만국가정원은 미래세대를 위한 순천시의 자산이라고 할 수 있다. 기후변화 위기 대처 및 탄소중립을 요구하는 시대의 트렌드를 선점하며 대한민국 정원문화를 선도하고 있다. 시민의 건강한 일상과 삶을 풍족하게 만들어 주는 국가정원은 그 자체만으로도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무가치(無價之寶)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할 것이다.

전남 동부지역의 핵심 지역거점 기반시설로 성장한다.

지난 10월 행정안전부는 날로 심각해지는 지역의 인구감소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을 지정 발표하였다. 전국 89개 시·군·구가 이번에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됐고, 전남은 22개 시·군 중 16개 군지역이 포함되었다. 이번에 포함되지 않은 6개 시·군 중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하는 시·군은 그나마 순천시, 나주시, 무안군 3개 자치단체에 불과하다. 2010년 순천시 인구는 272,620명이었고 10년이 지난 2020년 말 순천시 인구는 282,189명으로 10년 전에 비해 1만 1천(9,569명) 가까이 증가하였고 광주, 전주에 이은 호남 3대 도시로 등극하였다.

순천시는 인구가 증가할 만한 특별한 요인이 없음에도 왜 매년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것일까? 답은 정주여건 개선이라고 할 수 있다.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최로 순천시의 정주여건은 전국적인 주목을 받게 되었다. 풍부한 문화유산에다 사통팔달의 철도와 도로 교통망, 교육과 문화 도시를 표방하면서 거기에 더해 깨끗한 자연환경과 살기 좋은 생활환경을 인위적으로 선점하고 조성했기 때문이다.

순천시는 생태가 밥먹여 준다라는 철학을 가지고 있는 도시다. 순천만국가정원은 순천시가 표방하는 비전과 가치의 핵심 아이콘이다. 2013년에 개장한 국가정원을 중심으로 새로운 도심축이 형성되고 있다. 서울에서도 숲세권이나 역세권이 집값의 상승을 주도하듯 순천에서는 국가정원을 중심으로 새로운 '정원권' 도심축이 형성되고 있다.

미분양 상태였던 국가정원 인근 오천택지가 2013년 박람회 개최 후 전부 분양 완료되었고, 이 축을 따라 신대지구 신도심개발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으며, 연향3지구 및 시내

개최 이후에도 전국적 관광명소로 부상하면서 순천시 재정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순천만국가정원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7년 동안 순천만습지와 연계하여 입장료 수입 등 867억 원에 달하는 세외수입을 창출하였다. 입장료 등 수입이 늘어나면서 순천시의 경성적 세외수입도 대폭 증가했는데 이러한 세외수입 증가 노력 덕분에 보통교부세 인센티브 319억 원도 추가로 확보했다. 7년 동안 새로 창출한 재정수입 규모는 약 1,186억 원으로 국가정원 조성사업비 1,064억 원에 초과한 새로운 재정수입을 창출했다. 연평균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169억 원인데 이는 순천시민이 2020년 1년간 소비한 담배소비세 172억 원과 맞먹는 금액이다.

국가정원에서 발생하는 재정수입은 순천시민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외지 관광객이 방문하면서 얻는 수익이었는데 의미가 있다. 2013국제정원박람회 개최 이전 연 30억 원대 수준에 머물렀던 순천시 관광지 입장료 수입이 2017년 최고 154억 원까지 증가하였고 경성적 세외수입의 38.8%를 점유했다. 이는 박람회 개최 영향으로 순천시가 명실상부한 관광의 도시 반열에 올랐음을 알 수 있다.

지방세 세수 측면에서도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최 이후 각종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신규 택지 공급, 아파트 분양, 건축물 신축 등이 대폭 늘어 취득세 세입도 2013년 518억 원에서 2020년 1,077억 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시민의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재산세는 2013년 242억 원에서 2020년 360억 원으로 연평균 6.96% 성장하였다. 취득세 등 도세 세수 일부는 다시 시·군 조정교부금으로 교부되어 2013년 208억 원이던 전남도 교부액이 2020년 341억 원으로 증가하였다.

순천시 관계자는 “순천만국가정원은 순천시 재정수입 증대에 기여하는 1등 공신이자, 새로운 부가가치를 지속적으로 창출해 내는 지역경제의 보물창고”라며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면 다시 한번 순천이 전국적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조기석/기자

## “2040 광주 도시경관 이렇게 만들어요”



광주광역시 2040 광주 경관계획 시민참여단으로부터 광주 도시경관의 미래비전이 담긴 시민제안서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시민참여단은 도시경관의 주인인 시민이 직접 참여해 함께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도시경관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8월 공개모집을 통해 관련 전문가 참여 없이 순수한 시민 103명으로 구성됐다.

시민제안서는 ▲시민들과 함께 고민해서 만들어 나가는 경관계획, 경관심의, 경관사업, 경관협정! ▲과거와 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광주다운 도시경관을 만들어간다 ▲비전이 있는 미래지향형 도시경관 랜드마크를 만들어간다 ▲획일적인 층수제한은 그만! 디자인적으로 우수하고 품격 있는 특별한 건축물을 만들어간다 ▲도심의 상업지역은 상업지역답게, 주거지역은 주거지역답게, 용도에 맞는 다양한 도시경관을 만들어간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문화와 예술이 넘쳐흐르고 젊음이 가득한 구시가지 특화경관을 조성해나간다 ▲아름다운 산과 공원을 누구나 가까이서 보고, 즐길 수 있는 지속가능한 도시로 만들어간다 ▲도심을 가로지르는 수변경관을 받고 쾌적한 시민의 공간으로 바꾸어 나간다 ▲어디든 쉽고 편하게 걸을 수 있고, 머물 수 있는 가로경관을 만들어간다 ▲빛과 밤이 조화로운 야경을 즐길 수 있는 감성도시를 만들어간다는 전문을 담았다.

광주시는 전달받은 시민제안서를 바탕으로 오는 2023년 1월까지 2040 광주 도시경관계획 수립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상배 시 도시재생국장은 “광주시 도시경관의 과제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놀라울 정도로 잘 담아내고 있는 수준 높은 제안으로, 시민참여단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우리시의 도시경관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생각을 나눠 주신 시민 여러분의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제안내용을 2040 광주 도시경관계획에 성실하게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덕윤/기자



area

호남II

문화매일

2021년 12월 17일 금요일

11

## 임실치즈테마파크, 동화 속 산타 마을로 대변신

### 아이들 위한 즐거운 볼거리 풍성, 화려한 야간경관 내년 2월까지 운영



겨울철 특색있는 있는 볼거리 제공을 위해 대형트리를 비롯 포인세티아, 산타와 친구들 등 겨울 경관을 조성하고 있다.

군은 임실을 사계절 관광명소로 마련하기 위해 봄에는 장미, 여름에는 아쿠아페스티벌, 가을에는 임실N치즈축제, 겨울에는 산타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경관 조성은 코로나로 지친 사람들을 위로하고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비대면 안심 관광지에 색다른 볼거리와 겨울철 특색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또한 전라북도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임실치즈테마파크 야간경관조명사업은 임실군이 폐류형 관광지로의 도약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연구소에서 지정환출에 이르는 300m 구간 진입로면 가로수에 불장식·우산·선물상자 모양의 LED 장식을 비롯해, 판매장에서 러블리가든 구간에 전사조형물, LED 파노라마 설치, 볼 조형 장식 터널을 설치하였다.

그 외 LED 불 아치 장식, 초대형

객들이 안전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심 민 군수는“겨울에도 가족과 함께 안심하고 방문할 수 있는 볼거리가 풍부한 임실을 만들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며“코로나로 힘든 사람들에게 동화 같은 경관이 심신을 위로하고 재충전하는 산타의 선물 같은 공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최하은기자

## “떡보와 털보가 왔다간 곳이 어디예요?” 넷플릭스 인기로 고창군 인지도 UP

최근 넷플릭스와 케이블채널이 고창을 배경으로 여행콘텐츠를 제작·방영하면서 고창군에 촬영장소를 묻는 등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다.

16일 세계적인 엔터테인먼트 스트리밍 서비스 넷플릭스(Netflix)는 ‘떡보와 털보’에서 전 세계 시청자들에게 뜨거운 반응을 얻은 명장면 BEST3를 공개했다.

이 중 1위로 ‘말과 함께 고창 명사십리 일몰 라이딩’이 꼽혔다. 고창에 간 떡보 비와 털보 노홍철이 말과 함께 일몰이 지는 명사십리를 달리는 장면이다.

서해의 아름다운 일몰 속에서, 노을을 배경으로 라이딩하는 두 사람의 모습은 시청자들의 눈을 사로잡았다.

특히 털보 노홍철이 라이딩 하는 내내 “이건 꿈이야!”, “꿈이야 생시야!”라고 연신 감탄했던 고창의 명사십리는 제작발표회에서도 가장 기

억에 남는 순간이라고 언급할 정도였다.

‘떡보와 털보’ 고창편은 고창읍성과 한옥마을, 할매바위 클라이밍, 병바위, 선운사, 상하농원, 학원농장, 만돌곶별채점장 등의 아름다운 봄 풍경이 담겼다.

또 최근 케이블방송(E채널\_토요일은 밤이 좋아)에서 고창8味(백합정식, 된장 샤브샤브, 참계장, 민물새우탕, 풍천장어구이, 오도독뼈살, 꼬리곰탕, 이탈리아 레스토랑)가 소개되며 군정에 촬영장소를 문의하는 전화가 이어지기도 했다.

고창군 관계자는 “이제 고창은 스쳐 지나가는 관광지에서 벗어나 맛보고, 체험하고 머물며 한반도 첫수도의 매력을 즐기는 여행지로 변모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이후 밀려들 전세계 관광객들을 맞이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현태기자



## 남원시, 사회복지 공무원 통합사례관리사업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역량강화 교육

남원시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읍면동 사례관리사업 실무자 50여명을 대상으로 사례관리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글쓰기 전문가 강사 ‘구슬깨는실 대표’ 김세진 소장을 초청하여 사회복지 돌봄 현장의 다양한 상담사례를 제대로 기록하고 복지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에 대한 강의로 이루어졌다.

교육의 주요 내용으로는 생태계 관점으로 보는 사례, 사례과파 및 슈퍼일지작성 등 현장 활동을 직접 기록·작성하는 학습으로 구성되었으며 지역의 관심을 도모하고 공감 능

력향상과 소통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도 제시되었다.

교육에 참여한 실무자는 “유형별 사례관리에 대한 이해, 실천방법 등 실무에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주민복지과장(조환익)은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복지 현장의 변화에 대응을 위한 실천 가능한 기술을 습득·적용하고 전문성 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사례관리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남출기자

## 전주시, '방역이 최우선' 전 간부 긴급회의

전주시가 대시민 서비스 최일선에 있는 35개 동 동장들을 소집해 코로나19 긴급 방역대책을 논의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15일 시청 강당에서 35개 동 동장들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들을 소집해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른 비상 확대 간부회의를 열었다.

전날 대시민 담화문을 통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방역수칙 준수 동참을 호소한 김승수 시장은 이날 시민들의 접점에 있는 동 주민센터의 방역대책 대응을 주문하기 위해 긴급하게 회의를 개최했다.

김 시장은 이 자리에서 식당, 카페, PC방, 노래방 등 1만5000여 개소에 대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점검에 임해줄 것을 주문했으며, 수기명부 단독사용 관련 계도기간이 19일까지 연장되고 20일부터 본격 적용된다 등의 방역수칙 관련 내용을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한 만큼 시민들이 연말 사적모임 등 다중이용 시설 이용을 자제할 수 있도록 하고, 60세 이상 고령자는 물론 청년층의 백신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유관기관 관계자와 자생단체 회원들을 중심으로 홍보에 주력해 달라고 했다.

김 시장은 이날 0시부터 별도 해제시까지 1700여 개소의 공공시설 운영이 중단되고 다중이 참여하는 대면행사도 전면 금지된다는 사항도 다시 한 번 공유했다.

전주시 직원들에게도 향후 2주간 사적모임과 타 시·군 이동을 자제하는 등 공직자로서 솔선수범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시는 위중증 환자 전담 병원을 전북대병원과 예수병원, 원광대병원 3개소에서 대자인병원까지 4개소로 확대하고 138개 병상을 추가로 확보했다. 선별진료소의 경우에도 근무인력을 추가로 배치해 시민들이 원활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으며, 재택치료전담반을 확대하고 응급 이송체계를 강화해 재택에서 치료받는 환자들이 불편함 없이 안심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델타 바이러스보다 4배에서 최대 6배 이상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까지 발생한 상황에서 지금 당장 확산세를 막지 못하면 더 큰 피해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다”면서 “전주시 공직자 모두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방역망 구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일기자



## 김제시, 새만금 지역발전과 행정구역 결정 전문가 정책포럼 개최

### 새만금 합리적 행정구역 관리방안 제언 및 관할권 신청 법적권리 보장 필요성 제기

김제시는 새만금공동발전범시민위원회와 한국지역개발학회 공동으로 지난 15일 시청 대강당에서 김영자 김제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새법위 위원, 관내 사회단체장 및 시민, 새만금개발청 및 인근 지자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새만금 지역발전과 행정구역 결정 전문가 정책포럼’을 실시하였다.

금번 전문가 정책포럼은 새만금 행정구역 결정을 위한 사회적·정치적·행정적 문제해결 방향을 모색하고 새만금지역 행정체계 개편과 관련한 정부와 지자체, 지자체간, 지자체와 주민의 갈등 해소를 위한 사회적 공론화를 위해 추진되었다.

첫 발제에 나선 양광식 순천향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새만금의 미래와 합리적 행정구역 관리방안’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행정구역 관리의 원칙과 타지역 관리사례를 소개하고 새만금 행정구역 관리방안에 대해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였

다.

지자체 자율성에 기반하여 지역이 주도하는 행정구역 관리체계 마련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주민투표 등 법적 절차 준수가 필요하고 이를 위한 주민 참여형 논의와 의사결정 시스템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특히, 새만금으로 인한 환경피해, 행정구역 지자체간 갈등, 개발 지연으로 인한 주민 실망감 등 새만금 지역에 축적된 인내자본을 고려한 협력적 행정구역 관리방안을 강조한 부분은 참석자들의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이어서 조성규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새만금 동서도로의 관할권 법적 검토’라는 발제에서 공유수면 매립은 막대한 사업비와 장기간이 소요되고 국가 전체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등 공유수면 경계를 매립지의 종전 경계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헌법재판소

의 판결 소개와 함께 대법원의 새만금 방조제 행정구역 결정은 새만금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전체 구도를 제시하였음에도 매립지마다 행정구역 결정해야하는 지방자치법문의 형식적 해석에 얽매어 완공여부를 결정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을 제기하였다.

한편, 김제시의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결정 신청은 지자체의 법적 권리이며 측량성과도 등 타기관의 협조를 필요로 하는 규정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권재 새만금공동발전범시민위원회 위원장은 “새만금 행정구역 관할권은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만경강과 동진강의 흐름에 따라 3개 시군에 각각 귀속되고 새만금 개발은 개발대로 속도를 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새만금 지역의 합리적인 행정구역 방안이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현태기자

## 익산시, XR융합 생태계구축..신사업 메카로 급부상

익산시는 국내 최고의 XR 기업들의 소재, 부품, 장비기업 등 한자리에 모여 산업간 융합 생태계 구축해 XR(확장현실)산업 선도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다.

시는 15일 XR(확장현실) 소재·부품·장비 산업분야 지원센터인 ‘XR 소재·부품·장비 개발지원센터’개소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개소식은 전담 기관인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전라북도, 익산시, 사업 수행기관 및 XR 관련 기업인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XR(eXtended Reality)산업은 홀로그램,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을 포괄하는 기술로, 부가가치 유발효과와 미래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유망한 미래 분야이다.

지원센터는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을 아우르는 혼합현실(MR) 기술을 망라해 교육은 물론 헬스케어, 제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현실과 가상의 세계를 허물고 있는 실감콘텐츠의 소재·부품 산업생태계를 마련하고 경쟁력 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구축됐다.

지난 4월 공모에 선정돼 국비 48억원 등 총사업비 83여억원을 확보해 익산역과 접근성이 뛰어난 익산시 창인동 SK빌딩 3층과 산학 연계기반이 마련된 원광대학교 내 건물에 자리잡았다.



전북테크노파크(전북디지털융합센터)가 주관하고 원광대학교, 한국화학연구원, 전라북도콘텐츠융합진흥원이 참여한 컨소시엄이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XR 소재·부품 분야 테스트 지원을 위한 장비실, 홍보 및 제품전시실, 기업지원실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입주공간은 원광대학교에 별도의 시설을 구축해 운영할 계획이다.

지원센터는 전국 XR 산업 관련 기업체의 제품성능평가 컨설팅, 기업 간 비즈니스 매칭, XR 관련 시장동향 및 기술정보 제공, 기술교류회를 통한 네트워킹의 장 마련 등의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앞으로는 기업의 제품 생산성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한 시제품 제작 지원 및 국내외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지원, 홍보물 제작, 광고지원, 시뮬·인증·특허 바우처 지원 등 기업의 제품,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사업화 지원 등의 다양한 기업지원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정현을 시장은 “익산시는 홀로그램뿐만 아니라 확장 현실 산업 선도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홀로그램 콘텐츠 서비스센터’와 ‘XR 소재·부품·장비 개발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산업생태계 구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선수기자

## 임실군, 끊이지 않는 애향장학금 기탁의 훈훈한 소식



임실군은 2021년 신축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에 지역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애향장학금 기탁의 뜻깊은 마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재)임실군애향장학회에 따르면 지난 15일 전주마디클리닉 이상훈(관촌중 10회 졸업생) 원장, 오수면 신기마을 김명희·이봉임 부부, 한국국토정보공사 임실순창지사 박민철 지사장이 임실군을 방문해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애향장학금을 기탁했다.

먼저 관촌면 출신인 이상훈 전주마디클리닉 원장은 올해 6월 관촌중 10회 졸업생들과 함께 고향 후학 양성을 위한 장학금 기탁을 시작으로 올해 두 번째의 장학금 5백만을 기탁하였다.

이상훈 원장은 “어릴적 소중한 추억과 현재 나의 모습을 펼칠 수 있었던 자양분을 준 고향의 후배들이 앞으로 더욱 큰 꿈을 가지고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고향 후배들에게 전해주고 싶다”고 전했다.

한편 이상훈 원장이 운영하는 전주마디클리닉은 척추관절통증클리닉 전문병원으로 고향 어르신 무료 진료 등 봉사활동을 진행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고향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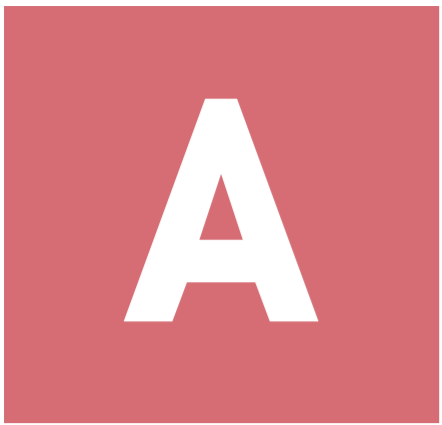
또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백만원의 장학금을 기탁한 오수면 신기마을 김명희·이봉임 부부는 “지난해 처음 지역인재 양성에 마음을 보태면서 삶의 활력과 보람을 가지게 됐고, 적은 돈이지만 어려운 환경에서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학생들에게 뜻깊게 사용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 임실순창지사 직원들이 심심일만 정성을 모아 지역의 참된 일꾼을 키우는 데 힘을 보태기 위해 애향장학금 2백만을 기탁했다.

박민철 지사장은 “지역주민들에 먼저 다가가는 다양한 지적 민원의 신속한 해결과 주민과 함께하는 참된 공공기업으로서 모습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보여 드리겠다”고 전했다.

심 민 군수는 “코로나19로 모든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임실군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많은 분이 도움을 주셔서 감사하다”며 “모든 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 임실 미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인재 양성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최하은기자



## area 강원/충청

12 문화매일 2021년 12월 17일 금요일

### 충주시, 2021년 어도 개보수사업 완료

충주시의 원활한 어류이동을 위한 2021년 어도 개보수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충주시는 지난 2019년부터 하천 보에 설치된 어도 약 40개소 중 노후되거나 파손되어 어류이동을 방해하고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곳에 대한 개보수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어도 개보수사업은 농어촌공사 충주·제천·단양지사의 공기관대행사업으로서 충주에서는 2019년에는 요도천 101어도(주덕읍 당우리), 2020년에는 양성천 용대어도 1(양성면 용대리), 요도천 009어도 1(주덕읍 장록리), 요도천 008어도 1(주덕읍 당우리), 요도천 011어도 1(주덕읍 제내리), 석문동천 007어도 1(살미면 문강리) 등을 개보수했다.

이어 2021년에는 요도천 007어도 1(주덕읍 당우리)를 보수하며 총 7개소에 대한 보수를 완료했다.

개보수에 소요된 사업비는 1개소당 1억2천5백만 원으로 총 8억7천5백만 원이 투입됐다.

시는 어도 개보수를 통해 붕어, 피라미류 등 7과 19종의 다양한 물고기들이 상류와 하류를 이동하며 서식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농어촌공사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요도천의 어도 상하류를 오르내리는 물고기는 붕어, 피라미, 잉어, 버들치, 뱀장어, 참붕어, 참마름, 납자루, 가시납자루, 참붕어, 긴볼개, 참마자, 모래무지, 미꾸리, 메기, 동자개, 배스, 블루길, 얼룩동사리, 밀어 등이며, 어도 개보수가 완료되면 더 많은 물고기들이 출현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방하천과 소하천의 농업용 보에 설치된 어도 개보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보로 인해 단절된 물고기의 이동통로를 원활하게 할 것”이라며 “어류 다양성을 확보해 건강한 하천 생태계가 유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원호기자

### “강원한우”카카오 커머스'와 함께 MZ세대 공략 나선다.

강원도 광역한우브랜드인 “강원한우”가 카카오 커머스와 카카오 쇼핑선물하기 신규 입점계약을 체결하고 12월 15일부터 온라인 판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카카오 쇼핑선물하기 신규 입점 품목은 최저 32,000원부터 최고 168,000원까지의 가격대로 각종 기념일과 휴일, 1인소비, 친구에게 선물하기 등 테마별 총 10종의 선물세트로 구성되어 최근 변화하고 있는 소비트렌드를 반영하였다.

또한, 일부품목은 정상가대비 최대 20% 할인 판매해 MZ세대들을 위해 부담은 줄이고 품격은 높이는 선물을 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강원한우는 2016년 출범 이후 대형 유통업체 판로확대를 지속 추진하면서 지역 내·외, 온·오프라인 판매망 구축을 통해 연매출 1천억원을 달성하는 한편 전국 축산물 브랜드 경진대회대통령상 수상 등 외형 성장과 경영안정의 내실을 다지며 강원도 대표 한우브랜드로 입지를 굳히고 있다.

강원도 농정국 관계자는 “강원한우가 국내 최대 커머스 기업인 카카오 커머스의 대표 쇼핑플랫폼 입점을 통해 앞으로도 대형유통업체와 협력하여 강원도 축산물 브랜드의 우수성을 알리고 코로나19로 빠르게 변화하는 한우 소비시장에 대응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등원기자

## 정선군, 대중교통 시책평가 우수 지자체 선정

정선군은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2021년 대중교통 시책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기관 표창을 받았다.

“대중교통 시책평가”는 전국 161개 특별·광역시·군을 대상으로 대중교통시책의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대중교통 계획과 시책 수립을 유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2년마다 실시하는 평가다.

이번 평가에서 정선군은 인구규모와 도시철도 유무에 따라 분류된 5개 그룹 중 가장 많은 77개 지자체가 포함된 E그룹에서 우수 시책 지자체로 선정됐다.

군은 지난해 7월부터 국내 내륙 지역 최초로 버스 완전공영제 시행을 시작으로 고령화 사회라는 인식 하에 교통약자를 중심으로 버스 노선도 개편, 버스 서비스 모니터링 실시, 광역정보시스템(BIS)를 통한 지속적 관리, 공영버스 차고지를 신설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군에서는 어르신과 장애인의 교통약자 편의 증진을 위해 고한·사북 간선 등 2개 노선에 친환경 저

상전기 와와버스를 운행하고 있으며, 추가로 구입하는 버스는 친환경 저상전기버스를 도입할 계획이다.

군은 버스 이용객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쾌적한 환경속에서 버스를 기다릴 수 있도록 정선5일장 등 이용율이 높은 지역에 냉난방기와 온열의자, LED광고판 등을 갖춘 스마트 버스 승강장 확충에 나섰다.

또한 10억원의 예산으로 승강장 신규 설치와 개보수에 나서고, 버스시간표 밀티상황판과 버스정류장도 함께 정비에 나서고 있다.

정선군 공영버스의인 와와버스는 65세이상 어르신과 초·중·고학생,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은 무료로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그 외 주민과 관광객도 1,000원만 내면 정선군 관내를 어디든 와와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김영환 안전과장은 교통약자의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 전기저상버스를 지속적으로 도입하는 등 버스공영제 정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조혜영기자



## 강원 영동지역 최초 공공지식산업센터 강릉 공공지식산업센터 건립

강원도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2022년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대상지로 강릉시가 선정돼 국비 160억 원을 지원받아 강릉시와 함께 총사업비 250억 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비수도권 지역에 임대 전용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여, 지속적인 공장용지 가격 상승 및 각종 규제에 따른 중소기업의 입지 애로를 해소하고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2012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강원도에서는 원주, 춘천에 이어 세 번째로 선정되었다.

내년에 설계비로 국비 10억 원을 우선 지원받아 2025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며, 과학일반산업단지 내 7,964㎡의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14,818㎡ 규모로 건립되고, 1층에는 입주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시설이, 2층~5층에는 총 60여개의 기업이 입주하여 300여명의 고용창출이 예상된다.

안권용 강원도 글로벌투자통상국장은 “강릉 공공지식산업센터가 들어서면 과학일반산업단지인 해양바이오, 신소재, 세라믹 등 전략산업기반이 구축되었으며, 현재 100% 분양이 완료되어 추가 입주를 원하는 기업들의 요구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공공지식산업센터 건립을 통하여 세라믹 산업 집적화 및 거점지역으로서의 도약기회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이동원기자



## 천안시, 국토부 주관 민간전문가 운영 공모사업 선정

천안시가 국토교통부 주관 ‘민간전문가 운영 및 공간환경전략계획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8,000만 원을 확보했다.

민간전문가 및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 지원사업은 지자체 공공사업에 민간전문가 참여를 독려해 전문성과 고품격 디자인 접목 및 공공지 중심 계획으로 발생하는 사용자 불편이나 도시미관 저해를 극복하고 공간환경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국토부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1차 서면심사와 2차 발표심사 등을 거쳐 천안시를 포함한 8개 신규 지자체를 최종 선정했다.

민간전문가 지원사업은 총괄·공공건축가의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8,000만 원 등으로 민간전문가 제도를 활성화해 공공건축(공간환경) 통합관리·건축기획의 전문성 강화 및 디자인 개선을 추진한다.

시는 올해부터 총괄·공공건축가 제도를 본격 시행하면서 공공건축(공간환경) 사업을 위해 공공건축가 건축기획, 기술자문 등을 적극적으로 진행했다.

최정근기자

## 충남 해양환경 정책, 이번엔 ‘전국 1위’ 우뚝

### 장보고대상 대통령상

### 영예...해양쓰레기 관리

### 선도 정책 등 인정받아

세계 최고 공공행정 서비스로 인정받으며 최근 UN 공공행정상을 거머쥔 충남도의 해양환경 정책이 국내에서도 최정상에 올랐다.

도는 15일 정부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해양수산부 주최, 한국해양재단·내일신문사 주관으로 열린 ‘제15회 장보고대상’ 시상식에서 대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장보고대상은 해수부가 해양환경 보건의 해양 개척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해양수산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거둔 개인이나 기관·단체를 선정해 주는 상으로 2006년 제정됐다.

올해 수상 개인 및 기관·단체는 5월 21일부터 9월 7일까지 국민 공모와 전문가 추천을 통해 후보자를 우선 뽑은 뒤, 공개 검증, 예비 심사 및 본 심사, 국민 온라인 투표 등을 거

쳐 최종 선정했다.

대통령상을 받은 도와 함께 수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개인 및 기관·단체로는 ▲황상석 장보고한상 명예의전당 관장(국무총리상) ▲KIOST 연구선 이사부호(해양수산부장관상) ▲허옥희 아그네스수산대표(국회 농해수위원장상) ▲한국해양진흥공사(내일신문 사장상) ▲한국해양전략연구소(한국해양재단 이사장상) 등이다.

도의 이번 수상은 ‘깨끗한 해양환경 만들기 종합대책’ 추진을 통해 우리나라 해양쓰레기 관리 정책을 선도한 점을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깨끗한 해양환경 만들기는 각종 쓰레기로 멍들고 있는 바다를 되살리기 위해 도가 중점 추진 중인 사업이다.

이 사업은 ▲발생 예방 ▲수거·보관 ▲운반·처리 등의 단계로 구분, 2024년까지 5년 동안 22개 사업에 643억 5100만 원을 투입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도는 깨끗한 해양환경 만들기로서 지난 13일 두바이에서 열린 ‘UN 공공행정상’ 시상식에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효율성 달성’ 부문 UN 공공

행정상을 수상한 바 있다.

UN 공공행정상은 ‘공공행정 노벨상’으로 불리는, 공공행정 분야 세계 최고 권위의 상이다.

도는 또 ‘한국의 깃발(서천깃발)’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 기여, 해수욕장 방역·안전관리 우수사례 확산 등 해양수산 분야에서 각종 성과를 창출한 점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날 시상식에 참석한 이필영 도 행정부지사는 “충남은 1242km에 달하는 해안선과 33개의 해수욕장을 보유한 대한민국의 중심”이라며 “미래를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해양수산 발전이 필요하며, 이는 깨끗한 해양환경 보전이 선행돼야 한다는 인식에 따라 깨끗한 해양환경 만들기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부지사는 이어 “이번 수상은 220만 충남도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동참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며 “앞으로도 우리 도는 깨끗한 바다를 만들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정근기자

## 태백시, 강원도 민원행정분야 종합평가 2년연속 최우수기관 선정

태백시는 2021년 강원도 18개 시·군대상 민원행정분야 종합평가에서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시는 민원행정서비스개선 노력, 민원행정제도 운영 및 활동 등 2021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의 민원업무 전반에 대해 강원도로부터 민원행정업무 종합평가를 받았다.

주요 평가항목은 2개 분야, 8개 항목으로 민원처리의 적정성(민원처리기간 준수), 적극행정 민원처리 우수사례 발굴 및 발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실적, 사회적약자

를 위한 민원서비스환경 조성, 민원행정제도 수립 시행, 민원편람 비치 및 정비, 민원심사관 지정·운영, 민원행정제도 운영(민원조정위원회, 민원1회방문상담, 민원후견인제, 사전심사청구제 운영실적)이다.

시는 그간 행정안전부와 강원도의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추진 지침에 따라 자체 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고 민원인을 배려하는 민원서비스 환경을 조성하며 민원 친절방안에 대해 논의를 하는 등 고객 만족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또한, 민원이 지연 처리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월별 민원처리상황을 점검하고 민원불편 해소를 위한 선제적 관리 민원서비스 개선, 민원공무원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힐링 캠프 운영,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운영 등 다양한 시책과 제도개선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등 전 분야에 걸쳐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평가 결과는 신속한 민원서비스 제공에 기여한 민원담당 공무원들의 노력의 결실”이라며 “내년에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시민 맞춤형 민원 시책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세나기자

## 옥천군, 공무원 노사문화 인증 우수행정기관 대통령 표창 수상

옥천군은 합리적인 노사문화를 선도한 기초자치단체로 인정받아 2021년도 공무원 노사문화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군은 15일 행정안전부가 개최한 ‘2021년 공무원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 시상식’에서 대통령 기관표창과 함께 노사 문화 우수기관 인증서와 포상금 6백만원을 인센티브를 얻게 되었다.

옥천군공무원노조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속으로, 노조가입률은 94.3%이다. 이번 대통령 표창 수상은 도내 기초자치단체로 최초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은 것이다.

또한 지난 10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본부에서 실시한 도내 9개 지자체장 대상 조합원 인식조사에서 옥천군은 8개 항목에 대해 전체 평균 96.4%가 보통 이상의 ‘긍정’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김재중 옥천군수는 “노사가 균형을 맞추어 서로 존중하고 힘과 지혜를 모을 때 조직은 더 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는 신념을 바탕으로 더 좋은 옥천, 군민이 행복한 옥천”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옥천군공무원노조 고운하 지부장은 ‘건전노사관계 구축’ 공

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개인 표창의 영광도 얻었다.

고운하 지부장은 “하나 된 노사문화 정착은 혼자 할 수 있는 결과가 아니며, 모든 조합원이 노력한 결과로 조합원들과 대통령상 수상을 함께하고 싶다”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고정화기자

## 단양군 확~바뀐 매포 도심, '매화향기 중심가로 조성사업' 주민 호평!

매화향기 중심가로 조성사업의 준공을 앞둔 단양 매포 도심이 눈에 띄게 정돈돼 주민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

2019년 11월 충북형 ‘농시(農市)’ 사업 1단계에 선정된 단양군은 매포읍 도시를 깨끗하게 정비해 주민과 방문객에게 안전한 통행 여건을 제공하는 ‘매화향기 중심가로 조성사업’을 올해 1월 착수했다.

20억을 들여 시가지의 협소하고 불편했던 기존 인도 구간을 확장하고 경사를 완만하게 정비했으며, 인도 및 가로수(L=450m) 정비와 스마트 가로등(24개소) 설치, 차도 블록(평동리 농협사거리~회전교차로) 시공 등을 완료했다.

더욱이 이번 사업은 뒤죽박죽 엉킨 전선들로 도시미관을 저해했던 전선주와 가로선을 정비하는 ‘매포읍 전선 지중화 사업’과 연계 추진

돼 시가지 경관개선 효과가 뛰어나 주민 만족도가 매우 큰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지난해 3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매포읍 전선 지중화 사업을 추진했으며, 매포지구대부터 효자가까지 550m 구간 케이블 포설 및 전주 철거를 실시했다.

군은 이번 사업으로 기존 아스팔트 도로에 차도 블록을 새로이 설치해 매년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시가지의 열섬 현상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계절 아름다운 야경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하는 군은 사업 구간 10곳에 은하수, 버블볼 등 경관조명 설치 공사를 끝으로 올 연말까지 사업을 준공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매화향기 중심가로 조성사업과 매포읍 전선 지중화 사업 간 연계를 통해 매포읍 도곡삼거

리~회전교차로 구간 주민들의 보행 환경이 크게 개선됐다”며 “활력있는 도심 거리 조성을 위한 시설 확충 및 정비를 위한 효과적인 연계사업 추진에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경기도의회 오명근 의원, '2021 서울평화문화대상' 수상 영예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명근 도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4)은 지난 10일 서울 KNK디지털타워에서 열린 '2021 서울평화문화대상 시상식'에서 '지방자치의정부'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서울평화문화대상은 서울평화문화정책연구소가 주최하는 의정·자치단체장·행정·사회공헌·방송예술문화·유수기자 등 분야별로 선정해 시상하는 권위있는 상으로 알려져 있다.

이날 수상의 영광을 차지한 오명근 도의원은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평소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하여 직접 현장을 찾아가 올바른 대안을 제시하고, 소외계층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 마련에 심혈을 기울여왔다.

또한, 오 의원은 평소 근면하고 부지런한 의정활동 행보를 이어가며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며 도민의 복리 증진과 경기도 발전에 기여하였고,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하게 되었다.

수상 후 오명근 의원은 "큰 상을 받게 되어 영광스러우면서도 어깨가 무겁다"며 "앞으로도 도민들과 소통하며 경기도와 평택시 발전을 위해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조혜영/기자



청도군, 2021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 국무총리표창 수상

청도군이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2021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에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은 자원봉사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공적이 있는 자원봉사기관 등을 발굴하여 12월 5일 자원봉사자의 날에 포상하는 상으로, 올해는 코로나19 대응 등 각종 재난·재해 수습에 공헌한 유공자를 중점 발굴했으며, 청도군은 코로나19의 신속한 대응이 전국적으로 모범이 되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군은 지난해 코로나19 첫 집단 감염 발생으로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자원봉사 활동이 제한적으로 운영된 상황에서 일제방역 소독의 날 운영, 코로나19 안전교육 및 홍보, 구호 및 방역용품 지원, 경북형 마스크 제작, 취약계층 물품 지원 등 지역사회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해왔다.

특히, 올해는 75세 이상 어르신 백신접종을 위해 발빠르게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구성·운영했으며, 고령화율이 높은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자원봉사자가 백신접종 어르신을 1:1 전담해 간편하고 안전하게 접종을 마칠 수 있도록 활약했다.

군은 군민의 31%가 넘는 13,027명이 자원봉사자로 등록되어 활발한 자원봉사 활동을 펼친 점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예방 및 방역 활동 등이 높이 평가되어 국무총리 표창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되었고, 이로써 12년 연속 기관표창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두었다.

황영호 청도군 부군수는 "이번 수상은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도 이웃과 지역을 위해 적극적으로 헌신해 온 자원봉사자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고, 언제나 따뜻하고 희망이 넘치는 행복공동체 청도를 만드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정성혁/기자



화성시의회 원유민, 김홍성, 임채덕 의원, 제10회 홍재의정대상 수상

화성시의회 원유민(더불어민주당, 동탄1~동탄3), 김홍성(더불어민주당, 남양.매송.비봉.마도.송산.서신.새솔), 임채덕(국민의힘, 반월.병점1.병점2.진안)의원은 15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10회 홍재의정대상'을 수상했다.

홍재언론인협회는 정조대왕의 정신을 이어받아 정직한 언론을 지향하는 경기지역의 주간, 인터넷신문사 단체로 매년 경기도민의 권익과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한 의원을 엄선하여 홍재의정대상을 수여하고 있다.

원유민 의원은 현재 제8대 후반기 화성시의회 의장의 직책을 맡아 실행 중으로 '의회다운 의회'본연의 역할을 강조하며 국내·외 현안문제 해결 및 촉구를 위한 '화성시의회의 한 목소리'를 전달코자 노력하였다. 시민과의 소통을 중요시하며 안정적으로 우수한 의회 시스템 구축을 위한 노력을 진행 중이다. 또한 모든 해답은 현장에 있다는 모토로 '현장형 의장'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홍성의원은 2010년부터 현재까지 의회운영위원장, 도시건설위원

장 등을 거치며 오랜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제8대 화성시의회 전반기 의장직을 맡아 훌륭히 의회를 이끌었으며, 화성시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입법 활동과 다양한 정책을 건의하는 등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시정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어 임채덕 의원은 제8대 전반기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 '시민을 섬기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으며,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상호간 화합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지역발전의 봉사자로서 민생의 현장에서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여 시민의 뜻을 반영하고자 노력한 공을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원유민 의장은 "앞으로도 화성시의 발전을 위한 작은 밑일이 되겠다는 마음으로 시민의 편에서 시민이 도움이 필요할 때 기댈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과 같은 의회를 만들기 위해 헌신할 것이다"라고 수상소감을 밝혔으며, 김홍성 의원은 "코로나19



로 침체된 지역사회가 살아나고 내년에는 좀 더 희망과 활력이 넘치는 화성시가 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임채덕 의원은 "말은 바 책무를 다 한 것뿐인데 귀한 상을 주

셔서 감사하고 기쁘다.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마음으로 시민들이 실생활에서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양시현/기자

영등포구, ㈜이십일세기소프트로부터 자전거 30대 기부 받아

영등포구는 지난 7일 ㈜이십일세기소프트로부터 아동의 건강한 여가 생활을 위한 자전거 30대(990만 원 상당)를 기부받았다고 밝혔다.

㈜이십일세기소프트는 코로나19로 외부활동이 줄어든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면서 몸과 마음 모두가 건강하게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영등포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나눔을 실천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기부받은 자전거 30대는 영등포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전제해,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의 추천을 받은 저소득가구 아동에게 일괄 배송될 계획이다.

구는 ㈜이십일세기소프트의 기부에 감사를 표하며 영등포구청 복지국장실에서 소규모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성주 대표이사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의 크기, 중량 등을 세심히 살펴 최종 모델을 선정했다"며, "모쪼록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며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건강하고 밝은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길 바란다"는 말을 전했다.

영등포구 이영환 복지국장은 "요

즘 같이 운동하기 좋은 시기에 아이들에게 좋은 선물이 되었을 것"이라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주신 ㈜이십일세기소프트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나눔에 힘입어 저소득가구 아동들을 위한 복지정책을 열심히 꾸려나가겠다"고 전했다.

1999년에 창립한 (주)이십일세기소프트는 소프트웨어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IT 서비스 전문 기업으로, Microsoft, Adobe, Autodesk, 한글과컴퓨터 등 주요 소프트웨어 개발사의 최상위 레벨을 보유한 공인파트너사이다.

주로 고객사를 위한 맞춤 소프트웨어와 솔루션 컨설팅을 제공하고, 전무 엔지니어로 구성된 기술지원센터를 통해 IT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 2018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서울시가 청년이 일하기 좋은 기업을 지원하는 '서울형 강소기업'으로 선정되어, 청년층 일자리 창출과 양질의 근무환경 제공에도 힘쓰고 있다.

김현일/기자



BNK금융그룹,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후원 기부금 전달... 3억 원 기부

부산시는 오늘(15일) 오후 3시, 시청에서 (사)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위원회 주관으로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후원 기업인 BNK금융그룹과 기부금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11월 지역 대표 장수기업 11개사를 시작으로 지역 대표 금융기업인 BNK금융그룹이 이번 후원에 동참함으로써 2030부산세계박람회 성공 유치를 위한 지역 기업의 릴레이 후원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14일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서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경쟁 1차 프레젠테이션 발표를 계기로 2030세계박람회 유치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고, 범시민적 유치 열기 확산을 위하여 홍보 역량을 총결집해 나가는 시기에 지역 기업들의 릴레이 후원을 통한 동참은 향후 유치 활동의 강한 추진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BNK금융그룹은 그룹 차원에서 방 송캠페인, 언론 광고 등 매체를 통한 홍보와 주요 부산은행 지점 건물과 전광판을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열원을 전달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유치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향후 그룹이 보유한 네트워크를 통한 유치 홍보 영역을 확대함으로써 유치 열기를 더욱 고조시킬 예정이다.

김지연 BNK금융그룹 회장은 "2030부산세계박람회는 경제와 문화를 모두 아우르는 초대형 국가행사로, 도시의 지속적인 성장 기틀을 다질 수 있는 기회"라며 "박람회의 성공적인 유치를 통해 부산이 글로벌 도시로 발돋움하는 데 우리 그룹이 함께 할 것"이라며 의지를 나타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후원에 동참해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그룹 차원에서 전개하는 적극적인 유치 홍보 활동이 민관 협력의 밑거름이 되어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성공을 반드시 이끌어내자"라며 결의를 다졌다.

남영명/기자



은수미 성남시장, "성남형교육 확대해 교육 불균형 해소할 것"

은수미 성남시장이 "교육 투자를 확대해 사교육 부담을 해소하고, 학생들이 창의적 미래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은시장은 15일 오후 야탑청소년수련관에서 열린 학생 독서토론회에 참석해 "교육격차와 소득 불평등의 순환고리를 끊는 것이 성남형교육의 목표"라고 말하면서, "사교육 부담 없이 다양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독서토론회에 참여한 학생들은 송림고 인문학동아리 '휴머니티스'의 구성원으로, 2015년부터 성남형교육 'BOOK극성(북극성)'사업의 대표 동아리로 활동 중이다.

학생들은 우리 사회의 차별과 불평등을 다룬 오찬호 작가의 '지금 여기, 무탈한가요?'를 주제 도시로 선정했고, 이어 한 시간가량 학력 격차와 동물 학대, 배달노동자 인권 등에 대해 은시장과 대화를 나눴다.

"우리 사회가 얼마나 공정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은시장은 "공정

의 기준은 개인마다 달라 문제 인식과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운을 띄웠다. 이어 성남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플랫폼노동자 지원'과 '아동학대 공공화사업'을 예로 들며 "우선 작은 것부터 차근차근 바꿔보자는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많은 시민들이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고 있다"면서, 학생들에게 '도전'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동아리 지도교사 김은선씨는 "교사나 학부모가 아닌 기성세대와 책을 주제로 토론하는 자체가 매우 드물고 의미 있는 경험"이라면서, 독서교육에 대한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학생들은 "다음에는 시장님의 추천 도서로 토론을 이어가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 은시장은 "코로나19 방역상황이 개선되면 학교를 찾아 학생들과 함께하겠다"고 화답했다.

성남시는 경기도교육청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교육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환경 개선과 급식지원, 스마트교실 구축 등에 연간 766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특히



2022년 성남형교육사업인 'BOOK극성 독서지원사업'과 '고교학점제'의 정착을 위해 지난해보다 10억원 증

액된 114억원을 편성했다. 이성욱/기자



person 사람&사람

문화매일 13 2021년 12월 17일 금요일

광주시 생활폐기물협회(㈜서울타일) 이웃돕기 성금 기탁

광주시 생활폐기물협회 송경환 협회장과 ㈜서울타일 우중수 대표는 지난 14일 광주시청을 방문해 광주시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각각 1천만원과 300만원을 기탁했다.

송 협회장은 "협회에 속해 있는 7개 업체가 어려운 이웃에게 힘이 되고자 작은 정성을 모았다"고 전했다. 또한, 우 대표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려했으나 일이 커진 것 같아 부끄럽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참여해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고 싶다"고 기부동기를 밝혔다.

이에 대해 신동훈 시장은 "여러분 덕분에 어려운 이웃의 겨울이 따뜻해질 것 같다"며 "기탁 받은 성금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광주시 생활폐기물 협회는 2020년 500만원, 2021년 700만원을 기탁하며 지속적인 나눔 문화에 참여 중이며 ㈜서울타일도 이번 기탁을 계기로 지속적인 나눔 문화에 참여하고자 하는 뜻을 전했다.

박강호/기자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조손가정 어르신 사랑의 연탄 800장 기부

"우리보다 겨울이 더 힘든 이웃을 돕고 싶었다"

자신들도 어려운 처지에 있으면서도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연탄을 기부한 사연이 소개돼 이웃사랑의 훈훈함이 지역사회에 전해지고 있다.

지난 15일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에 거주하고 있는 조손가정의 이모 어르신(89세)은 이웃에 거주하고 계신 홀로 어르신에 연탄 800장을 나누고 싶은데 어떻게 전달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읍 행정복지센터로 연락을 해왔다.

이 소식을 듣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과 각 마을 이장들은 생업으로 바쁜 와중에도 선뜻 시간을 내 모여들었고, 이모 어르신의 연탄 800장을 이웃집으로 나르는 등 뜻깊은 광경을 연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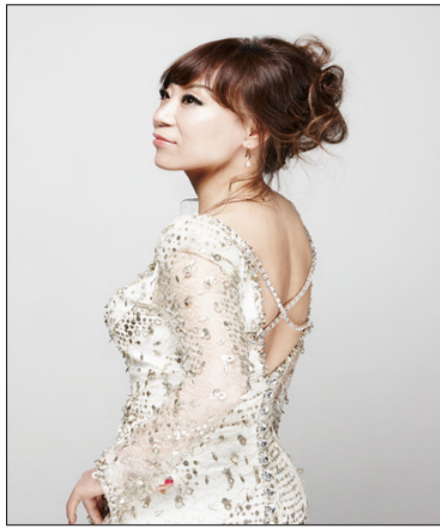
연탄을 받은 어르신은 "갑작스런 한파에 겨울을 어떻게 보내나 걱정이 많았는데 생각지도 못한 도움을 받아 눈물이 앞을 가린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임종관 위원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데 본인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기부자님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했다"며 "협의체도 관내 소외된 이웃을 돕는 일에 더욱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읍 관계자는 "진정한 나눔의 의미를 알려주신 기부자님과 전달 봉사를 도와주신 협의체에도 감사하다"며 "읍에서도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이웃을 더욱 면밀히 살피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조혜영/기자

#### 부산시, 부산오페라하우스 홍보대사에 성악가 조수미 씨 위촉



부산시는 세계적인 성악가 조수미 씨를 부산오페라하우스 홍보대사로 위촉한다고 밝혔다.

위촉식은 오는 18일 오후 5시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진행되는 조수미 씨의 세계무대 데뷔 35주년 기념 공연과 함께 열릴 예정이다. 조수미 씨는 홍보대사 위촉에 따라 부산오페라하우스를 전 세계에 홍보하고, 개관 작품 구성, 지역 성악가 육성과 공연 제작 응용 연구를 비롯한 부산오페라하우스 운영 전반에 대한 자문 역할을 맡는다.

조수미 씨는 선화예술중·고등학교를 다녔으며, 서울대 음악과 재학 중 이탈리아 산타체칠리아 국립음악원을 졸업했다. 1986년 베르디극장 오페라 '리콜레토' 질다역으로 데뷔해, 올해로 세계무대 데뷔 35주년을 맞이했다.

세계 5대 오페라극장에서 주역으로 데뷔한 동양인 최초의 프리마돈나로, 1993년 미국 그라미 어워드(Grammy Awards) 오페라부분 한국인 최초 수상, 그해 최고의 소프라노에게 수여하는 이탈리아 황금기러기상 동양인 최초 수상, 1995년 대한민국 문화훈장 수상, 유네스코(UNESCO) 평화예술인으로서 활동하는 등 세계적인 예술가이자 명실상부 최고의 성악가로서 국내·외에서 인정받으며 활동하고 있다.

또한, 2005년 APEC 성공개최 지원 공로로 부산광역시 명예시민이 되는 등 부산시의 인연도 깊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조수미 씨는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오페라 가수이자 오페라의 아이콘이다"라며, "그 동안 전 세계를 다니며 평창올림픽, 한일월드컵, 아시안게임, APEC 정상회의의 등 국가 중요 행사에 헌신적인 대의 활동을 보여준 만큼, 부산오페라하우스 홍보대사로서도 중요한 역할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오는 18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조수미 씨의 세계무대 데뷔 35주년 이탈리아 대표 실내악 단인 '이 무지치'의 창단 70주년 기념 공연이 개최된다.

조수미 씨의 소속사인 SMI엔터테인먼트(대표 조영준) 관계자는 "조수미 씨는 올해 어느 해보다 다사다난한 해를 보내고 있다"라고 밝혔다. "특히, 세계적인 대유행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 19) 상황 속에서도 크로아티아, 독일, 벨기에 등 세계 주요 도시에서 공연을 성공적으로 개최해, 매해 매년 행렬을 이어오고 있다. 국내 공연 또한 일부 변동이 있지만, 관객들의 성원에 힘입어 남은 공연 일정을 안전하게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남궁영기기자

## 경남도, 기록물관리 기반 조성해 도민의 기록물 활용 돕는다!

### 도 산하 출자·출연기관 기록물관리 대상기관 편입



경상남도는 「경상남도 기록물관리 조례」 제정(2021. 9. 30. 시행) 등 기록물관리 기반 조성으로 도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했다. 또한 향후 처리과 기록물관리 시스템 도입 및 비전자기록물 디지털화로 도민들이 도정기록물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조례에는 도 산하 출자·출연기관을 기록물관리 관할 대상으로 편입해 기록물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였으며 전국에서 최초로 도시사(권한대행과 도시사 당선인 포함) 기록물 대상 명시, 현황제출, 등록 그리고 이관 절차를 조례에 명확하게 정의함으로써 중요 기록물이 안전하게 보존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도에서 자체 개발한 행정정보데이터세트의 경우 관리기준을 작성하여 기록관에 제출하고 해당 데이터를 폐기하는 경우, 기록관과 협의하여 시행하도록 했고 기록물관리심의회의 및 자문위원회 설치로 도 기록물관리가 적법하고 적극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 더하여 7월에 기관 내(출자·출연기관 포함) 기록물관리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기록물관리 문제점을 파악하였으며, 지적된 사항 각 기록물 등의 관리미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처리과 기록물관리 시스템 도입' 예산을(2022년) 확보하였다.

현재 경상남도청은 (비)전자문서 64만 권, 시청각 21만 점 등 총 66만 권(점)의 기록물을 보존하고 있으며 기록물 활용을 위한 비전자기록물 디지털화를 매년 수행하고 있다. 또한 2022년 처리과 기록물관리시스템 도입 후 연차적으로 기록관에 보존 중인 중요기록물을 디지털화하여 도민에게 공개·활용할 계획이다.

박민영 도 인사과장은 "2021년에는 기록물관리 기반을 조성했다면 향후에는 보존된 기록물의 적극적인 활용체계를 구축할 것이며, 도정의 기록물을 온전히 보존하는 일이 역사의 큰 줄기를 만드는 시작점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무거운 책임감으로 도정의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도민에게 신뢰받는 경상남도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광남/대기자

## 강릉시, 지역문화유산 보존에 앞장서다

### 초충도 화첩, 창랑정, 주문1리 서낭당 등 총 3건 대상

강릉시는 지역 내 문화적 가치가 높은 초충도 화첩 등 3건을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하기 위해 지난 10일부터 행정예고를 실시했다.

이번 지정예고는 「강릉시 향토문화유산 보호·관리 조례」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오는 29일까지 20일간 강릉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지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알리고 의견을 수렴한다.

예고 대상은 총 3건으로, 초충도 화첩은 사임당 작품이라고 전해지는 다른 그림들과는 차별성 있는 유물이고, 창랑정은 경포호 주변의 정자문화를 보여주며, 주문1리 서낭당은 지역사회에서 차지하는 문화적 가치

와 건축물의 역사성을 고려할 때 중요한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심의되었다.

강릉시는 향후 행정예고에 따른 의견 수렴을 거쳐 30일 최종 고시할 예정이며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하게 되면 시 지정 문화재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지판을 설치하여 지속적인 체계적으로 향토문화유산을 관리할 수 있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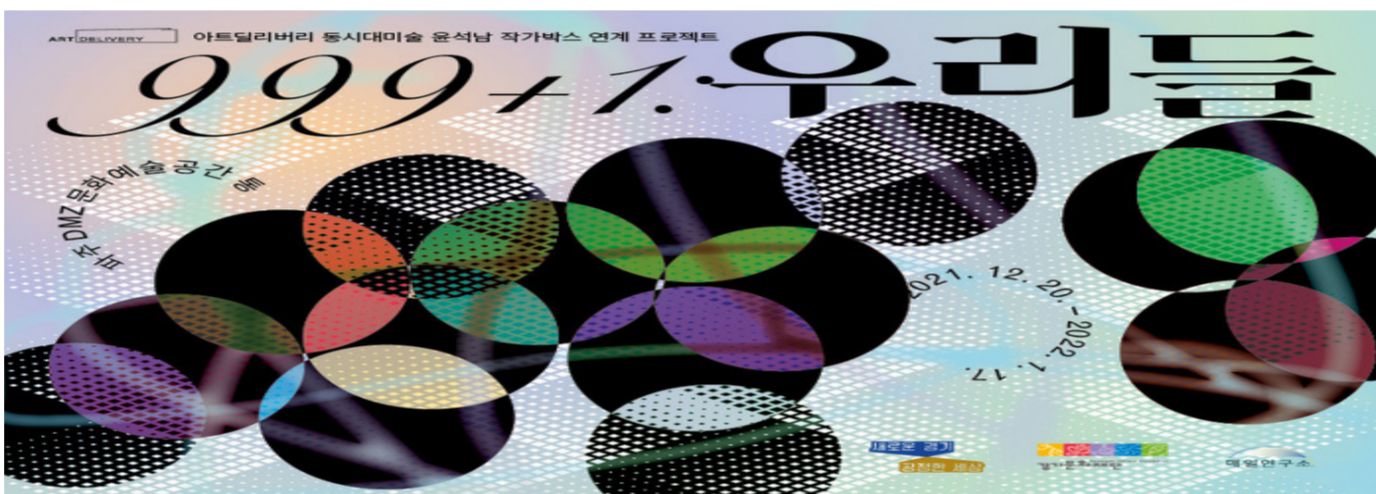
강릉시 관계자는 "2022년에는 향토문화유적 소유자로부터 지정 신청을 접수받아 연중 향토문화유산을 지정, 보호·관리하여 지역문화 보존에 앞장설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원경/기자



## 경기문화재단, 문화다양성 교육전시 <999+1:우리들> 전시 개막 및 DMZ 투어 프로그램 개시

▶ <아트딜리버리: 동시대미술 윤석남 작가박스> 참여자의 작품을 회수하여 전시하는 <999+1:우리들> 전시 개최 및 DMZ 전시 투어 프로그램 사전예약 개시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강현)은 2021 문화다양성 교육전시 <999+1:우리들> 전시를 12월 20일 월요일부터 2022년 1월 17일 월요일까지 파주 DMZ 문화예술공간 통에서 개최한다.

이 전시는 문화다양성 교육전시를 통해 다양성의 가치를 확산하고, 아트딜리버리 <윤석남 작가박스>를 온라인 및 오프라인 참여형 예술교육 프로젝트로 확장하고자 한다. 본 전시는 경기문화재단이 문화기획단체 매일연구소와 함께 진행한 비대면 시민예술교육 프로그램 <아트딜리버리: 동시대미술 윤석남 작가박스>의 연계 프로젝트이다. 윤석남 작가박스 참여자의 작품을 DMZ 내 전시 공간과 온라인 공간에 전시하여 전시 관람 및 투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아트딜리버리 윤석남 작가박스는 일반 참여자 500명과 노인 기관 참여자 500명의 신청을 따로 받아 총 1,000명의 신청자에게 발송되었다.

## 의령군민문화회관 '문화가 있는 날' 해학적 창극속으로 공연

의령군은 '12월 문화가 있는 날' 맞아 오는 이달 28일 오후 7시에 해학적 창극 속으로의 의령군민문화회관 공연장 무대에 올린다.

지역문화예술회관 '문화가 있는 날'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연으로서, 매달 마지막 수요일(해당 주간 포함)에 지역문화 활성화 기여 및 문화나눔을 통한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 참여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공연에서는 국립창극단 소속 소리꾼 서정금, 전문 국악인 김성현, 가야금연주자 권아람이 함께 한다. 김성현은 정동극장 예술단 단원을 역임하며 현재 민속악회 '정(正)'에서 활발한 공연 및 국악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권아람은 퓨전국악그룹 '오뉴월'의 작곡가이자

참여자는 아트딜리버리 상자에 있는 재료로 자화상을 그려 완성한 작품을 제출함으로써 온라인 및 오프라인 전시에 참여하게 된다.

<999+1:우리들>의 전시기획자는 "집으로 배달된 예술교육 키트를 통해 프로그램에 참여한 도민이 보내준 이야기와 자화상이 모여 '우리'를 이루는 전시이다. 이 전시는 지금 이 땅과 이 시대를 함께 살아 가고 있는 '여성' 그리고 '우리들'이 느끼고 있는 동시대적 정서를 공유하고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자리로 기획되었다"고 전했다. 본 전시를 감상하기 위해서는 전시 투어 프로그램을 예약해야 한다. 아트딜리버리 투어 프로그램은 파주 DMZ 내에 있는 문화예술공간 통으로 이동하여 함께 전시를 감상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프로그램이다. 비무장지대(DMZ)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이므로 참여자는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하며,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백신 2차

접종 완료자에 한하여 예약이 가능하다.

투어 프로그램은 올해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총 4회 진행되며, 사전 예약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사전 예약은 12월 15일 수요일부터 진행되며, 투어 일정과 예약 방법 등 세부내용은 경기문화재단 홈페이지(<https://www.ggcf.kr/>)와 아트딜리버리 홈페이지(<http://artdelivery.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투어 프로그램을 통하지 않고 개별 방문을 통해 관람하는 방법은 추후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본 전시는 코로나 19 확산 상황과 민간인 출입이 통제되는 DMZ 공간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온라인 전시로도 운영된다. 집에서 간편하게 감상할 수 있는 온라인 전시는 12월 20일 월요일 오프라인 전시 개막과 동시에 경기문화재단과 아트딜리버리 홈페이지를 통해 감상할 수 있다.

조혜영/기자

## 영천시, 세계 최초 활판 방식 일간신문 '민간인쇄조보' 제3회 학술세미나 개최 예정

영천역사박물관은 오는 16일 영천시립도서관 지산홀에서 '제3회 민간인쇄조보 학술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이다.

'조선왕조실록'의 선조신록 및 선조수정실록과 율곡 이이 '석담일기(경연일기)' 등 역사기록에만 존재하던 조선 최초의 신문이자 세계 최초의 활자조판 방식 상업용 일간신문 '민간인쇄조보'가 급히 학술세미나를 통해 444년 만에 새로운 도약을 할 예정이다.

2019년에 시작하여 3회째 열리는 이 세미나는 금년에는 ▲지봉 스님(영천역사박물관)의 '민간인쇄조보 제현상(諸現象)의 문제점' ▲남권희(경북대 문헌정보학과 명예교수)의 '민간인쇄조보 복원에 관한 고찰' ▲옥영정(한국학중앙연구원)의 '1577년 민간인쇄조보와 16세기 서술의 상업 출판' ▲권오덕(한국국학진흥원)의 '민간인쇄조보에 사용된 활자와 조선 전기 활자의 서체 비교' 주제로 발표가 진행된다.

조선 1577년 발행한 '민간인쇄조보'는 세계 최초로 활자조판 방식

를 사용해 1650년 독일에서 간행한 '아인코넨데 자이퉁 Einkommende Zeitungen'보다 73년, 1638년 중국에서 간행한 '저보(邸報)'보다 61년 앞선 최초의 활판 신문으로 만들어졌다.

쉽게 만들 수 있는 나무 활자를 이용해 조판 인쇄하는 방식으로 신문을 찍어낸 뒤 그 활자를 풀어서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경제성과 상업성 신문 발행에 있어 신속성을 모두 갖춘 근대 신문의 구조를 갖췄다.

현재 남아있는 조보는 완전한 문서 형식을 갖추지 못한 잔편의 자료이지만, 희귀성과 민간에서 상업 목적으로 활자를 사용하여 인쇄된 최초의 자료인 점에 의해 2018년에 경상북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됐다.

영천시는 영천역사박물관 측에게 "유형문화재인 민간인쇄조보를 널리 알려주시는 노력에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우리 문화재를 연구하는데 더욱더 힘써 주실 것"을 당부했다.

장동호/기자

## 충청남도, '2030 문화비전' 4개 우수 시군 선정

충남도는 '충남 2030 문화비전 시군 이행평가'를 실시해 우수 시군을 선정하고 이진호 문화체육관광공장이 직접 최우수기관인 당진시를 방문해 포상했다고 16일 밝혔다.

충남 2030 문화비전의 실행력 강화와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도출을 위해 추진한 이번 평가에서는 도내 15개 시군별 실행과제의 이행 상황을 살폈다.

평가는 △문화 관리 실현 △문화향유 확대 △미래 문화 기반 △문화협치 구축 등 충남 2030 문화비전의 4대 목표와 우선 추진해야 할 10대 선도시책을 기준으로 평가지표와 세부항목을 정해 진행했다.

도는 시군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실무부서 검토와 평가자문단 회의를 거쳐 △최우수기관 당진시 △우수기관 논산시 △정려기관 홍성군·서산시를 최종 선정했다.

당진시와 논산시는 모든 분야에서 고르게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특히 문화비전 이행을 위한 정책사업 발굴 및 문화비전 연계 시군 자체 계획 수립, 문화협의체 구성 운영 실적 등 문화비전에 대한 관심도를 보여주는 주요 지표에서 좋은 성적을 냈다.

홍성군은 전년 대비 문화·체육·관광 분야 예산 증가율이, 서산시는 '견주' 앱 누적 가입자 수 증가율과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등록예술인 수 증가율 등이 호평받았다.

도는 이번 평가 결과에 따라 4개

우수 시군에 기관 표창을 수여하고 해당 시군의 추천을 받아 유공 공무원·민간인도 포상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는 시군 우수사례를 연차별 충남 2030 문화비전 시책에 반영해 도민 체감형 문화사업을 확대하고 부진한 시군은 상담을 통해 문제점을 해결·보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진호 도 문화체육관광공장은 "올해는 지난해 충남 2030 문화비전을 선포한 이후 초석을 다지는 중요한 해"라며 "문화비전이 시군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시군 이행평가를 통해 방향을 제시하고 더 높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오는 2030년까지 매년 충남 2030 문화비전과 15개 시군을 연계한 자체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연말 시군 평가 및 포상을 통해 우수 사례를 발굴·확산할 방침이다.

최정근/기자



# 경기도, 좋은 일자리 창출 앞장선 '일자리 우수기업' 역대 최다 인증

## 경기도, 2021년도 하반기 일자리 우수기업 신규 인증 대상기업 45개 사 선발

경기도는 코로나19에도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복지에 힘쓴 도내 중소기업 45개 사를 '2021 하반기 일자리 우수기업'으로 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는 도내 고용 창출, 고용유지 실적 및 근무 환경, 기업 성장성이 우수한 기업을 일자리 우수기업으로 인증, 각종 혜택을 부여하는 사업으로 경기도가 2009년부터 12년간 지속 시행해왔다.

도는 지난 9월 1일부터 10월 8일까지 하반기 신규 인증 희망 기업을

모집한 결과 총 100개 사가 신청했다. 이는 당초 목표인 33개 사의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도내 기업들의 뜨거운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중 서류심사와 현지 실태조사, 선정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최종 45개 사를 선발했다. 올해는 코로나19에도 일자리 창출에 힘쓴 업체의 노고를 격려하고자 당초 인증 목표인 33개 사보다 12개 사를 추가 인증했다.

이로써 올 한해 인증을 받은 기업은 총 92개 사(상반기 47개 사 포함)로, 연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기업

수 중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번에는 인증기업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자 고용실적 외에도 노동복지 환경, 근로기준법 준수, 가족친화 경영 등 다방면의 지표를 중심으로 심도 있는 평가를 진행했다.

인증 받은 45개 기업은 코로나19로 경영이나 추가 고용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평균 고용증가 수 15.4명, 평균 고용증가율 41.6%라는 성과를 거둔 것이 높이 평가됐다.

이들 기업에는 ▲고용환경 개선사업 참여 자격 ▲인증서 및 현판 ▲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 가점 부여 및 금리 우대 ▲해외 마케팅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지방세 세부조사 면제(3년) 등 27가지 혜택이 주어진다.

특히 인증받은 업체 중 별도 신청 절차 및 심사를 거쳐 고용증가·유지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20개 내외 업체를 선발, 최대 4,000만 원의 고용환경개선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인증 기간은 인증일로부터 2년이며 일자리 증가율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의 경우 1회에 한해 2년간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 수여식은 개최하지 않고 방문 또는 택배로 인증서와 현판을 전달할 예정이다.

현병천 경기도 일자리경제정책과장은 "코로나19와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운 국면에도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힘쓴 도내 기업의 노고를 격려한다"며 "앞으로도 안정적인 고용 창출과 더불어, 노동자들이 장기 근속할 수 있도록 대내외적 환경을 정비하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 전했다.



economy  
경제

문화매일 15  
2021년 12월 17일 금요일

조혜영기자

# 서울시-SH공사, 전국 최초 택지조성원가 포함 '아파트 분양원가' 전면공개

## 상세근거 담긴 설계·도급내역서, 취득한 분양수익 사용계획도 모두 투명하게 공개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SH공사가 건설한 아파트의 분양원가, 그리고 원가 산정기준이 된 택지조성원가 등의 71개 항목을 전면 공개한다. 동시에 분양가 대비 취득한 분양수익에 대한 사용계획도 함께 공개해 그 이익이 시민들에게 환원되는 과정까지 투명하게 공유한다는 계획이다.

설계·도급 등에 대한 내역서를 공개한 곳은 있었지만, 아파트 분양원가를 산정해 공개하는 것은 서울시가 전국 최초다.

시는 오늘 고덕강일4단지에 대한 분양원가 공개를 시작으로 사업정산이 마무리된 최근 10년 치 건설 단지 34곳에 대한 분양원가를 내년부터 모두 공개한다고 15일 밝혔다. 정보 공개는 서울시와 SH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이뤄진다.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는 오세훈 시장이 급등한 집값을 안정화하고 공공기업의 정렴도를 높이기 위해 제시한 공약 사항으로, 지난 11월에 발표한 SH공사 5대 혁신방안에도 포함됐다.

양 기관의 분양원가 공개항목은 건설원가(61개 항목)와 택지조성원가(10개 항목)이다. 특히 아파트 가격의 절반 이상을 차지해 필수 공개 항목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던 택지조성원가를 처음으로 포함시켰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2007년 재임 당시 '분양가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SH공사 건설 아파트에 대한 분양원가를 지자체 최초로 공개한 바 있다.

그러나 2008년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면서 국토부가 기본형건축비에 기반 한 분양가 산정을 표준으로 채택하면서 서울시와 SH공사도

분양가격만을 공시해왔다. 이후 작년 SH공사는 항동 공공주택지구 4 단지에 대한 분양원가를 공개했으나 건설원가 61개 항목에 대해서만 공개했고, 택지조성원가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에 처음으로 공개되는 택지조성원가 10개 항목은 ▲용지비 ▲용지부담금 ▲조성비 ▲기반시설설치비 ▲이주대책비 ▲직접인건비 ▲판매비 ▲일반관리비 ▲자본비용 ▲그 밖의 비용이다.

분양원가와 71개 항목에 더해 몇 백 페이지에 달하는 설계·도급 내역서도 함께 공개한다. 분양원가는 정리된 데이터이니 만큼, 관련 상세 근거와 객관적 지표가 담긴 로우데이터(Raw data)까지 함께 공개하는 것이다.

하도급내역서는 향후 신규 도급을 체결할 때 계약 조건에 자료 공개 여부를 명시하는 방식으로 공개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시와 SH공사는 아파트 분양원가를 투명하게, 낱알이 공개해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SH공사의 경영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분양가 거품을 제거하는 효과도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 첫 시작으로 양 기관은 가장 최근에 준공정산이 완료(21.9월)된 고덕강일4단지에 대한 분양원가를 공개했다. 총 분양원가는 1,765억800만 원으로, 택지조성원가는 m<sup>2</sup>당 271만 7,119원, 건설원가는 m<sup>2</sup>당 208만6,640원이다.

이에 따른 분양수익은 980억 5,300만 원으로, ▲고덕강일4단지 임대주택 건설비(260억1,100만원) ▲2019년 SH공사 임대주택 수선유지비 발생 분(475억4,500만원) ▲2019년 다가구 임대주택 매입(244

억,700만원) 등에 사용됐다.

시는 이미 준공돼 사업정산을 완료한 28개 단지(5개 지구-마곡지구, 내곡지구, 세곡2지구, 오금지구, 향동지구)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 중에, 준공과 정산을 앞두고 있는 5개 단지(마곡지구 9단지, 고덕강일지구 8단지·14단지, 위례신도시 A1-5BL·A1-12BL)은 각 단지별로 검증절차를 거쳐 하반기 중에 분양원가 공개를 각각 마친다는 계획이다.

설계내역서와 도급내역서의 경우 작년에 공개한 항동 공공주택지구 4 단지를 포함해 총 35개 단지에 대한 정보를 이미 SH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완료했다.

이후에도 SH공사가 조성하는 아파트는 원칙적으로 분양원가와 분양수익의 사용계획을 투명하게 공개한다.

김현동 SH공사 신임사장은 "세금으로 운영되는 건설공기업으로서 열린경영·투명경영을 실현해 가겠다"며 "작년에 공개한 분양원가 61개 항목에 더해 택지조성원가와 설계·도급·하도급 내역서까지 대폭 공개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풍선처럼 부풀려진 주택분양가의 거품 제거에 기여할 수 있을 바란다. 앞으로도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택지조성원가와 건설원가, 하도급·설계내역서까지 낱알이 공개하는 것은 지자체 최초"라며 "공공주택은 시민의 세금으로 짓고 관리되는 '시민의 집'으로, 이번 분양원가 확대 공개는 주인인 시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 부산시, 서부산권에 1조 5천억 원 신재생에너지 투자 유치

'에코델타시티  
집단지너지공급사업'산업부허가  
취득을 계기로 부산시와  
맥쿼리카피탈코리아(주),  
(주)부산도시가스 간 투자협약 체결

부산시는 오는 16일 오전 11시, 시청에서 맥쿼리카피탈코리아(주), (주)부산도시가스와 에코델타시티 일원에 1조 5천억 원 규모의 신재생에너지와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투자를 본격화하는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투자 협약식에는 박형준 부산시장을 비롯하여 이조연 맥쿼리카피탈코리아(주) 대표, 정순환 (주)부산도시가스 사업개발본부장 등 관계자가 참석한다.

부산시는 오는 16일 오전 11시, 시청에서 맥쿼리카피탈코리아(주), (주)부산도시가스와 에코델타시티 일원에 1조 5천억 원 규모의 신재생에너지와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투자를 본격화하는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투자 협약식에는 박형준 부산시장을 비롯하여 이조연 맥쿼리카피탈코리아(주) 대표, 정순환 (주)부산도시가스 사업개발본부장 등 관계자가 참석한다.

최근 (주)부산도시가스에서 관련 사업에 대한 산업부 허가(EDC 집단에너지공급사업)를 취득함에 따라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되어 이번 협약을 맺게 됐다.

협약을 통해 ▲부산시는 대규모 에너지 인프라 구축을 위한 행정적 지원 ▲맥쿼리카피탈코리아(주)는 수소연료전지발전소 200MW(메가와트) 건립을 위한 사업개발·투자 등(1조 2천억 원) ▲(주)부산도시가스는 지역난방 공급을 위한 집단에너지공급사업의 열 배관, 보일러와 연료전지 10MW(메가와트) 등 3천억 원을 투자해 서부산권 탄소중립 에너지 자립도시 기반을 협력·구축한다.

연료전지를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210MW(메가와트) 규모의 투자는 국내 최대이며, 연간 전력 170만 Mwh(메가와트시)와 열 87만 Gcal(기가칼로리)를 생산해 서부산권에 에너지 자립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이산화탄소를 저감하는 청정수소(그린, 블루수소) 공급 기반 구축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하고, 시는 CCUS(Carbon capture and

storage, 탄소 포집 및 활용·저장) 기술을 보유한 지역의 청정수소 생산 기술 기업을 적극 발굴·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공사 중 연간 1만 8천여 명, 시설 운영 시 정구인력 150여 명 등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협약으로 연간 온실가스 14만 톤, 대기오염물질 3,200톤 등을 감축하여 2050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하는 물론, 송전선로 건설비용과 송전에너지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분산형 에너지 확대에도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주)부산도시가스는 부산시의 행정지원을 통해 강서구 명지에 552억 원을 투자해 연료전지 10MW(메가와트)를 지난 6월에 준공하고 운영 중이다.

또한, 발전소 인근 지역은 중앙정부의 전력기금으로 매년 기본지원금 1억 6천만 원과 총투자금의 1.5%인 180억 원의 특별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 강서구 등 지역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시는 2024년 서부산권에 에코델타시티 및 2차 명지국제신도시 조성에 맞추어 약 6만 세대와 인근 산업단지에 신재생에너지를 안전하고 저렴하게 공급하여, 세계적인 신재생에너지 전환정책에 동참하고 에너지 관련 지역기업체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전망이다.

박형준 부산시장 "부산시는 에너지전환을 위한 '부산 신재생에너지 비전과 전략'에 따라 탄소중립 선도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라며, "코로나19로 국내외 경제 여건이 매우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번 투자에 나서준 기업에 감사드리며, 계획한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남궁영기기자

# 제주도, 올해 수출실적 역대 최대 달성 '눈 앞'

제주특별자치도는 15일 오전 11시 제주국제대호텔에서 '제11회 제주수출인의 날 및 제58회 무역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제주 수출인의 날 및 무역의 날 행사는 수출 중소기업인의 사기를 높이고 수출 분위기를 확산시키며, 수출 확대 및 해외시장 개척 유공자를 발굴하기 위해 매년 진행하고 있다.

제주도와 한국무역협회 제주지부가 주최한 이날 행사에는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 김성후 제주기업협회회장, 현희 제주수출협회장을 비롯해 수출 관련 기업·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구만섭 권한대행은 "코로나19 여파로 수출환경 악화 등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상황 속에서도 수출인 모두의 열정과 노력으로 올해 제주는 역대 최대 수출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수출기업과 유공자들의 성과를 격려했다.

구 권한대행은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이 청정 제주산물의 우수성을 세계시장에 널리 알리는 '경제외교관'이라며 "수출기업과 수출인들이 자부심을 갖고 더 나은 환경에서 양질의 상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제주도정은 수출의 역군이자 제주경제 발전의 주역인 제주기업 및 기업인 여러분과 함께 제주의 경제영토를 넓혀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서는 수출 우수기업 14개사와 유공자 8명에 대한 포상이 수여됐다.

제7회 제주 수출인의 날 수출대상에는 (주)케이아이오 △수출 우수상, (주)유엔아이제주(해의시장 다변화 우수상) △수출 장려상에 (주)넥스트이티(IT 등 지식산업분야), 농업회사법인 (주)제주원푸드(농축산물분야)가 선정됐다.

수출 유공자에는 한병희(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제주지역본부), 배기준(한국브루어리이 이엔엠), 유현나(오송팜(주)), 강지철(제주경제통상진흥원), 강민지(헬리오스) 씨 등 5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제58회 무역의 날 기념 정부포상에는 △5백만불탑 (주)오션, (주)레시스 △3백만불탑 에이치지동신상사 △1백만불탑 영림영농조합법인 제주편백우드, (주)더로터스, 영어조합법인 서립수산, (주)청해푸드, 농업회사법인 프롬제주, (주)송이산업이 수상했다.

수출 유공자에는 △산업부장관상 오유진 대표(주)더로터스) △무역협회장 오산수민 책임연구원(제주대학교), 김시환 과장(JDC)이 선정됐다.

한편, 제주도는 올해 10월 말 기준 총 1억 8,000만 달러의 수출실적을 달성했으며, 전년 대비 수출증가율은 전국 최고 수준인 59.6%를 기록했다.

현재까지 역대 최대 수출실적이 2018년 1억 8,200만 달러인 것을 감안하면 올해 가장 높은 수출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최재은기자

#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한마당 행사' 개최

충청남도는 15일 내포혁신플랫폼에서 '충남 사회적경제 한마당' 행사를 열고, 올해 사회적경제분야 성과공유와 내년 정책방향을 논의했다.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주관한 이날 행사는 이필영 행정부지사와 도내 사회적경제 기업 종사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온(유투브 중계)·오프라인으로 진행됐다.

행사 1부는 도지사 표창, 감사패 및 영상공모전 시상, 내년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발표 등을 진행했다.

2부는 '사회적경제 대화마당 및 사회적경제 포럼'을 통해 사회적 경제

인들의 화합과 소통을 강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와 함께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 개척을 위해 다양한 도내 우수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 전시 부스를 운영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 부지사는 "코로나로 어려운 사회적경제기업인들을 위로하고 서로의 비전을 공유할 수 있는 교류의 장을 마련했다"며 "도는 사회적경제를 통해 협력과 포용 성장을 견인해 '더 행복한 충남'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정근기자



# 평택시,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와 업무협약 체결

평택시는 15일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와 「평택시민의 ESG실천과 저탄소 식생활 문화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평택시청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정장선 시장, 김준진 aT사장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저탄소 식생활 캠페인 '코리아 그린푸드 데이 캠페인' 확산 ▲로컬푸드 활성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협력 ▲기후 위기 인식 개선과 탄소중립 생활 실천 촉진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평택시는 기후위기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로컬푸드 지역 먹거리 소비 촉진과 저탄소 식생활 캠페인 등 먹거리 분야 탄소중립에 나서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지역 농식품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먹거리 중합계획인 '푸드플랜'을 2020년도에 수립했고, 지난 11월 3일 '평택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를 제정해 푸드플랜 사업·예산의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이를 실행하고자 내년도 5개 분야, 20개 사업, 총사업비 약63



억원의 예산을 반영, 먹거리정책 실행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제공으로 삶의 질을 높이고자 지역 농축산물 판로를 확대하고 친환경 농업 기반을 육성하여 평택시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이번 평택시와 유통공사의 협약으로 우리 모두와 미래세대를 위해 먹거리의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 '농장에서 식탁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저탄소 식생활 캠페인 '그린푸드 데이 캠페인'을 확산하는 계기를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정장선 시장은 "평택시와 유통공사가 서로의 보유자원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저탄소 식생활 문화 확산과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확립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다양한 협업을 수행해 나가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ESG경영 실천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양시현기자

# 배우 배두나, 국내 최초 배우 뇌실험 피실험자 되다

KAIST 정재승 교수와  
함께한 뇌실험 현장 영상  
공개



주목하게 된 이유는 드라마 [비밀의 숲]에서 조승우가 맡은 '황시목'의 캐릭터가 시작이었다. '뇌실험'의 일정 부분이 제거된 후 감정을 읽을 수 없는 사람이 된 황시목의 감정을 깨우는 이는 바로 경찰 한여진(배두나)이었다. "타인의 드러나지 않는 감정을 읽는 한여진 캐릭터를 연기한 배두나의 뇌는 과연 어떻게?" 라는 질문에서 시작한 이 실험은 KAIST 정

재승 교수와 만나 현실화되었다. 정재승 KAIST 바이오및뇌공학과 교수는 이번 실험에 대해 "과학자 입장에서 매우 흥미로운 제안이었다. 다른 사람이 되어서 그 사람의 삶을 연기하는 일을 반복하는 배우의 뇌에서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 라는 의문이 실험으로 이끌었다고 밝혔다. 더불어 백은하 소장이 주목한 배두나의 공감능력에 대해서도

무엇이 다른지, 어떤 게 남다른 지 궁금했다고 전했다. 실험은 자기공명영상장치(fMRI) 기계에 배두나가 피실험체로 직접 들어가 참여했다. 영상, 대본 등 배우들이 평소 접하는 것들을 보여주며 이것을 읽을 때 뇌의 어떤 영역들이 활성화되는지 촬영하며 이루어졌다. 배두나뿐만 아니라 동일 연령대,

성별의 대조군들도 참여해 실험의 완성도를 높였다. 데뷔 23년, 배우 생활을 하면서 타인의 삶을 살아보는 아주 긴 훈련과 학습 과정을 거친 배두나의 뇌는 과연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는 여정은 논문에 필적하는 수준으로 정리되어 도서 『배우 배두나』에 대한 흥미를 높인다. 실험 결과와 자세한 분석은 도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공개된 실험현장 영상에서는 "배우를 하기 전의 저와 배우를 하고 난 후의 저는 다른 사람인 것 같다"는 배두나의 인터뷰로 시작한다. 자기공명영상 장치 기계에 들어가 실험에 참여하는 모습이 담긴 배두나의 모습과 그녀의 뇌들이 화면에 잠깐 등장하며 실험 결과에 대한 호기심을 높인다. 『배우 배두나』는 12월 6일부터 3일간 W컨셉, 백은하 배우연구소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독점으로 오픈되었으며 12월 9일부터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등 전국 온, 오프라인 서점을 통해 구입 가능하다.

김효진기자



16 문화매일  
2021년 12월 17일 금요일

## 영화 '랩', 스페셜 포스터 공개

12월 29일 개봉하는 영화 '랩'을 향한 예비 관객들의 반응이 심상치 않다. 각종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랩'을 향한 기대평은 물론, 배일에 사인 극중 스토리를 추측하며 뜨거운 관심을 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신비한 아이 '아다' 얼굴 모양의 '랩' 전단지과 인스타그램 AR 필터 사용 인증샷까지 개인 SNS에 업로드하며 영화의 개봉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어 이목을 끈다. 이에 오늘 공개하는 스페셜 포스터 또한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오는 12월 29일 개봉하는 영화 '랩'은 눈 폭풍이 휘몰아치던 크리스마스 날 밤 이후 양 목장에서 태어난 신비한 아이를 선물 받은 '마리아' 부부에게 닥친 예측할 수 없는 A24 호러로, '미드소마' '유전'을 잇는 호러 무비로 개봉 전부터 뜨거운 반응을 일으켰다.

공개 직후 칸영화제 독창성상 수상, 시체스영화제 3관왕에 이어 최근 전미비평가위원회가 선정한 올해의 영화 TOP5에 이름을 올리며 2022 아카데미 시상식 국제영화상 강력 후보로 주목받고 있다.

수상 릴레이를 이어가고 있는 화제작답게 '랩'의 국내 개봉 역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29일(수) 개봉 소식이 전해진 후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내에 '랩'의 스토리를 추측하는 게시글이 등장하는가 하면, 영화의 전단지와 AR 필터 인증샷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는 것이다.

예비 관객들은 "빨리 보고 싶어요~ 29일까지 어떻게 기다려~~!!", "개봉 기다리고 있는 영화입니다", "미드소마와 유전의 명맥을 이어갈 랩. 이번에는 어떤 충격적인 이야기가 펼쳐질지 궁금해요", "A24표 호러라니 너무너무 기대됩니다", "혼자만 알고 있기에는 아까워서 동네방네 소문내고 있어요", "제2의 미드소마인가", "이런 공포 내 취향" 등 '랩'의 개봉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음을 밝히며 높은 기대감을 드러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이 양을 기르는 것이 아니라 양들이 인간을 교육하고 훈련 시키는 건가", "자기 아이인 것처럼 새끼 양을 데려다 기르지만 계속 죽어나가는 양에 대한 이야기 아닐까", "양을 자기 자식이라 착각하는 거 아닌지?", "양목장을 인수해서 이사 온 가족의 자식이 점점 양으로 변해가고 부모는 외부 사람들에 게 그 사실을 숨기고 기우는데... 주위 사람들은 이상하게 보고, 어느 날 부모들도 점점 양으로 변해가는 건가요" 등 공개된 메인 예고편을 보고 각자의 방식으로 '랩'의 스토리를 궁예하는 예비 관객들도 있어 이목을 끈다.

이처럼 남다른 화제성으로 12월 최고 기대작으로 등극한 '랩'이 또 한번 궁금증을 자극하는 스페셜 포스터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스페셜 포스터는 화제의 중심에 선 신비한 아이 '아다'의 뒷모습과 함께 중앙에 위치한 '랩' 타이틀에 비친 '마리아' 누미 라파스의 강렬한 비주얼이 인상적이다. '마리아'의 총이 겨누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지 호기심을 높이는 가운데, 선물인지 약품인지 모를 '아다'의 존재가 벌써부터 묘한 긴장감을 불러일으킨다.

울연할 최고 기대작으로 등극한 A24 호러 '랩'은 12월 29일 개봉 예정이다.

최재은기자

## 영화 '화사한 그녀' 캐스팅 확정 크랭크인..인생 역전을 위한 작전이 시작된다!

임정화, 송새벽, 방민아, 박호산, 손병호, 김재화 등 캐스팅을 완성



영화 '화사한 그녀'가 임정화, 송새벽, 방민아, 박호산, 손병호, 김재화 등 캐스팅을 완성 짓고 12월 15일 크랭크인, 본격 촬영에 돌입한다.

'화사한 그녀'는 인생 역전을 꿈꾸는 '지혜'(임정화)와 그녀의 딸이 600억 재산을 보유한 문화재 브로커의 집안에 잡입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 '화사한 그녀'가 임정화, 송새벽, 방민아, 박호산, 손병호, 김재화 등 대체 불가 배우들의 캐스팅 조합을 완성 짓고, 대본 리딩 현장을 전격 공개했다.

먼저, 코미디, 멜로, 스릴러, 액션 등 장르를 가리지 않고 매 작품마다 인생 연기를 갱신하는 진정한 멀티 엔터테이너 배우 임정화가 인생 역전 한 방을 위해 수백억 규모 재산을 보유한 문화재 브로커를 노리는 작전꾼 '지혜' 역을 맡았다.

그녀는 '댄싱퀸'(2012), '미쓰 와이프'(2015), '오케이 마담'(2020) 등 원톱 주연 코미디 영화마다 흥행 저력을 보여준 만큼 이번 영화 '화사한 그녀'를 통해서도 대중들에게 어떤 색다른 모습을 비출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방자전'(2010), '위험한 상견례'(2015), '7년의 밤'(2018), '해피투게더'(2018), '진범'(2019), tvN 드라마 [나의 아저씨], OCN 드라마 [빙의] 등 열혈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배우 송새벽이 제별가의 외동아들이자 반전의 파과보이 '완

규' 역으로 분했다. 다양한 장르를 통해 코미디 연기는 물론 로맨스까지, 다채로운 변신을 보여준 그는 영화 '화사한 그녀'를 통해 지금껏 보지 못했던 색다른 매력을 200% 발산하며 관객들에게 커다란 즐거움을 안겨줄 예정이다.

배우 방민아는 자신의 엄마이자 하나뿐인 파트너 '지혜'의 작전을 돕는 '주영' 역을 맡았다. 데뷔 초부터 다양한 끼와 재능을 선보이며 대중들의 많은 사랑을 받은 것은 물론, 최근 영화 '최선의 삶'으로 제20회 뉴욕아시아영화제 국제라이징스타상, 제22회 부산영화평론가협회상 신인여우상을 수상하고 제42회 청룡영화상 신인여우상 후보에 오르며 연기력을 입증했다. '화사한 그녀'를 통해 선보일 그녀의 새로운 도약에 기대감을 더한다.

tvN 드라마 [술기로운 감빵생활]을 시작으로 넷플릭스 오리지널 '콜' '낙원의 밤' 등의 작품을 통해 선 굵은 연기로 호평을 받은 배우 박호산이 인생 역전을 위한 작전을 제안하는 브로커 '조루즈' 역을 맡았다. 캄조 같은 매력으로 개성 넘치는 캐릭터를 탄생, 극에 활력을 더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베테랑 연기파 배우 손병호가 극의 핵심 키를 쥔 인물이자, 수백억 재산의 소유자 '기형'으로 분한다. 그는 스퀸과 브라운관을 오가며

다채로운 작품을 통해 열혈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카리스마와 아우라로 '악역 연기 마스터'라는 수식어를 얻을 만큼 강렬한 인상을 선보였다. 그런 그가 이번 영화 속 핵심 키를 쥔 인물로 어떠한 활약을 펼칠지 기대감을 증폭시킨다.

또한 '기형'의 하나뿐인 오른팔이자 비밀을 간직한 집사 '쿠미코' 역에는 배우 김재화가 맡았다. '하모니' '황해'(2010), '퀵'(2011), '코리아'(2012) 등의 굵직한 작품에서 인상 깊은 연기를 보여준 것은 물론 최근 '모가디슈' '싱크홀' 연에 빠진 로맨스'(2021) 등의 다양한 작품에 출연하며 '명품 신 스틸러'의 반열에 올랐다. 그런 그녀가 '화사한 그녀'를 통한 과격적인 연기 변신을 예고, 대중들의 이목이 집중된다.

특히 본격적인 촬영을 앞두고 진행될 리딩 현장에서는 시종일관 웃음이 끊이지 않는 유쾌한 분위기는 물론 실제 촬영을 방해할까 하는 배우들의 몰입감이 더해져 기대를 높였다.

임정화, 송새벽, 방민아, 박호산, 손병호, 김재화 등 대체 불가 배우들의 캐스팅 조합을 확정하며 기대감을 증폭시키고 있는 영화 '화사한 그녀'는 12월 15일(수) 크랭크인 예정이다.

최민식기자

## 드라마 '꽃 피면 달 생각하고' 유승호-변우석 여심 저격 투샷

"남영과이표관계?액션장면도 있다..꼭드라마로확인해달라" 귀뜸!

'꽃 피면 달 생각하고' 유승호와 변우석의 여심 저격 투샷이 공개됐다.

'연모' 후속으로 오는 20일 처음 방송되는 KBS 2TV 새 월화드라마 '꽃 피면 달 생각하고' 측은 14일 남영(유승호 분)과 이표(변우석 분)의 투샷 스틸을 공개했다.

'꽃 피면 달 생각하고'는 조선 시대 내려졌던 금주령을 배경으로만 가져와 드라마적 상상력을 가미한 퓨전 사극이다.

작품에는 세상이 정한 금기에 반기를 드는 네 청춘이 등장하는데, 그중 유승호와 변우석이 연기하는 원칙주의 감찰 남영과 날라리 왕세자 이표는 뜻밖의 앙숙 케미로 시청자들의 미소를 유발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공개된 스틸에는 남영과 이표가 사월초파일 축제 거 펼쳐진 거리에서 우연히 마주하는 장면이 담겼다. 남영은 마치 누군가를 쫓고 있는 듯 날카로운 눈매를 하고 있다. 이표는 왕세자 신분을 감추고 자유롭게 거리를 거닐고 있다.

## 헤리, '1박2일' 최고시청률 견인, 유튜브 리얼 김장기도 화제!

헤리의 '1박 2일' 활약과 유튜브 채널을 통한 김장 도전이 화제다.

12일 방송된 '1박 2일'에 게스트로 출연한 헤리는 쫄북탕을 건 승부에서 폭풍떡볶이부터 온 몸을 던진 게임 참여까지 '1박 2일' 멤버들과 눈부신 케미를 보여주며 이날 분당 최고 시청률 17.8%(닐슨코리아 제공, 전국 가구 기준)를 기록했다. 프로그램의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린 헤리의 활약에 남은 방송을 향한 기대감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

아울러 지난 10일(금) 공개된 헤리 개인 유튜브 채널에 속 김장 프로젝트도 화제가 되고 있다. '헤리 Vlog | 헤리네 김장하는 날, 시골 집밥 스페셜 보실래요?'라는 제목의 콘텐츠에서 헤리는 시골 이모집에 방문해 김장 대장정에 나서 친숙한 모습과 푸근한 시골 가족의 일상을 보여줘 유튜브 시청자들의 공감대를 모으며 주말 내 화제의 중심에 섰다.

공개된 영상에서 헤리는 이번이 첫 김장 도전임을 밝히며 곧 방영 예정인 드라마 '꽃 피면 달 생각하고' 촬영을 통해 배운 수레 끌기 실력을 발휘하며 140포기 배추를 나른 후 절이기를 끝냈고 다음날 본격적인 김장과 알타리 무얹까지 전전후후 활약했다.

헤리, 유튜브에서 공감 부른 '현실 김장!' 배추 나르기부터 양념까지 하얗게 불태웠다!

이튿날 절인 배추에 양념을 무치다 잠시 쉬는 시간을 가진 헤리는 "입맛이 없다"며 수줍게 웃으며 물만 들이키며 김장의 고됨을 호소했다.

이어 조카들과 카드놀이, 술래잡기를 하며 초등학생인 조카들에게 지지 않기 위해 진심으로 게임에 임하는 헤리의 모습이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

이 밖에도 헤리네 가족의 따뜻한 모습이 훈훈함을 더했다. 가마솥에 한술 가득 끓여진 감자탕과 삼촌이 직접 구워준 바베큐를 먹으며 여치를 치켜드는 헤리의 모습, 김장의 꽃인 수육을 삶으며 즐거워하는 모습, 소소한 농담을 하며 웃음꽃을 피우는 가족들의 화목한 모습이 보는 이들을 미소 짓게 했다.

이에 시청자들은 "헤리 유튜브가 좋은 이유는 바쁜 와중에도 헤리가 직접 촬영한 영상이기 때문", "헤리의 밝은 이 가족들로부터 온 것 같다."

보기 좋은 가족 일상이다", "우리 집도 김장해야 되는데 너무 공감된다", "시골 모습이 정말 정감 간다. 영상을 보니 헤리도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구나 싶다"는 반응을 보였다.

헤리는 오는 20일 첫 방송을 앞두고 있는 KBS 2TV '꽃 피면 달 생각하고'에서 밀주꾼이 된 생계형 양반 '강로사' 역으로 시청자들을 찾은 예정이다.

현우주기자